



康津 龍雲里
63號 高麗
青瓷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2015



康 津 郡



(財)民族文化遺産研究院

康津 龍雲里 63號 高麗 青瓷窯址 發掘調查 報告書

姜 景 仁
李 鍾 玟
李 修 炅
李 恩 美
韓 盛 旭



2015

이 보고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30조 2항에 의거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는데 동의함

일러두기

이 보고서는 강진군의 의뢰를 받아 강진 고려청자요지(2기) 정밀발굴조사(문화재청 허가 제2012-0529호)중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1. 유구

- 1) 보고서 도면의 방위는 자북을 기준으로 한다.
- 2) 유구의 토층도와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 고도를 나타낸다.
- 3) 유구의 축소 비율은 유구 도면은 1/40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유물

- 1) 유물의 축소 비율은 자기류 1/2, 도기류 1/2, 요도구 1/3를 기준으로 하였다.
※ 축소비를 달리한 경우 해당 도면에 별도의 축척을 표시하였다.
- 2) 유물 원고의 유물 번호는 해당 유물의 도면과 사진 번호 등과 일치한다.

目 次

I. 머리말	09
II. 遺蹟의 위치와 환경	13
1. 自然·地理的 環境	13
1) 康津郡의 自然·地理的 環境	13
2) 遺蹟의 立地	15
2. 考古·歷史的 環境	18
1) 考古學的 背景	18
2) 歷史的 背景	25
3. 康津의 陶盜史的 背景	27
1) 고려시대 강진의 역사적 배경	27
2) 강진 청자의 생산체제	29
3) 강진 고려청자 窯場의 현황	37
III. 調査 範圍와 方法	45
1. 調査 範圍	45
2. 調査 方法	46
3. 遺蹟의 層位	47
4. 出土遺物의 分類	50
1) 발	50
2) 완	52
3) 접시	53
4) 잔	54
5) 뚜껑	55
6) 병	55
7) 호	56
8) 도기	56
9) 요도구	58
IV. 調査內容	63
1. 靑盜窯址	65
2. 가마 퇴적층	74

3. 遺物의 科學的 分析	163
1)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163
2) 청자의 과학 기술적 특성	164
V. 考 察	186
1. 요장 현황과 출토품	186
1) 가마와 퇴적	186
2) 출토품의 구성과 특징	187
2. 초기청자 요장 출토품과의 비교	190
1) 중서부 지방 전축요 출토품과의 비교	190
2) 남서부 지방 토축요 출토품과의 비교	195
3. 조업 시기와 요업사적 성격	200
1) 조업 시기	200
2) 요업사적 성격	200
4. 청자와 갑발의 성분 특징	204
VI. 맺 음 말	207



圖面 目次

도면 01. 강진군의 지리적 위치(출처 : 한국지명유래집)	13
도면 02. 조사지역 지질도(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정보시스템)	14
도면 03. 조사지역 토양 지형도(출처 : 토양환경정보시스템)	15
도면 04.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16
도면 05. 조사지역 지형도(1918년 제작)	17
도면 06. 강진지역 주요유적 분포도(출처 : Daum 지형도)	24
도면 07. 강진 청자요지 분포도	38
도면 08. 강진 청자요지 군집 분포도	39
도면 09. 조사지역 원경(남-북)	45
도면 10. 조사지역 기준토층도(A-A')	48
도면 11. 조사지역 기준토층도(B-B')	49
도면 12. 조사지역 지형도(1/5,000)	63
도면 13. 조사지역 유구 배치도	64
도면 14.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평 · 단면도	67
도면 15. 가마 퇴적층 단축 토층도	75
도면 16. 가마 퇴적층 장축 토층도	76
도면 17.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X-선회절 분석 유형	178
도면 18.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X-선회절 분석 유형	179
도면 19.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태토조성 분포도	180
도면 20.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태토 염기성 성분 분포도	180
도면 21.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산화철과 산화티타늄 분포도	181
도면 22.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산화칼슘과 스트론튬 분포도	181
도면 23.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산화칼륨과 루비듐 분포도	182
도면 24.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스트론튬과 루비듐 분포도	182
도면 25.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바륨과 지르코늄 분포도	183
도면 26. 강진 용운리 63호 지표 수집품(『康津의 靑磁窯址』, p.158 발취)	188
도면 27. 강진 용운리 63호 발(좌), 시흥 방산동 발(우)	192
도면 28. 강진 용운리 63호 완(좌), 배천 원산리 완(중), 시흥 방산동 완(우)	192
도면 29. 강진 용운리 63호 화형접시(좌), 배천 원산리 화형접시(중), 시흥 방산동 화형접시(우)	193
도면 30. 강진 용운리 63호 반구병(좌), 시흥 방산동 반구병(우)	193
도면 31. 강진 용운리 63호(①), 고흥 운대리 1호(②), 해남 신덕리 D지구(③), 강진 용운리 9호(④) 발의 형태 ·	197
도면 32. 강진 용운리 9호 갑발의 통기공과 기호	200
도면 33. 강진 용인 서리 중덕 요지 퇴적층을 기준으로 한 완의 형식변화 단계	202

寫眞 目次

사진 01. 崔思全 墓誌銘(국립광주박물관 소장)	36
사진 02. 강진 용운리 청자요장 전경	40
사진 03. 강진 계율리 청자요장 전경	40
사진 04. 강진 사당리 청자요장 전경	41
사진 05. 강진 수동리 청자요장 전경	42
사진 06. 강진 삼흥리 청자요장 전경	42
사진 07. 폐기장 층위별 수습 작업	46
사진 08. 유물 세척 작업	46
사진 09. 유물 선별 작업	47
사진 10. 조사지역 기준층위 위치	47
사진 11. 조사지역 기준토층(A-A')	48
사진 12. 조사지역 기준토층(B-B')	49
사진 13. 갑발 외면 통기공과 음각기호	59
사진 14.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원경	65
사진 15.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전경	66
사진 16.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조사전(①), 조사중(②), 단축 토층(③·④)	68
사진 17.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조사중(①), 가마 벽체(②·③), 장축 토층(④)	69
사진 18.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조사완료(①), 가마 내부 출토유물(②~④)	70
사진 19.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내부 출토유물	71
사진 20.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전경	74
사진 21. 가마 퇴적층 단축 토층	75
사진 22. 가마 퇴적층 장축 토층	76
사진 23.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조사전	77
사진 24.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전경(①), I층(②)·II층(③)·IV층(④) 조사완료 후 전경 ..	78
사진 25.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출토유물	79
사진 26.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가마 퇴적층 조사전(①), 조사중(②~④), 조사완료(⑤) ..	80
사진 27.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170
사진 28.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171
사진 29.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172
사진 30.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173
사진 31.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174
사진 32.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175
사진 33. 강진 용운리 63호 구조와 상태	186

사진 34. 강진 용운리 63호 벽체 상태	187
사진 35. 강진 용운리 63호 가마 퇴적층	187
사진 36. 강진 용운리 63호 출토유물	189
사진 37. 강진 용운리 63호 갑발의 자연 유층	190
사진 38. 강진 용운리 63호 상부를 보수해 재활용한 사례	190
사진 39. 강진 용운리 63호 갑발 받침의 종류	190
사진 40. 강진 용운리 63호 원통형 도침	190
사진 41. 강진 용운리 63호 불창마개	190
사진 42.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의 유면	194
사진 43. 시흥 방산동 청자의 유면	194
사진 44.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의 내화토	194
사진 45. 시흥 방산동 청자의 내화토	194
사진 46. 강진 용운리 63호 원통형 갑발(좌), 시흥 방산동 원통형 갑발(우)	195
사진 47. 강진 용운리 63호 갑발 받침(좌), 시흥 방산동 갑발 받침(우)	195
사진 48. 강진 용운리 9호 출토 청자완 내면	197
사진 49. 강진 용운리 9호 출토 청자완 외면	197
사진 50. 장흥 풍길리 요지 출토 완편	198
사진 51. 고흥 운대리 1호 조개껍데기 받침	198
사진 52. 강진 용운리 9호 내화토 받침	198
사진 53. 용인 서리 중덕 요지(전축요)	201
사진 54. 용인 서리 중덕 요지(토축요)	201

I. 머리말



I. 머 리 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에 위치한 고려 청자요지는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사적 제68호(1963년 1월 21일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청자요지군이 밀집해 있는 중요성에 비해 자연적 재해와 경지정리, 묘역조성 등으로 지형이 많이 변형 또는 훼손되어 있으며, 조사도 지표조사 위주로 실시되어 체계적인 성격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강진군은 대구면 일대의 고려청자 가마터 가운데 사당리와 용운리 청자요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규모와 성격을 밝히고, 향후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 자원과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대구면 일대 청자요지 가운데 사당리 43호와 용운리 63호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2012-0529호)를 받아 우리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면적은 사당리 43호는 6,605㎡이며, 용운리 63호는 2,883㎡로 모두 9,488㎡이다. 조사는 2012년 6월 25일 착수하여 2012년 10월 11일까지 사당리 43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2012년 11월 13일부터 2013년 1월 27일까지 강진 용운리 63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용운리 63호에서는 청자요지 1기와 가마 퇴적층 1기가 확인되었다. 사당리 43호에서는 청자요지 1기와 탄요지 1기, 가마 퇴적층 1기, 수혈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용운리 63호의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 김기홍(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책 임 조 사 원 :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 조 사 원 : 홍진석(민족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준 조 사 원 : 이수경(민족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
 김순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
- 보 조 원 : 김진경(민족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

* ()안은 당시 직위임.

조사는 한성욱의 책임 아래 홍진석, 이수경, 김진경이 주도하였다. 유적의 측량은 홍진석, 이수경이 담당하였으며, 유적의 사진촬영과 유구실측은 이수경, 김진경이 진행하였다.

보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구와 유물 도면은 이수경 담당하였으며, 사진은 이수경과 오세윤(문화재사진연구소)이 촬영하였다. 보고서의 원고는 I · II · III · IV · VI장은 한성욱과 이수경이 담당하였으며, 특히 IV-3장 유물의 과학적 분석은 강경인(강진청자박물관)과

이은미(경주요)가 분석 검토하였다. V장 고찰은 이종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이 담당하였다. 편집은 한성욱과 이수경이 실시하였으며, 한성욱이 최종적으로 수정 가필하였다.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적과 유물의 성격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양모 선생님(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강경숙 선생님(중원문화재연구원장), 이용희 선생님(전 강진청자박물관 연구실장), 김재열 선생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구일희 선생님(국립부여박물관장), 이희관 선생님(전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방병선 선생님(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종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장남원 선생님(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진군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어르신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Ⅱ. 遺蹟의 位置와 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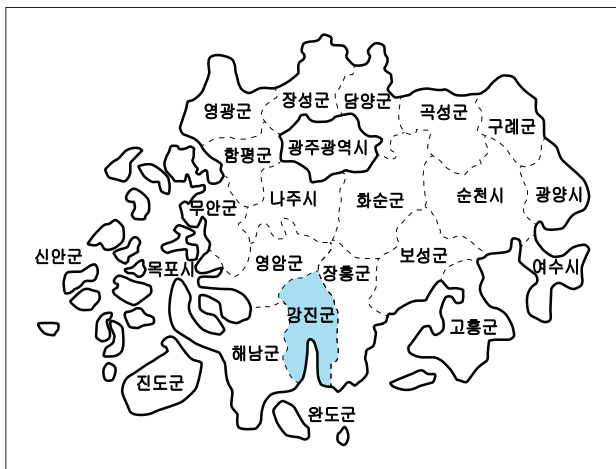
1. 自然·地理的 環境
2. 考古·歷史的 環境
3. 康津의 陶瓷史的 背景



Ⅱ. 遺蹟의 位置와 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1) 康津郡의 自然·地理的 環境



도면 01. 강진군의 지리적 위치(출처 : 한국지명유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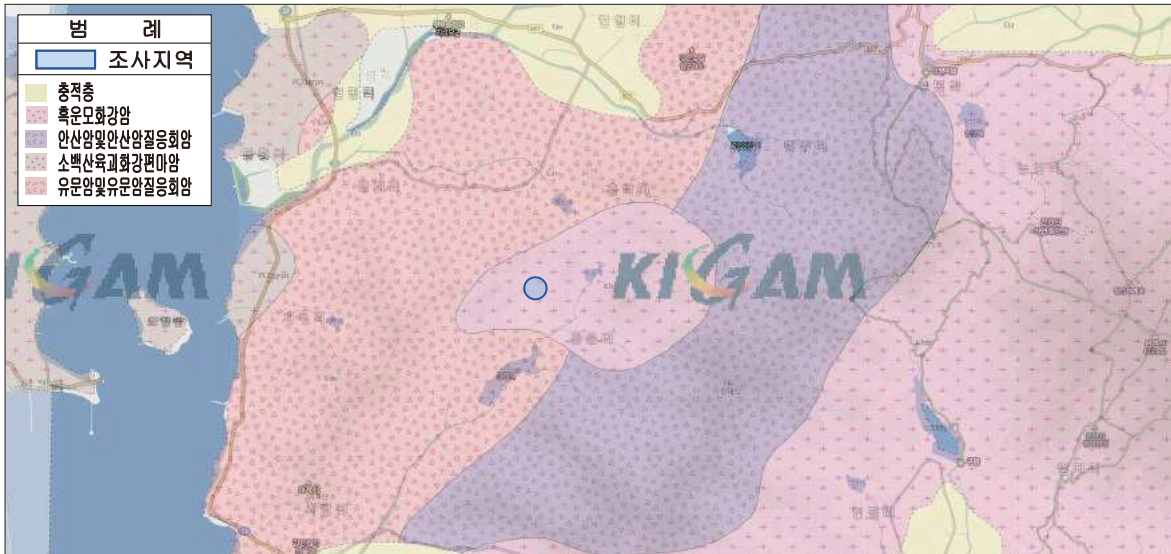
강진군은 전남지방의 남서부에 위치한 강진만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진읍을 비롯하여 10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동경 34° 32' 5" ~ 34° 47' 04" , 북위 126° 46' 23" ~ 126° 53' 15" 에 해당한다. 북쪽으로는 월출산을 경계로 영암군, 동쪽으로는 탐진강으로 연결된 장흥군, 서쪽으로는 해남군, 남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완도군과 인접하고 있다.

지형은 동서 양측과 북부의 접경부가 산악 지형을 이루며, 중앙의 道岩灣을 중심으로한 해안지대와 耽津江의 지류인 錦江연안에 분지형태의 저지대가 분포한다. 남쪽은 북쪽으로 깊이 파인 도암만으로 郡域은 남쪽으로 열린 'ㄷ'자형을 띤다. 남부 해안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바다에 잠기면서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이룬다.

주요 산지는 국사봉을 중심으로 서부지맥과 동부지맥을 나눌 수 있는데 월출산(809m)에서 시작하는 구정치(738m), 도갑산(376m), 월각산(400m), 별피산(450m), 서기산(511m), 봉덕산(272m), 덕용산(403m), 주작산(428m) 등 해남반도의 산악지맥과 봉황산(236m)에서 시작하는 수인산(561m), 성락산(274m), 화방산(402m), 부용산(609m), 양암봉(405m), 천개산(549m) 등 부용산맥이 있다. 이외에도 평야나 분지상에 독립적으로 형성된 산으로는 수암산(412m), 주봉(302m), 오봉산(378m), 비파산(400m), 보은산(439m), 신학산(147m), 만덕산(409m), 만경대(383m), 거차산(311m) 등이 있다.

강진군의 주요 하천으로는 장흥군 북부의 가지산에서 발원하여 강진읍 동남단에서 강진만으로 유입하는 탐진강과 월출산의 남쪽에서 발원하여 장흥읍 송암리와 순지리 부근 평야에서 탐진강에 합류하는 금강이 대표적이다. 이외의 소규모 하천으로는 서기산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는 석문천, 동류하는 강진천, 천태산에서 발원하여 대구면을 남서류하는 대구천, 봉태산에서 발원하여 마량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영동내 등이 있다. 그리고 부용산에서 발원하여 칠량면을 서류하는 칠량천은 하류부

근에 상당한 규모의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농경지는 넓지 않으나 비교적 대규모의 평야를 볼 수 있는 곳은 작천면 평리의 금강 연안과 성전면 명산리 부근, 탐진강 하류의 강진읍 일대, 이외에 해안 간척지 등이 있다. 간척지는 탐진강에 의한 운반된 토사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넓은 갯벌을 이루었던 강진만 복단과 석문천이 강진만으로 유입하는 도암만 일대이다. 전체 간척지 면적은 1,538ha에 이른다. 강진의 해안선 형태는 전남의 일반적인 해안선 형태와 마찬가지로 침수로 인한 溺谷이 형성되어 있거나 입구가 좁은 灣入이 여러 곳에 이루어져 있다.



도면 02. 조사지역 지질도(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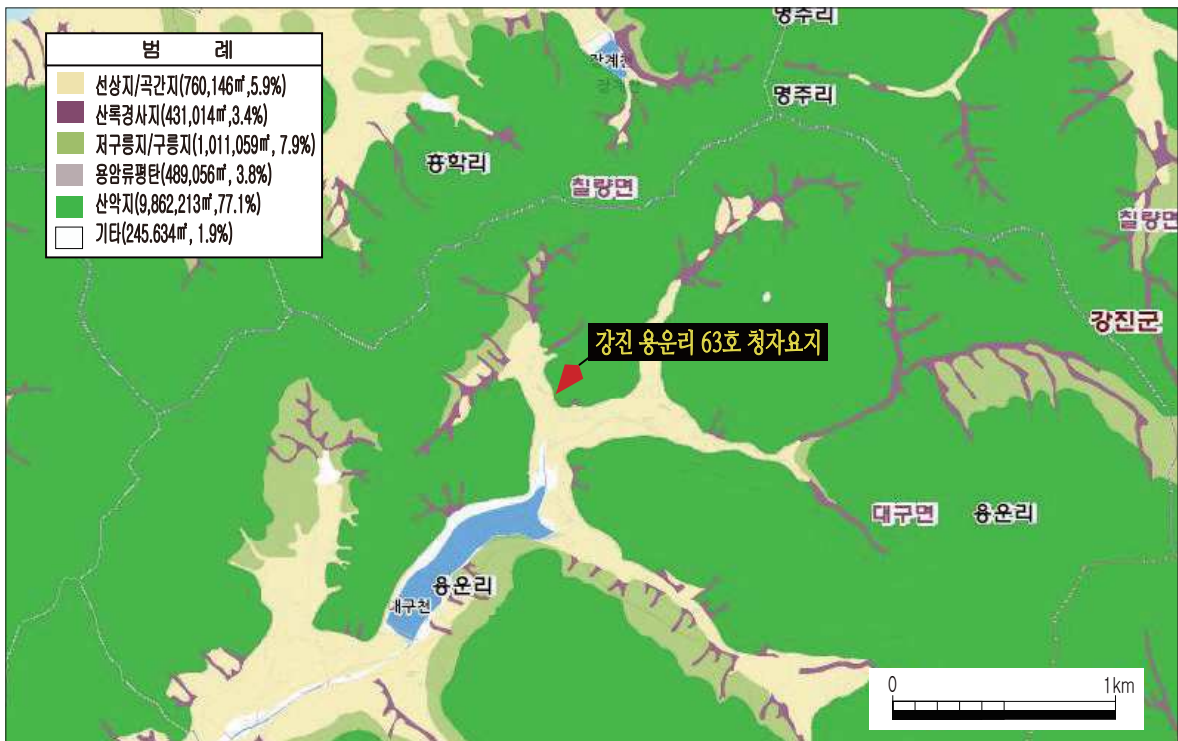
지질은 북부와 남동부는 백악기의 중성화산암과 불국사화강암, 능주층군 등 백악기 지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서부의 해남반도로 이어지는 산지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 소백산 편마암류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제4기 충적층은 탐진강을 중심으로 하천이나 지류연안에 대상으로 좁게 분포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동층군 퇴적암과 쥐라기의 대보화강암, 편마상화강암이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토양은 크게 4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질-식질의 회색토와 충적토는 탐진강을 중심으로 한 하천 연안과 칠량면 해안에 분포하고, 적황색토와 암쇄토는 도암면과 신전면 일대에 분포한다. 그리고 군동면, 병영면, 칠량면 일부와 움천면 일부에는 양질의 암쇄토와 산성갈색삼림토가 분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부 구릉과 산악지, 남동부의 대구면 일대에는 양질의 산성갈색삼림토와 암쇄토, 적황색토가 분포되어 있다.

강진군의 기후는 남해안형에 속하는데, 1월 평균 기온은 0℃ 이상이며, 연간 평균 기온은 13.6℃로 年較差는 25℃ 이하로 비교적 적다. 이는 연중 연안으로 흐르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 특성 때문이다. 연간 평균 강수량은 1,400mm이며, 겨울철 중국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이 황해를 지나는 동안 다습한 성격의 공기로 변하고, 또 이 공기가 산지에 지형적으로 수렴되어 특히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아 100mm에 달한다.¹⁾

1) 목포대학교박물관, 1989, 『강진군의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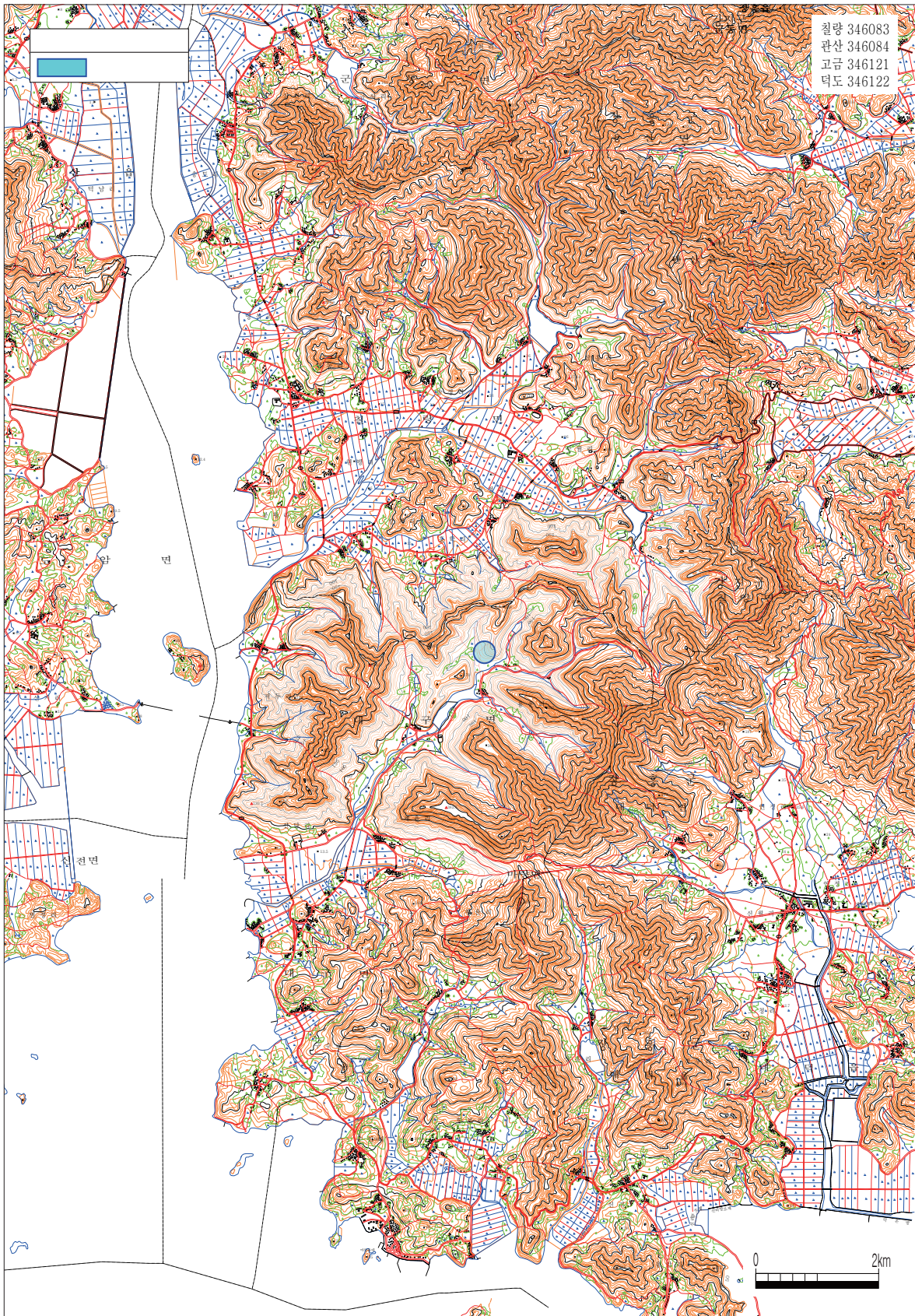
2) 遺蹟의 立地

유적이 위치한 대구면은 강진의 동남쪽에 있으며, 동으로 장흥군 관산읍·대덕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은 강진만을 사이에 두고 도암면·신전면과 해남군 옥천면이 마주하고 있으며, 남으로 마량면과 완도군 고금면이 위치하고, 북쪽은 칠량면이 인접하여 있다. 대구면의 전체 면적 가운데 4/5인 23.27km²가 해발 고도 200~500m의 산지이며, 1/5인 6.02km²가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다. 산의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짧아 급류가 흐르며, 해안선은 구불거리며 복잡한 편이다. 산간 계곡을 따라 좁은 평야가 분포하고 있으나 해안 일대에는 방조제를 쌓아 넓은 농토가 조성되어 농경지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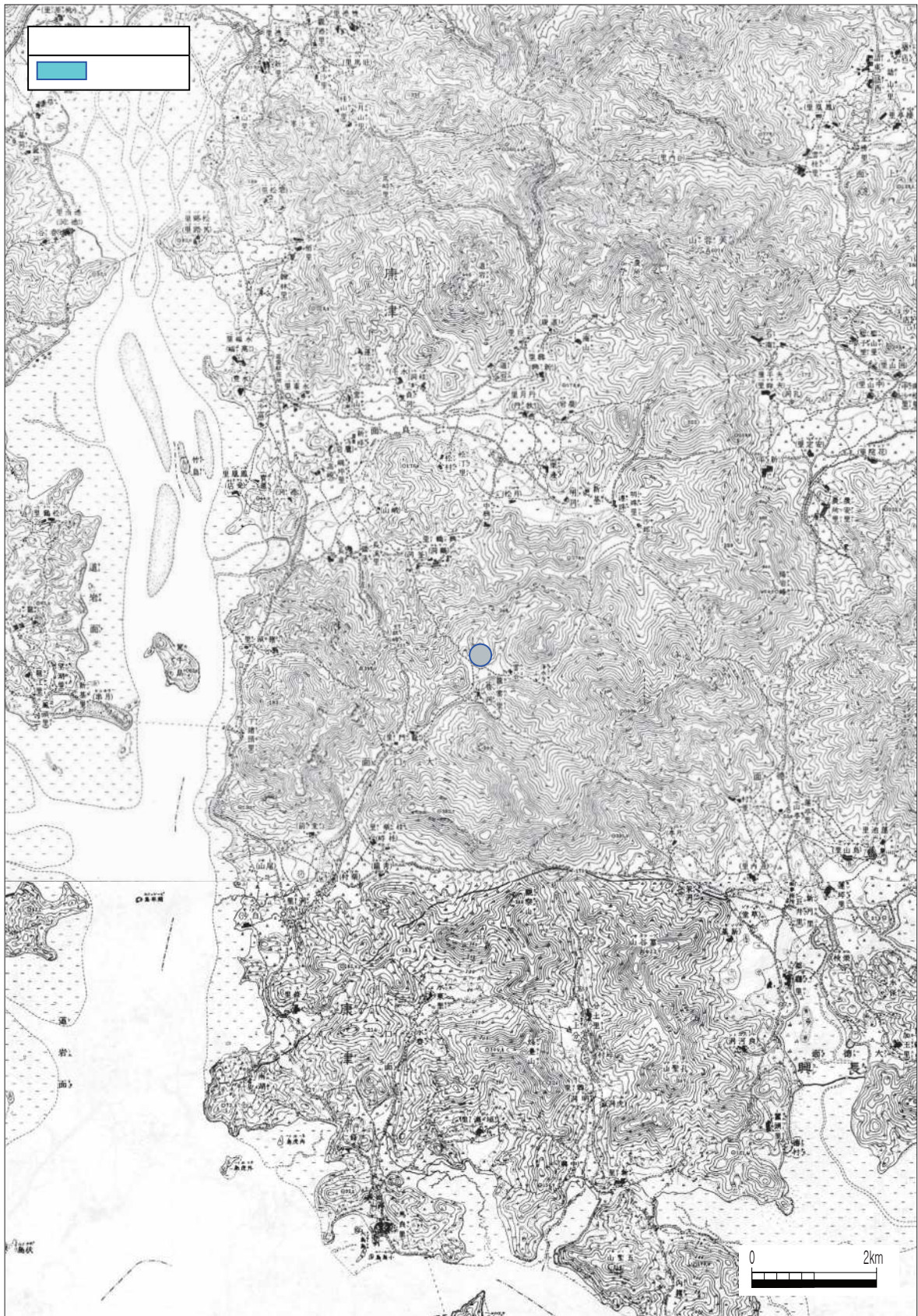


도면 03. 조사지역 토양 지형도(출처 :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대구면의 주산은 용운리에 있는 천태산(549.4m)으로 서남쪽으로 뺀 산맥은 칠량면과 경계를 이루며 해안까지 이어지며, 다른 한 산맥은 동남쪽으로 뺀 장흥군 대덕읍과 마량면의 경계를 이룬다. 한편, 천태산 명진암 골짜기에서 발원한 대구천은 관일암과 쑥쑥골, 가재골, 백사들판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와 함께 당전제로 모인 다음, 도적골과 옥채골 계류와 용문교 아래에서 만나 계치 앞을 지나게 된다. 난산마을 모퉁이에 이르면 관제산과 민동제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와 합류되어 수동과 백사, 뒷내를 거쳐 구강포로 유입된다. 그리고 1918년 작성된 지도와 현재 대구면의 지형을 비교하였을 때 해안선과 산지의 지형은 큰 차이가 없으나, 당전 저수지 축조로 유역의 폭이 감소하였으며 경작지가 상대적으로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면 04.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도면 05. 조사지역 지형도(1918년 제작)

2. 考古·歷史的 環境

1) 考古學的 背景

강진지역은 탐진강 하류역과 도암만을 끼고 있으며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곳이다. 특히, 강진지역은 고려시대 청자문화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강진지역의 고고학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주로 청자요지와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최근 국토개발과 체계적인 유적 정비 등이 진행되면서 지표 조사와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특히, 1989년과 2004년에 실시된 종합 지표조사를 통해 많은 문화유적들이 확인되었다.²⁾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남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 결과 칠량면 흥학리 중흥마을에서 굽개 1점이 수습되어³⁾ 구석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의 완도군과 신안군의 도서지역에 신석기시대 패총이 분포하고 있고,⁴⁾ 탐진강 상류인 장흥군 유치면 오복리에서 신석기 바위그늘 유적이 발견되었기⁵⁾ 때문에 탐진강 하류에 해당하는 강진지역에서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지와 지석묘 등이 분포하고 있다. 강진지역에서 청동기문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호산 유적 저습지에서 출토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 등이 있다.⁶⁾ 이러한 유물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기원전 12~10세기경에 주민들이 살았고, 그들의 주거지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강진에서 가장 일찍 알려진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적은 군동면 파산리 유적이다.⁷⁾ 파산리 유적은 나지막한 야산에 위치하며 청동기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뿔돌도끼와 민무늬토기편, 반달돌칼, 삼각돌칼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반달돌칼과 삼각돌칼은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확인되는 농경구의 하나로 영산강 유역의 선사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유물이다. 당시 주거지로는 수양리 유적에 보이는 원형의 집자리와 성전지구에서 보이는 방형의 집자리가 전부이지만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많은 주민들이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 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경에 시작하여 기원전 4~3세기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

2) 목포대학교박물관, 1989, 『강진군의 문화유적』, 남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강진군-』.

3) 남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강진군-』.

4)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완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신안군-』.

5) 최성락 외, 2004, 『장흥 오복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6) 최성락 외, 2006, 『강진 호산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7) 최몽룡, 1976, 「강진 파산리 출토의 마제석기류」, 『한국고고』 3,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려져 보고 있다.⁸⁾ 강진 수양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지식묘 20기가 확인되었다. 송국리형 주거지는 강진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타원형 구덩이와 관련된 석축과 다량으로 폐기된 무문토기의 출토양상을 통해 주거지의 폐기가 일시적으로 일어났음을 파악하였다.⁹⁾ 강진 양유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기가 남사면부에 단독으로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내부에서 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문과 구순각목문편, 단사선문구연부편, 심발형저부편, 미완성 석재편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는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어 강진지역 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¹⁰⁾ 최근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¹¹⁾

청동기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지식묘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식묘는 106개군 774기에 이른다. 강진군에 분포하는 지식묘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성전면, 움천면, 병영면 일대로 이 지역은 산에 의해 둘러 쌓인 분지로 대부분 나지막한 구릉과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은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신전면 일대로 탐진강과 접하거나 도암만의 서쪽에 분포하는데 대부분 산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그리고 칠량면, 대구면 일대는 도암만의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967년 가장 먼저 발굴조사된 강진 지식리 지식묘는 1기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식리 지식묘 10여기 가운데 하부가 드러난 것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지식묘는 하부에 석관형의 석실을 둔 기반식인데, 동남단에 위치한 1기는 상석이 이미 크게 훼손되었으나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된 지식묘의 특징은 장벽에 크고 작은 2매의 석재를 배열하고 있으며, 단벽석이 장벽석의 양단 밖으로 나와 세워져있는 점 등이다. 판상석을 이용한 석관형 석실이지만 탁자식 지식묘의 변형으로 추정된다.¹²⁾ 영복리 지식묘는 12기가 조사되었는데, 대형 지식묘를 중심으로 3열을 이루고 있다. 석실의 구조는 크게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할석으로 3~4단의 벽석을 쌓고 바닥에 잔자갈을 전면에만 깔 석곽형 석실로 이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상석 아래에 할석 14개를 방형으로 돌려놓고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위석식이 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편과 적색마연토기편, 흑색마연토기편, 마제석축, 석착, 편인석부, 지식, 유구석부, 갈판, 토제 방추차, 토제 어망추 등이 있다.¹³⁾ 강진 수양리 유적에서는 20기의 지식묘가 조사되었다. 전체 양상은 산 능선을 따라 동·서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 군집은 일렬을 이루며 매우 정연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쪽은 정연성이 흐트러지며 동쪽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분포상으로 보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축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하부구조는 석곽형과 석관형, 위석형이 확인되고 있

8) 이종철, 2008,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탐진강유역의 고고학』, 호남고고학회.

9) 최성락 외, 2007, 『강진 수양리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10) 정일 외, 2010, 『강진 양유동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11) 해동문화재연구원, 2013,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12) 김재원·윤무병, 1967, 「장신리·지식리 유적」, 『한국 지식묘 연구』, 국립박물관.

13) 국립광주박물관, 1983, 『강진 영복리 지식묘 발굴조사 보고서』.

으며 매장 위치가 2호와 8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상식에 속한다. 석관형인 8호는 석곽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석축과 석도편, 무문토기편, 두형토기, 방추차, 지석, 유구석부, 석제품 등이 있다.¹⁴⁾

호산 유적은 구상유구에서 청동기 전기 후반의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과 무문토기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¹⁵⁾ 한편, 청동기류는 1940년경 병영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잔무늬거울편과¹⁶⁾ 1982년 작천면 야흥리 부흥마을에서 출토된 銅鏃가 알려져 있다.¹⁷⁾ 이와 비슷한 시기의 유적은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 유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청동기가 출토된 유구는 적석목관묘이거나 고인돌인 경우가 있으나 유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동기의 거푸집이 영암군 구림리 부근에서 발견되어 청동기가 이 지역에서 직접 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¹⁸⁾

철기시대와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패총과 저습지, 주거지, 고분 등이 있으며, 기원전 2세기경에 철기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패총은 성전면 금당 패총과 신전면 논정 패총 등 2개소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성전면 환경산업단지 발굴조사에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일부 확인되었다.¹⁹⁾ 월하리 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수혈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심발형토기와 호편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삼국시대 백탄요도 확인되었다.²⁰⁾ 양유동 유적은 삼국시대 주거지 14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화재로 폐기된 상태였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모두 방형계이며, 규모는 3~4m 내외로 소형에 해당한다. 내부시설은 주공과 부뚜막, 벽구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연결계통의 주구토기와 발, 호, 장란형토기, 시루, 방추차 등이 있고, 탄화 곡물(콩, 팥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²¹⁾ 호산 유적은 저습지로 말목열이 확인되었으며, 이중구연의 심발형토기와 삼국시대 호형토기, 반월형석도와 석축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으며, 복숭아와 살구, 때죽나무 씨앗 등이 확인되어 주변 식생을 일부 추측할 수 있었다.²²⁾ 최근 조사된 영동리 운산 유물산포지에서는 3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주거지 82기와 수혈 3기, 구상유구 5기 등 모두 9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호형과 장란형, 완형, 발형, 시루, 주구 등 일상 용기에 사용된 토기가 대부분이다. 영동리 운산 유적은 도암만 맞은편에 위치한 강진 양유동 유적과 함께 탐진강 하류지역의 고대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²³⁾

고분은 모두 10개소가 확인되었으나,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된 고분은 강진 수양리 고분이 유일하다. 수양리 고분은 성전면 수양리 수암마을 수암산의

14) 최성락 외, 2007, 『강진 수양리 유적』, 전남문화재단연구원.

15) 최성락 외, 2006, 『강진 호산 유적』, 전남문화재단연구원.

16) 梅原末治, 1943, 「多紐細文鏡の新出土鱗-全羅南道靈岩發見の破片-」, 『人類學雜誌』 58-9. 강진 병영을 영암 병영으로 오기하고 있다.

17) 국립광주박물관, 2012, 『남도문화전』Ⅲ-강진-.

18) 최성락, 2013, 「강진 고대문화의 고고학적 검토」, 『강진의 고대문화와 월남사지』, 한국고대학회·민족문화유산연구원.

19) 해동문화재단연구원, 2013,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 호남문화재단연구원, 2009, 『강진 월하리 유적』.

21) 정일·전명훈, 2010, 『강진 양유동 유적』, 전남문화재단연구원.

22) 최성락 외, 2006, 『강진 호산 유적』, 전남문화재단연구원.

23)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4, 『강진 영동리 운산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사면부인 해발 81~95m에 위치한다. 유적 전면에 평야가 펼쳐져 있고,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1기, 지석묘 20기, 삼국시대 석실분 3기, 석곽분 13기 등이 확인되었다. 고분은 동서로 뻗어 있는 사면에 크게 2개의 군집으로 분포한다. 한 곳은 서쪽에 위치하며, 모두 8기의 석곽분이 분포하고 다른 하나는 80m 떨어져 석실분과 석곽분이 동일 공간 내에 분포한다.²⁴⁾

최근 강진읍 영파리에서 전방후원형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확인되었다. 고분은 서기산(매봉 해발 405m)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해발 50m 내외의 곡간지에 위치한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전방후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방형부를 동쪽에 두고 원형부를 서쪽에 두고 있다. 고분의 규모는 잔존 전체 길이 67m 정도이며, 원형부 직경은 38m, 원형부 높이는 7m 정도이다. 방형부는 유실이 심하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규모는 연결부 너비 20m, 방형부 길이 27m이다. 고분의 정상부는 방형부와 원형부에서 2~5m의 평탄면을 형성하고 있다. 원형부의 중앙은 일부 함몰되어 있다. 원형부 북쪽은 유실이 비교적 심하고, 석재가 다량 노출되어 있다. 고분의 분구 가장자리에는 소형 할석들이 관찰된다. 유물은 돌대가 돌아가는 회청색경질토기편 1점이 확인되었다.²⁵⁾

통일신라시대 이후 유적으로는 가마터와 절터 유적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강진군은 고려 청자 요지(사적 제68호)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탐진현 내의 大口所와 七良所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다. 1973년과 1974년, 1977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당리 41호 청자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양각청자부터 상형청자까지 12세기 전성기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용운리 가마는 1980년~1982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9호와 10호가 발굴조사되었다. 기본적으로 토축요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잔존상태가 양호한 10-1호는 봉통부와 가마벽, 불창 구멍이 남아 있다. 출토유물은 10세기 후반과 12세기에 제작된 음·양각청자를 비롯한 상감청자 등이 출토되었다.²⁶⁾ 이후 칠량면 삼흥리 요지가 조사되었는데, 조사결과 청자 가마 5기와 도기 가마 9기가 확인되었다. 청자 가마는 아궁이와 번조실, 굴뚝부가 확인되었으며, 구릉 경사면에 가마를 구축한 반지하식의 단실요이다. 아궁이 아래쪽은 돌로, 위쪽은 흙으로 구조를 만들었으며, 번조실과의 경계면에 얇은 불턱이 있다. 출토유물로 보아 11~12세기 무렵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⁷⁾

월평리 유적은 통일신라 탄요 1기와 기와 가마 1기, 소성유구 1기, 수혈 1기, 조선시대 민묘 1기가 조사되었다. 탄요는 반지하식이며, 내부구조는 연소실과 소성실, 연도부가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소성실 안쪽이 넓고 연소부로 내려오면서 점차 축약된 형태인 팔각역삼각형이며, 연소실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연도부는 소성부의 중앙에 위치하며, 원형으로 주변에 돌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할석을 이용하여 쌓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기와 가마는 연소실과 번조실, 연도부가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연소실은 경사도로 인해 번조실과 구분할 수 있으며, 돌

24) 최성락 외, 2007, 『강진 수양리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5)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문화재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6) 정양모·구일희, 1996·1997, 『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7) 국립광주박물관,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II.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I.

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통일신라 평기와가 확인되었다.²⁸⁾ 현산리에서는 고려시대 기와 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반지하식 등요로 요전부의 경우 남서 모서리쪽은 출입시설로 판단되는 계단이 확인되었다. 번조실 바닥에는 기와를 쌓기 위해 깔아 놓은 6줄의 기와열이 확인되었으며, 최소 2번 이상의 조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유물은 복엽 연화문 수막새와 평기와 등이 확인되었다.²⁹⁾

월하리 유적은 도기 가마 1기와 옹기 가마 1기, 백자 가마 1기, 숯가마 1기, 기와 가마 1기, 옹기 공방지 6기, 백자 공방지 12기, 유물 퇴적층 2기, 수혈 4기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백자요지는 단실 불기둥 계단식의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마와 함께 조사된 백자 공방지 12기가 확인되었는데, 수비공과 건조장, 연토장 등이 정연하게 노출되어 조선 중기 자기 공방의 공간 배치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옹기 요지에서도 공방지 6기와 퇴적층 2기, 수혈 4기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공방지 내부에서 2기의 물레 거치공과 점토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어 조선 중기 옹기 제작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출토유물은 발과 대접, 접시를 중심으로 소호와 병, 대발, 명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으며, 굽은 오목굽과 다리굽으로 구분된다.³⁰⁾ 월남리 유적은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구상유기 1기, 주공 49기, 지진구 9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기와와 자기 파편, 주름무늬병, 편병, 호 등이 출토되었다.³¹⁾

양유동 유적은 조선시대 기와 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가마의 평면 형태는 일자형으로 연소실 하단부를 지하에 축조한 다음 연도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반지하식 등요이다. 연소부 바닥에는 판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배수시설을 만들었으며, 요전부는 물을 모아 인위적으로 퍼낼 수 있는 집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집수시설은 요전부 남쪽 중앙부의 배수로와 연결되어 물을 배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배수로 입구에는 기와를 4~5매 정도 뒤집어 깔아 놓았다. 출토유물은 미구기와와 암키와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문양은 집선문과 집선문+격자문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조선 후기에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³²⁾ 그러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185년이 나왔으며, 대부분 어골문 계열로 고려시대 가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성전면 환경산업단지 발굴조사에서 기와 가마 1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긴 삼각형으로 요전부와 연소실만 잔존하고 있다.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벽체편 등이 확인되었다.³³⁾

불교유적은 사찰과 사지, 석탑, 석비 등이 있다. 사찰은 무위사와 백련사를 비롯하여 14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월남사지는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즉, 삼국시대 백제 와당을 비롯하여 통일신라 기와편과 도기편 등이 확인되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해서 법당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유

28) 김경철 외, 2005, 「강진 월평리 유물산포지」, 『목포-광양(목포-장흥)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조사보고』 I, 전남문화재연구원.

29) 박미라, 2006, 『강진 현산리 가마』, 남도문화재연구원.

30)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강진 월하리 유적』.

31) 이범기 외, 2010, 「강진 월남리 유적」, 『장성 월산리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32) 정일·전명훈 2010, 『강진 양유동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33) 해동문화재연구원, 2013,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물은 금동풍탁과 차맷돌을 비롯하여, 백제~고려시대 막새와 평기와류, 다양한 청자류가 확인되었다.³⁴⁾ 용혈암지는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2동과 석렬 3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조선시대 평기와, 도자기를 중심으로 고려청자가 소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용혈 내부에서는 청자불상편이 다량 확인되었다.³⁵⁾

관방유적은 읍성지 1곳과³⁶⁾ 영진성지 2곳, 산성지 4곳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라병영성은 정밀 지표조사와³⁷⁾ 년차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³⁸⁾ 조사결과 건물지와 方池, 담장지, 배수로, 우물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건물지들은 담장과 배치된 양상으로 볼 때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조사지역 남측에는 대형 건물지와 방지가 위치하는데 문헌 기록과 유구의 양상으로 볼 때 객사 영역으로 추정된다. 객사 추정지는 북측에 밀집되어 있으며, 동측에는 넓은 마당이 형성되어 있고, 서측에는 방지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유구의 양상과 문헌 기록을 볼 때 동헌과 내아 영역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 북서측에는 방지와 건물지 3개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문헌 기록에 남아 있는 연희당 영역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헌과 내아 추정지역의 동측에서도 건물지의 흔적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34)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4, 『강진 월남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

35)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강진 도암면 석문리 용혈암지 정밀 지표·시굴조사 약보고서』.

36) 최성락·고용규·이미란, 2004, 『강진 읍성』, 목포대학교박물관.

37) 목포대학교박물관, 1991, 『강진 병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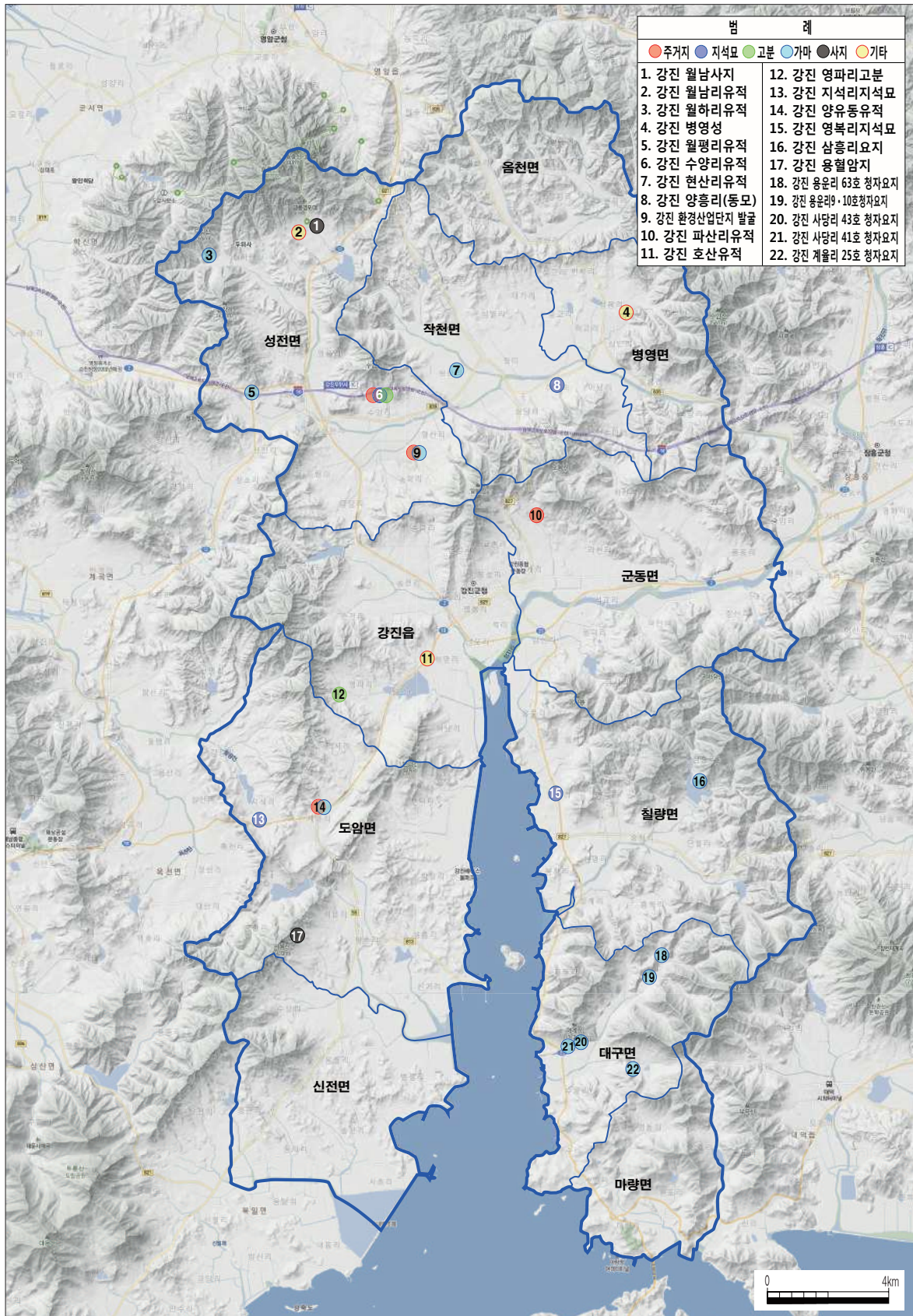
38) 마한문화연구원, 2011, 『강진 전라병영성지』.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5, 『강진 전라병영성지』.

한울문화재단연구원 2012, 『강진 전라병영성지 내부 북측지역 1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울문화재단연구원 2013, 『강진 전라병영성 내부 북측지역 2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울문화재단연구원 2013, 『강진 전라병영성 내부 3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도면 06. 강진지역 주요유적 분포도(출처 : Daum 지형도)

2) 歴史的 背景

역사시대에 들어서면 강진군은 기원후 5세기 후반까지는 마한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소국이 강진지역에 자리하였는지, 또 그 위치는 불명확하나, 古奚國과 黠離卑國, 拘奚國으로 보는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강진군의 지명과 연혁이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三國史記』地理志 百濟條에 기록된 도무군을 들 수 있다. 도무군은 4개 현을 다스리는 치소로서 현재 강진읍 북부와 성전·작천·병영면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이외에 강진에 있었던 도무군의 속현은 동음현으로 강진읍 남부와 도암·칠량·대구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⁹⁾ 이들 군현들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의 행정개편으로 도무군은 양무군으로 동음현은 탐진군으로 바뀌었다. 진성여왕 6년(832) 甄萱이 光州를 중심으로 전남지방에 後百濟를 건국하면서 그 세력권에 편입되었으며 고려가 건국되면서 새로운 행정변화를 겪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양 무군을 태조 23년(940)에 도강군으로 개칭하였고, 조선시대에는 道康縣과 耽津縣을 태종 17년(1417)에 병합하여 강진현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도강현과 탐진현이 각각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었으며,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는 탐진현 내에 있었다.

고려 초기 강진지역의 행정변화는 940년(태조 23) 신라통일기에 大郡이었던 陽武郡이 道康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속현이었던 耽津縣을 인접한 靈岩郡에 넘겨주고, 이후 1018년(현종 9) 道康郡이 속현이던 黃原·海南(浸溟)·竹山(固安)縣과 함께 영암군의 속현으로 포함되면서 독립된 행정영역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1124년(인종 2) 영암의 속현이던 定安縣이 長興府로 승격되면서 영암에 속해 있던 耽津縣이 장흥부로 移屬된다. 이 변화를 보면 고려 이전까지 영암·해남·강진을 아우르는 大郡이었던 강진지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1018년 독립 행정영역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건국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영암 세력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전남지역의 경우 羅州와 靈岩, 靈光 등이 성장하고 있어 이들에 의해 전남지역의 행정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현재의 영암과 강진, 해남, 장흥 등을 묶는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호남 서남부의 행정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고려초 대대적인 행정개편은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전남지역의 토착 세력을 아우르고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중심지로 나주·영암·영광 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특히 영암은 고려 전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耽津縣과 黃原郡(현 海南郡 山二面과 花源面)을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 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비된 행정체계는 조직적인 편제는 아니었다. 많은 郡縣들이 領屬關係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강진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지방관제는 중앙정부의 힘이 말단 군현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監務를 파견하여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감무란 縣丞을 파견할 수 없는 작은 縣의 감독관과 같은 것으로 道康縣은 1172년(명종 2) 主縣으로

39) 김정호, 1988,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40) 이해준, 1989, 「강진군의 연혁」, 『강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승격되면서 감무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大口所가 있던 탐진현은 감무가 파견되지 않고 靈巖과 長興의 속현으로 관리되었다. 한편 강진 지역에는 이들 道康縣과 耽津縣 외에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를 비롯하여 다양한 鄉·所·部曲이 존재하였으며,⁴¹⁾ 조선 太宗 9년(1409) 혁파될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조선 태종 17년(1417년) 도강현의 일부인 현 병영면 지역에 전라도 병영(병마도 절제사의 영)을 신설함과 동시에 도강현 일부와 탐진현을 합하여 이곳을 강진현이라 명명하였으며, 그 치소를 도강의 치소이던 송계로 옮겼으나 성종 6년(1475년) 다시 탐진의 치소(현 강진읍)로 복귀하였다. 1896년 지방제도 개혁에 따라 강진군으로 개칭하였으며, 성전면의 경우 1914년 북부의 安住面과 남부의 古邑面을 병합하여 만들었는데 동시에 월풍리를 송월리와 월평리로 분리하여 11개리로 정하고 면사무소를 월평리에 설치하였다.

강진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일찍부터 해로가 발달하였다. 해로의 발달은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의미는 컸으며 서남해를 통과하는 해로는 국제문화의 交易路로서도 매우 주목되었다. 이는 耽津의 지명이 耽羅(현 濟州)와의 해상 교류 때문에 생긴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해로를 통한 문화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이른 시기는 고려시대였으며 강진지역의 문화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로의 발달은 강진의 청자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해상교통의 발달은 강진지역 문화 발달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었으나 麗末鮮初에 이르면 왜구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결국 강진 도자문화의 쇠퇴를 가져온다. 즉 이 시기의 왜구침입은 전라도의 해안과 도서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長興과 珍島 등의 治所가 내륙으로 이동하며, 해안으로부터 50리 이내에는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였다.

그리고 통일 신라시대 無爲寺와 月南寺, 白蓮寺 등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佛敎文化 역시 강진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王建의 스승으로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迥微의 住錫處가 無爲寺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渡唐遊學僧 출신인 형미는 迦智山門 體澄의 문하로 왕건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승려이다. 형미는 무위사에 常住하면서 서남해 지역 호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왕건은 그의 法弟子가 되어 그의 지원을 이끌었으며 그의 도움으로 榮山江 세력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었다. 泰封의 弓裔는 왕건을 견제하기 위해 迥微를 사형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호족세력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였다.⁴²⁾ 또한 고려후기 역시 무신정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白蓮結社의 중심 도량인 白蓮社와 修禪結社의 핵심적 사찰이었던 月南寺가 강진 지역에 위치하여 새로운 신앙결사 운동을 이끌고 있음도 이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찰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토호세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41)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42) 강봉룡, 2002, 「나말여초 서남해지방의 해양세력과 왕건·건원」, 『장보고와 동아시아 세계』, 고려대학교박물관, p.44~46.

조사지역이 위치한 大口面은 1753년(조선361년) 완도군 고금면와 통합하여 강진현 대구면이 되었으나 1908년 고금면을 완도군으로 이양하였다. 이후 1914년 초면과 후면을 통합하여 다시 대구면이 되었으며, 1989년 마량면이 생기면서 마량리와 영동리, 원포리, 상흥리, 수인리는 마량면에 이양하고 수동리와 사당리, 용운리, 계율리, 저두리, 구수리 등 6개리 법정리와 14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다.⁴³⁾ 대구면의 경계는 북쪽은 칠량면, 동쪽은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 남쪽은 마량면, 서쪽은 도암면 건너의 도암면과 해남군 옥천면에 면한다. 대부분 해발 고도 200~500m의 산지이고 해안선은 구불거리며 복잡하고 곳곳에 작은 어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 경치를 지니고 있다. 산간계곡을 따라 좁은 평야가 분포하고 있으나 해안 일대에는 방조제를 쌓아 넓은 농토가 조성되어 있다. 해안에는 해조류와 어패류의 수확이 많다. 고려청자의 중심지인 고려청자요지(사적 제68호)가 분포하고 있으며, 沙堂里에 천연기념물 제35호 푸조나무가 있다.

가마가 위치한 龍雲里는 용문과 향동의 2개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63호 가마터는 巷洞마을에 있다. 향동마을은 巷洞과 雲谷을 통합하여 형성된 마을로 2백여년 전에 達成 徐氏가 터를 잡았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들 달성 서씨는 고려시대부터 이곳에 정착하였음이 여러 기록들과 유물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⁴⁴⁾ 이곳은 여러 계곡의 물줄기가 마을 앞에서 합쳐져 한 골로 흐른다고 하여 ‘한골’로 부르다가 해방 후부터 ‘巷洞’으로 개칭하였다. 1985년 당전 저수지를 축조하기 이전에는 골짜기를 따라 도로가 있었으나 저수지를 개설하면서 산중턱을 깎아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다. 마을 주위에 많은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어 고려시대에 큰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려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淨水寺가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뚜렷한 기록과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동마을에서 확인되는 청자 가마터는 대부분 청자 발생 초기의 해무리굽 청자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곳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다음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康津의 陶瓷史的 背景

1) 고려시대 강진의 역사적 배경

강진은 조선 태종대(1400~1418년) 道康縣과 耽津縣이 통합되면서 등장한 명칭이다. 따라서 고려 시대는 도강현과 탐진현이 각각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었으며,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는 탐진현 내에 있었다. 강진지역은 832년(신라 진성여왕 6) 甄萱이 光州를 중심으로 전남지방에 後百濟를 건국하면서 그 세력권에 편입되었으며 고려가 건국되면서 새로운 행정변화를 겪게 된다.

43) 강진문화원, 2004, 『강진 사당리 청자마을 조사 보고서』.

44)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姓氏條: 耽津 崔曹俞安鄭河, 康朴 모두 來姓이다. 大口 徐, 七陽 白.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耽津姓六, 崔·曹·俞·安·鄭·河; 來接姓二, 康[幸州來]·朴[靈岩來] … 大口所續姓一, 徐, 七良所續姓一, 白.

이희관, 2000, 「고려청자사상의 강진요와 부안요」,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명문·부호특별전-』,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고려 초기 강진지역의 행정변화는 940년(태조 23) 신라통일기에 大郡이었던 陽武郡이 道康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속현이었던 耽津縣을 인접한 靈岩郡에 넘겨주고, 이후 1018년(현종 9) 道康郡이 속현이던 黃原·海南(浸溟)·竹山(固安)縣과 함께 영암군의 속현으로 포함되면서 독립된 행정영역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1124년(인종 2) 영암의 속현이던 定安縣이 長興府로 승격되면서 영암에 속해 있던 耽津縣이 장흥부로 移屬된다. 이 변화를 보면 고려 이전까지 영암·해남·강진을 아우르는 大郡이었던 강진지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1018년 독립 행정영역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건국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영암 세력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전남지역의 경우 羅州와 靈岩, 靈光 등이 성장하고 있어 이들에 의해 전남지역의 행정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현재의 영암과 강진, 해남, 장흥 등을 묶는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호남 서남부의 행정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고려초 대대적인 행정개편은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전남지역의 토착 세력을 아우르고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중심지로 나주·영암·영광 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⁴⁵⁾ 특히 영암은 고려 전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耽津縣과 黃原郡(현 海南郡 山二面과 花源面)을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 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비된 행정체계는 조직적인 편제는 아니었다. 많은 郡縣들이 領屬關係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강진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지방관제는 중앙정부의 힘이 말단 군현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監務를 파견하여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감무란 縣丞을 파견할 수 없는 작은 縣의 감독관과 같은 것으로 道康縣은 1172년(명종 2) 主縣으로 승격되면서 감무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大口所가 있던 탐진현은 감무가 파견되지 않고 靈巖과 長興의 속현으로 관리되었다. 한편 강진 지역에는 이들 道康縣과 耽津縣 외에 청자를 생산하였던 大口所와 七良所를 비롯하여 다양한 鄉·所·部曲이 존재하였으며,⁴⁶⁾ 조선 太宗 9년(1409) 혁파될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강진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일찍부터 해로가 발달하였다. 해로의 발달은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의미는 컸으며 서남해를 통과하는 해로는 국제문화의 交易路로서도 매우 주목되었다. 이는 耽津의 지명이 耽羅(현 濟州)와의 해상 교류 때문에 생긴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해로를 통한 문화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이른 시기는 고려시대였으며 강진지역의 문화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로의 발달은 강진의 청자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해상교통의 발달은 강진지역 문화 발달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었으나 麗末鮮初에 이르면 왜구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결국 강진 도자문화의 쇠퇴를 가져온다. 즉 이 시기의 왜구침입은 전라도의 해안과 도서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長興과 珍島 등의 治所가 내륙으로 이동하며, 해안으로부터 50리 이내에는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였다.

45) 이혜준, 1989, 「강진군의 연혁」, 『강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46)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그리고 통일 신라시대 無爲寺와 月南寺, 白蓮寺 등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佛敎文化 역시 강진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王建의 스승으로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迥微의 住錫處가 無爲寺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渡唐遊學僧 출신인 형미는 迦智山門 體澄의 문하로 왕건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승려이다. 형미는 무위사에 常住하면서 서남해 지역 호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왕건은 그의 法弟子가 되어 그의 지원을 이끌었으며 그의 도움으로 榮山江 세력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었다. 泰封의 弓裔는 왕건을 견제하기 위해 迥微를 사형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호족세력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였다.⁴⁷⁾ 또한 고려 후기 역시 무신정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白蓮結社의 중심 도량인 白蓮社와 修禪結社의 핵심적 사찰이었던 月南寺가 강진 지역에 위치하여 새로운 신앙결사 운동을 이끌고 있음도 이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찰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토호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진 청자의 생산체제

고려는 재정확보와 각종 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정 鑛産物과 農水産物, 手工業品을 생산하는 다양한 “所”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專業的으로 생산한 물품을 常貢과 함께 중앙各司가 요구하는 別貢을 통해 貢納하면서 국가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다.⁴⁸⁾ 이들 所는 新羅의 麗金成·濯錦成·寶劍成 등 수공업품 제작의 “成” 제도를 계승하여 太祖 23년(940) 무렵 성립되었으며 成宗代(981~997년)에 실시된 지방제도의 완비로 정비되었다.⁴⁹⁾ 신라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음은 전문적으로 도기를 만들었던 지역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⁵⁰⁾ 所는 국가의 지배를 받으며 各所의 所司 主管下에 운영되었다.⁵¹⁾ 그러나 所는 外官이 파견되지 않아 所가 위치한 主縣에 의해 관리 감독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주현 등에 의한 이중적 수탈관계에 놓여 있었다. 즉 국가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실제 州府郡縣에서 관리하는 특수지역으로 필요한 물품을 중앙의 각 기관에서 직접 수취할 수 있는 구조였다.⁵²⁾ 所內에는 所民을 관리하는 土姓吏인 所吏와 工匠, 役戶들이 있는데 특히 役戶들이 工匠들보다 심한 노동력 수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³⁾ 또한 신분적으로도 工匠案을 작

47) 강봉룡, 2002, 「나팔여초 서남해지방의 해양세력과 왕건·건원」, 『장보고와 동아시아 세계』, 고려대학교박물관, p.44~46.

48) 김현영, 1986,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론』 15, 서울대학교국사학과, p.117.

49) 홍희유, 1989,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p.121~122.

50) 김원룡·이종선, 1977, 「사당동 신라도기요지 조사약보」, 『문화재』 11, 문화재관리국.(서울 사당동 도기요지(사적 제247호)에서 출토된 ‘○○縣器村 何支爲○○’銘陶器를 통해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器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1) 이희관, 2005, 「고려시대의 자기소와 그 전개」, 『사학연구』 77, 한국사학회.
『高麗史』 84卷, 志 38, 刑法 1, 公式, 職制 忠烈王 22年(1296) 5月條: 中贊洪子藩條上便民事… 一諸州縣及鄉所部曲人吏無一戶者多矣 外吏依勢避役者悉令歸鄉丁吏亦令減數歸還.
‘辛丑五月十日造 爲大口前戶正徐敢夫 淸沙硯壺雙黃河寺’銘靑磁象嵌菊牡丹文벼루(삼성미술관 소장, 보물 제1382호)

52) 전병무, 1992, 「고려시대 은유통과 銀所」,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p.98.

53) 서명희, 1990, 「고려시대 「鐵所」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69, 한국사연구회.

성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었다.⁵⁴⁾ 所民은 貢納의 대상으로 租稅와 徭役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武臣亂 이후 所制度가 붕괴되고 對蒙抗爭으로 所民의 신분이 점차 양인화되면서 貢納 대상의 특성이 상실되어 徭役의 대상이 되었다.⁵⁵⁾ 또한 所民에 대한 국가의 차별대우 즉, 가중한 貢物 부담과 신분적 제약은 睿宗 3년(1108)의 기록과⁵⁶⁾ 利旨銀所의 昇降,⁵⁷⁾ 明宗 6년(1176) 公州 鳴鶴所의 亡伊·亡所伊의 亂을⁵⁸⁾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大口所는 행정영역이 靈巖郡에서 長興府로 바뀌며 全盛期 翡色靑瓷을 생산하던 시기로 製瓷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12세기 이후 所民들에 대한 과중한 貢役 부담과 권력층의 所地域 占奪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貢物을 전담하던 所制度가 붕괴되고,⁵⁹⁾ 對蒙抗爭(1231~1273년) 이후 元의 일본 침공준비와 과다한 공물 요구로 貢役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所民의 流離를 재촉하였다.⁶⁰⁾ 所民의 流亡은 瓷器所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는 도자 생산의 확산을 가져왔지만 반대로 소규모 집단에 의한 분업화, 전문화되지 못한 도자생산과 직결되어 질적 하락을 재촉하였다.⁶¹⁾ 그러나 窯場 확산이 대량생산으로 연결되어 수요층의 폭 넓은 확대를 가져와 도자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충정왕 2년(1350)부터 시작된 왜구의 본격적 침입은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곡창의 중심지인 남해 연안의 전라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왜구의 잦은 침략은 남해안에 위치한 大口所에도 큰 타격을 주어 도자 생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匠人의 流離를 더욱 재촉하여 대구소 생산 청자의 품질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왕실용 청자인 ‘正陵’銘靑瓷의 질적 하락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⁶²⁾

對蒙抗爭期 大口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의 巨刹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던 白蓮社의 靜明國師 天因(1205~1248년)이 高宗 34년(1247) 몽고난을 피해 莞島 法華社로 옮겨가고 있어⁶³⁾ 몽고의 6차 침입 시에는 이 지역 도자생산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진도와 제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三別抄의 對蒙抗爭도 도자 생산에 어려움을 주었다. 즉, 삼별초는 稅收 확보를 위해 元宗 13년(1272) 5월 大口所가 소재한 耽津縣을 공격하는 것

54) 『高麗史』 75卷, 志 29, 選舉 3, 銓注, 限職, 文宗 27年(1073) 正月條: 有司奏 按令典 工商家 執技事上 專其業 不得入仕與土齒 … 皆工人嫡孫 自慕九流 去其所業 已登朝行 不可復充工匠乞 各限時職 不許遷除.

『高麗史』 75卷, 志 29, 選舉 3, 銓注, 限職, 辛禍 5年(1380) 正月條: 諫官言 工匠之徒 雖或有勞 勿許授職 其已授者 追奪職牒.

55) 이정희, 1984, 「고려시대 요역의 운영과 그 실태」, 『부대사학』 8, 부산대학교사학회, p.54.

56) 『高麗史』 78卷, 志 32, 食貨 1, 田制, 貢賦, 睿宗 3年(1108) 2月條: 判京畿州縣 常貢外徭役煩重 百姓苦之 日漸逃流 主管所司 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酌定施行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徵求過極 匠人艱苦而逃避 仰所司以 其各所別常貢物多少酌定奏裁.

57) 崔瀼, 『拙菴千百』 2卷, 永州利旨銀所陞爲縣碑.

『新增東國輿地勝覽』 27卷, 河陽縣 古跡 利旨銀所條.

58) 이정신, 1988, 「고려시대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에 대한 일연구」, 『한국사연구』 61·62, 한국사연구회.

59) 『高麗史』 84卷, 志 38, 刑法 1, 職制, 忠烈王 22年(1296) 5月條: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 一諸州縣及鄉所部曲 人吏無一戶者多矣. 外吏依勢 避役者悉令歸鄉 丁吏亦令減數歸還.

60) 이정희, 1984, 「고려시대 요역의 운영과 그 실태」, 『부대사학』 8, 부산대학교사학회, p.64.

61) 도자는 대체로 대외적 군사적 혼란기에 유입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려 청자의 발생은 中國 五代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후기는 對中·對日 관계의 혼란으로 급속한 확산과 변화를 갖는다. 또한 壬辰倭亂의 경우 日本은 도자생산 기술이 유입되었으며, 조선은 이전에 통제되던 백자가 널리 확산되었다.

62) 韓盛旭, 2005, 「高麗後期 ‘正陵’銘象嵌靑瓷의 性格」, 『東岳美術史學』 6, 東岳美術史學會.

63) 林桂一, 『東文選』 83卷, 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序: … 丁未冬 避胡寇入象王山法華社….

을⁶⁴⁾ 비롯해 전라도 해안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⁶⁵⁾ 남해안 지역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4세기 왜구의 피해는 大口所가 있는 耽津縣을 관할하던 長興府가 禑王 5년(1379) 治所를 鐵冶縣으로⁶⁶⁾ 옮겼다가 朝鮮 太祖 元年(1392)에 돌아오는 등 이 지역의 피해 역시 극심하였다.⁶⁷⁾ 이 외에도 남해안에 위치한 珍島縣과 壓海縣, 興陽縣 등이 왜구를 피해 치소를 내륙으로 옮기고 있다.⁶⁸⁾ 또한 恭愍王 21년(1372) 耽津縣에 대한 왜구의 침입 기록과⁶⁹⁾ 恭愍王 1년(1352) 大口所와 마주보고 있는 白蓮寺가 왜구에 의해 폐허되었음을 통해서도 그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⁷⁰⁾

이 시기는 收取體制가 문란하여 貢物을 징수하도록 諸道에 파견된 관리들이 공적업무를 빙자하여 사복을 채우고⁷¹⁾ 鄕吏들과 결탁하여 불균등한 役制를 운영하여 民의 流亡이 보다 확대되었다. 한편 이들 부정한 물품과 대규모 농장의 高利貸, 토지에서의 잉여생산물은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상업의 발전은 수공업자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역으로 所와 官工匠이 무너지는 역할을 하였다.⁷²⁾ 또한 鐵器나 鋤器를 瓷器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도자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⁷³⁾ 즉, 이 시기는 자기 요장이 확산되어 一道의 貢物이 80~90牛에 이르며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도자를 생산하였는데⁷⁴⁾ 이는 匠人 분포의 다양성을 내포하며, 貢物用 자기를 사사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장성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고려후기가 되면 도자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전 시기에 비해 실용성과 기능성이 강조되는 각종 생활용 도자의 비율이 높아진다.⁷⁵⁾ 그리고 貢納 도자의 생산지가 확산된 것은 1350년 이후 倭寇의 침략에 따라 남해안에 위치한 大口所 지역의 청자생산과 貢納에 어려움이 있었음도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14세기가 되면 大口所를 비롯한 각지에서 청자를 생산하여 官營과 私營으로 도자 생산

64) 『高麗史』 27卷, 世家 27, 元宗 13年(1272) 5月 丁丑條; 三別抄 焚掠耽津縣.

65) 이승한, 1993, 「삼별초 항쟁과 전남」, 『전라남도지』 3, 전라남도, p.231~252.

66) 현재 全羅南道 羅州市 鳳凰面 鐵川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67) 『高麗史』 37卷, 世家37, 忠定王 2年(1350) 夏四月 戊戌條; …倭船百餘艘 寇順天府 掠南原求禮靈光長興漕船. … 伍月庚辰倭船六十六艘 寇順天府 我兵追獲一艘 斬十三級. … 六月辛丑倭寇長興府安壤鄉.

『世宗實錄地理志』 長興都護府條; …麗季因倭寇 僑徙內地 本朝太祖元年壬申 築城於遂寧縣之中寧山…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長興都護府 古跡 皇甫城條; 李穡記…至正庚寅以來 日本島夷竊 發作亂夜 至天明輒奔 國家輕之 不以爲慮 日增月熾 白晝深入 彌旬月橫行 自得濱海民居於 是蕩然矣 朝廷每遣大將 驅逐稍定 勢窮事迫 移民之令出焉 長興流寓鐵冶縣 已未歲也 合寶城郡 已巳歲也…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古跡 修因山城條; …高麗末 道康 耽津 寶城 長興 靈巖之民 皆避倭寇于此.

68) 『新增東國輿地勝覽』 35·40卷, 羅州牧·靈巖郡·興陽縣條.

69) 『高麗史』 43卷, 世家 43, 恭愍王 21年(1272) 3月 癸亥條; 倭寇 順天 長興 耽津 道康郡.

70) 『高麗史』 111卷, 列傳 24, 柳濯條.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佛宇 白蓮社條; 尹淮記…世傳 創始於新羅氏重新於高麗圓妙師 傳至十一代無畏師 恒爲法華道場 號東方名刹 槩島夷陸梁 負海娛區鞠爲丘墟 寺亦隨其盛衰惟…

『東史綱目』 14上, 恭愍王 1年(1352) 正月條.

71)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饗每歲 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馱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莫甚焉.

72) 이정진, 1998, 「고려시대 종이의 생산실태와 지소」,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p.255~256.

73) 『高麗史』 85卷, 志 39, 刑法 2, 禁令, 恭讓王 3年(1391) 3月條; 中郎將房士良上疏 … 鑄銅本土不產之物也 願自今禁銅鐵器專用瓷木以革習俗.

74)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饗每歲 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馱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莫甚焉.

75) 김영진, 1995,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 사회과학출판사, p.88~89.

체제가 이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司膳’銘과 ‘德泉’銘, ‘寶源’銘靑瓷 등 공납용 청자가大口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되고 있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⁷⁶⁾ 이 시기 확산된窯場은『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324개소의磁器所 陶器所와『經國大典』公典 工匠條의 도자 장인에 기록된 101인의外工匠 분포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표 01. 『世宗實錄地理志』全國磁器所·陶器所現況

地域	磁器所					陶器所					合計
	上品	中品	下品	未詳	小計	上品	中品	下品	未詳	小計	
京畿道	1		13		14		6	12	2	20	34
忠清道		12	11		23		6	31	1	38	61
慶尙道	3	8	26		37		6	28		34	71
全羅道		15	12	4	31		8	23	8	39	70
江原道		2	2		4			10		10	14
黃海道		6	6		12		6	11		17	29
平安道		2	11		13		1	10	1	12	25
咸吉道			5		5			6	9	15	20
合計	4	45	86	4	139		33	131	21	185	324

76) 박경자, 2003,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체제의 이원화」, 『미술사학연구』 238·239, 한국미술사학회.

表 02. 『世宗實錄地理志』全羅南道 地域 磁器所・陶器所 現況

界首官	地名	磁器所				陶器所				合計
		上品	中品	下品	未詳	上品	中品	下品	未詳	
羅州牧	羅州牧		1				1			2
	海珍郡			1				1		2
	靈巖郡		2					2		4
	靈光郡			1				1		2
	康津縣									
	咸平縣			1				5		6
	南平縣									
	務安縣		1				1			2
	長城縣			1						1
南原都監府	求禮縣									
	谷城縣			1				1		2
	光陽縣									
長興都監府	長興都監府			1			1			2
	潭陽都監府		1				1			2
	順天都監府				1				3	4
	武珍郡				1				1	2
	寶城郡									
	樂安郡									
	高興縣			1				1		2
	綾城縣		1				1			2
	昌平縣									
	和順縣							1		1
	同福縣		1							1
玉果縣			1				1		2	
珍原縣										
合計	25		7	8	2		5	13	4	39

표 03.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 陶瓷 匠人 現況

京 工 匠				外 工 匠			
官 司	瓮 匠	沙 器 匠	瓦 匠	地 域		沙 器 匠	黃 瓮 匠
本曹(工曹)	13			京畿 6	廣州	4	
奉常寺	10				楊州	1	
尙衣院	10				衿川	1	
司饗院		380			公州	3	
內資寺	8				林川	2	1
內膳寺	8				木川	2	
司稟寺	8			文義	2		
禮賓寺	8			青陽	2		
內需司	7	6		唐津	1		
昭格署	4			陰城	1		
司醞署	4			全義	1		
義盈庫	4			燕岐	1		
掌苑署	8			新昌	1		
司圃署	10			海美	1		
養賢庫	2			堤川	1		
瓦 署			40	鎮川	2		
				保寧	1		
				禮山	2		
				金海	8		
				居昌	1		
				清道	2		
				彦陽	2		
				宜寧	2		
				昌寧	2		
				咸安	2		
				梁山	2		
				軍威	2		
				高靈	6		
				丹城	1		
				昆陽	2		
				全州	2		
				羅州	4		
				靈光	2		
				靈巖	3		
				茂長	2		
				順天	6		
				潭陽	2		
				寶城	2		
				井邑	2		
				興德	2		
				扶安	6		
				高敞	2		
				玉果	2		
				綾城	2		
합계(631)	104	386	40	101		100	1

고려 초기 자기 생산과 관련된 중앙 관직은 甄官署의 甄官丞이 등장하며⁷⁷⁾ 이후 尙食局과 尙食局의 후신인 司膳署(司饗寺)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⁷⁸⁾ 尙食局과 司膳署는 왕실 소용의 도자를 관리하였으며, 왕실 이외의 관리체제는各司에 별도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⁷⁹⁾ 특히, 司饗寺는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책으로⁸⁰⁾ 收取體制의 문란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후기에 이르면 이들의 폐단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⁸¹⁾ 따라서 所는 말단 관리로부터 상부 권력층에 이르기까지 침탈의 대상이 되면서 중앙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체가 가속화되는데⁸²⁾ 大口所도 지역 세력집단인 耽津 崔氏와 主縣의 세력집단으로 탐진 최씨와 정치적 유대 관계에 있던 장흥의 定安 任氏 등에 의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다.⁸³⁾ 장흥지역에서는 이를 입증하듯 매우 이례적인 靑瓷象嵌透刻龜甲文箱子를 비롯한 고품격 청자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 그 위상을 느낄 수 있다.⁸⁴⁾ 특히 大口所가 있던 耽津縣은 監務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조선 태종 17년(1417)에서야 이웃 道康縣과 합해지면서 治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⁸⁵⁾ 따라서 감무가 없었던 耽津 지역은 국가의 직접 통제 보다는 지방 세력에 의해 그 산업적 특권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고려시대 감무의 파견은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 등을 위해 실시되었는데⁸⁶⁾ 탐진현처럼 감무가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세력 또는 중앙세력과 결탁된 지방세력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耽津縣은 고려 초 전라도의 강력한 지방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靈巖의 속현이었으나 仁宗 2년(1124) 恭睿太后 任氏의 고향이라 하여 定安縣에서 승격된 長興府의 속현으로 행정체계가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공예태후의 納妃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崔思全(1067~1139년, 탐진 최씨의 시조; 사진 1)이 고려시대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던 영암 세력으로부터 탈피하여 탐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시기로 볼 수 있다.⁸⁷⁾ 한편, 최근 泰安 竹島(대섬)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崔

77) 『高麗史』 94卷, 列傳 7, 金殷傳條; 金殷傳 水州安山縣人 性勤儉 成宗朝(981~997年) 授甄官丞 …, 서성호, 2001,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2.
이종민,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7.

78) 송성안, 1995, 「고려전기 자기수공업-자기소를 중심으로-」, 『경대사론』 8, 경남대학교사학회, p.54~58.

79) 고려에 설치되었던 六寮職 또는 諸寮職 (『高麗史』 77卷,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條 : 諸寮直.[丙科權務], 『高麗史』 80卷, 志 34, 食貨 3, 祿俸, 權務官祿條; 權務官祿 文宗三十年定…八石十斗…諸寮直…仁宗朝更定 : 八石十斗 六寮直…)을 도자 관련官司로 이해 하였으나 『燃藜室記述』(李肯翊, 『燃藜室記述』 7卷, 官職典故 瓦署條; 신라에서 ‘瓦器典陶登局’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諸寮直’이라 하였다. 太祖(朝鮮)는 東西寮直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고쳐서 ‘瓦署’라 하고, 기와벽돌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등의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80)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饗古之尙食而 今之司膳也 今則司設食其祿而廢其職 司幕勤其事而不食祿 司饗以下之職亦然.(司饗寺은 司膳署의 별칭으로 이해된다)

81) 『高麗史節要』 34卷, 恭讓王 元年(1389) 12月 壬寅條: 司饗每年 遣人於各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馱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莫甚焉.

82) 이정신, 1998, 「고려시대 종이의 생산실태와 지소」,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p.257.

83) 이해준, 1992, 「강진지역 고려청자의 발달 배경」, 『강진의 청자요지』, 해강도자미술관, p.368.

84)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장흥댐 발굴 유적과 유물』.

목포대학교박물관, 2009, 『장흥 천관사』.

한성욱, 1995, 「장흥 모산리출토 청자상감투각귀감문상자 일괄유물」, 『장흥문화』 17, 장흥문화원.

85)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建置沿革條.

86) 원창애, 1983, 「고려 중·후기 감무증치와 지방 제도의 변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87) 태안 죽도 해저유적 목간에서 확인되는 崔大卿은 耽津 崔氏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耽津 崔氏의 始祖인 崔思全이 李資謙(?~1126년)의 계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중앙 정계에서 탐진 최씨의 영향력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특히 일부의 주장처럼 목간의 干支가 壬子年(1132)이라면 崔思全과 직접 연결되는 시기로 매우 주목된다.

大卿'과 '安永' 등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⁸⁸⁾ 이들은 모두 탐진의 토착세력이다.⁸⁹⁾ 따라서 탐진현에 설치되었던 대구소와 칠량소는 탐진현의 토착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발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⁰⁾



사진 01. 崔思全 墓誌銘(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대몽항쟁 이후 점차 쇠퇴하는 청자의 질적 저하와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貢賦收取體制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재차 大口所로 기술력과 인력을 집결하며 干支銘과 官司銘 등의 銘文靑瓷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왜구의 잦은 침입과 중앙통제의 해이 등으로 청자는 더욱 쇠퇴하는데 이는 왕실용인 '正陵'銘靑瓷의 질적 하락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正陵'銘靑瓷와 '尙藥局'銘靑瓷, 陰刻'○'文靑瓷 등의 예로 보아 공납용 청자는 대구소의 특정 공방에서만 생산되지 않고 다양한 공방에서 제작하여 납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⁹¹⁾ 또한 保寧 元山島 해저유적 출토품과 이들을 생산하였던 가마 출토품을 보면 한 가마에서 최상품과 이 보다 질이 떨어지는 청자를 함께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²⁾ 이는 조선시대 分院처럼 공납품과 商品을 함께 생산하여 유통하였으며 상품용의 판매를 통해 요장을 자립 운영하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고려후기 이후 쇠퇴를 거듭한 강진지역은 조선시대가 되면 도자 생산이 매우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전기의 기록인 『世宗實錄地理志』와 『經國大典』의 문헌에 자기생산과 관련된

8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손환일, 2008, 「고려 목간의 서체-충남 태안 해저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 사상과 문화』 44, p.401~426

임경희·최연식, 2008,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창간호, p.335

89) 『新增東國輿地勝覽』 37卷, 康津縣 姓氏條: 耽津 崔曹俞安鄭河, 康朴 모두 來姓이다. 大口 徐, 七陽 白.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耽津姓六, 崔·曹·俞·安·鄭·河; 來接姓二, 康[幸州來]·朴[靈岩來] … 大口所續姓一, 徐, 七良所續姓一, 白.

90) 특히 泰安 竹島 해저유적은 耽津縣이 長興都護府로 행정체계가 변환된 이후의 출항선으로 耽津 崔氏의 세력이 강했던 시기이다.

91) 韓盛旭, 2005, 「高麗後期 '正陵'銘象嵌靑瓷의 性格」, 『東岳美術史學』 6, 東岳美術史學會.

한성욱, 2007, 「고려 음각 '○'문과 '◎'문청자의 연구」, 『고문화』 7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韓盛旭, 2006, 「高麗靑瓷陰刻雲龍文'尙藥局'銘盒についての一考察」, 『有光教一先生白壽記念論叢』, 高麗美術館.

9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 점차 퇴보하던 강진지역의 도자생산은 조선 건국 이후 완전히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기록에서도 강진지역은 土産과 物産, 方物條에 도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 역할이 민수용으로 매우 미미하였으며 생산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라도 해안지역이 유사한 양상으로 조선시대에는 내륙의 靈巖과 羅州 등에 많은 沙器匠이 배치되고 있다. 즉 대몽항쟁과 왜구의 침입으로 大口所 등의 瓷器所가 해체되어 도자생산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전남지역에서는 이 역할을 내륙지역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³⁾

3) 강진 고려청자 窯場의 현황⁹⁴⁾

강진지역은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가장 독보적 생산지로 窯場은 大口面(史蹟 第68號) 일대와 七良面 三興里(記念物 第81號) 일대에 분포한다. 이중 핵심은 大口面 일대로 특히 龍門川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곳은 1914년 처음 알려지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도자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제작된 청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들로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大口面 가마터는 크게 龍雲里와 桂栗里, 沙堂里, 水洞里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가마터는 龍門川 상류인 용운리에서 발생하여 용문천을 따라 해안의 사당리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는 200여기로 한반도 청자가마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청자 발생기부터 14세기 쇠퇴 소멸기까지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의 요지가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청자발생과 세련기, 절정기, 확산기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종다양한 모든 종류의 청자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곳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던 瓷器所 가운데 大口所가 설치되어 있어⁹⁵⁾ 干支銘과 ‘尙藥局’, ‘準備色’, ‘正陵’ 등 貢納과 관련된 銘文이나 官司銘 등의 銘文靑瓷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93) 한성욱, 2001, 「고려 후기 청자의 기형변천」, 『미술사학연구』, 232, 한국미술사학회.

94) 강경인, 1987, 「사적 68호 고려청자도요지에서 출토된 청자파편에 관하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진문화원, 1989, 『강진의 역사와 문화』.

강진문화원, 1990, 『고려청자 문화와 강진』.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명문·부호 특별전-』.

국립광주박물관,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II.

국립광주박물관, 2006,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강진 삼흥리 가마터 출토 유물전-』.

국립중앙박물관, 1996·1997, 『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도판편·본문편.

동방문화재단연구원, 2011, 『강진 대구면 도요지 종합정비계획 학술연구용역 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강진군.

박경자, 2003,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 『미술사학연구』, 238·239, 한국미술사학회.

윤용이, 1989, 「강진군의 도요지」, 『강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선관요박물관, 2008, 『강진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최순우, 1964, 「강진 사당리 요지 출토 청자瓦」, 『미술자료』 9,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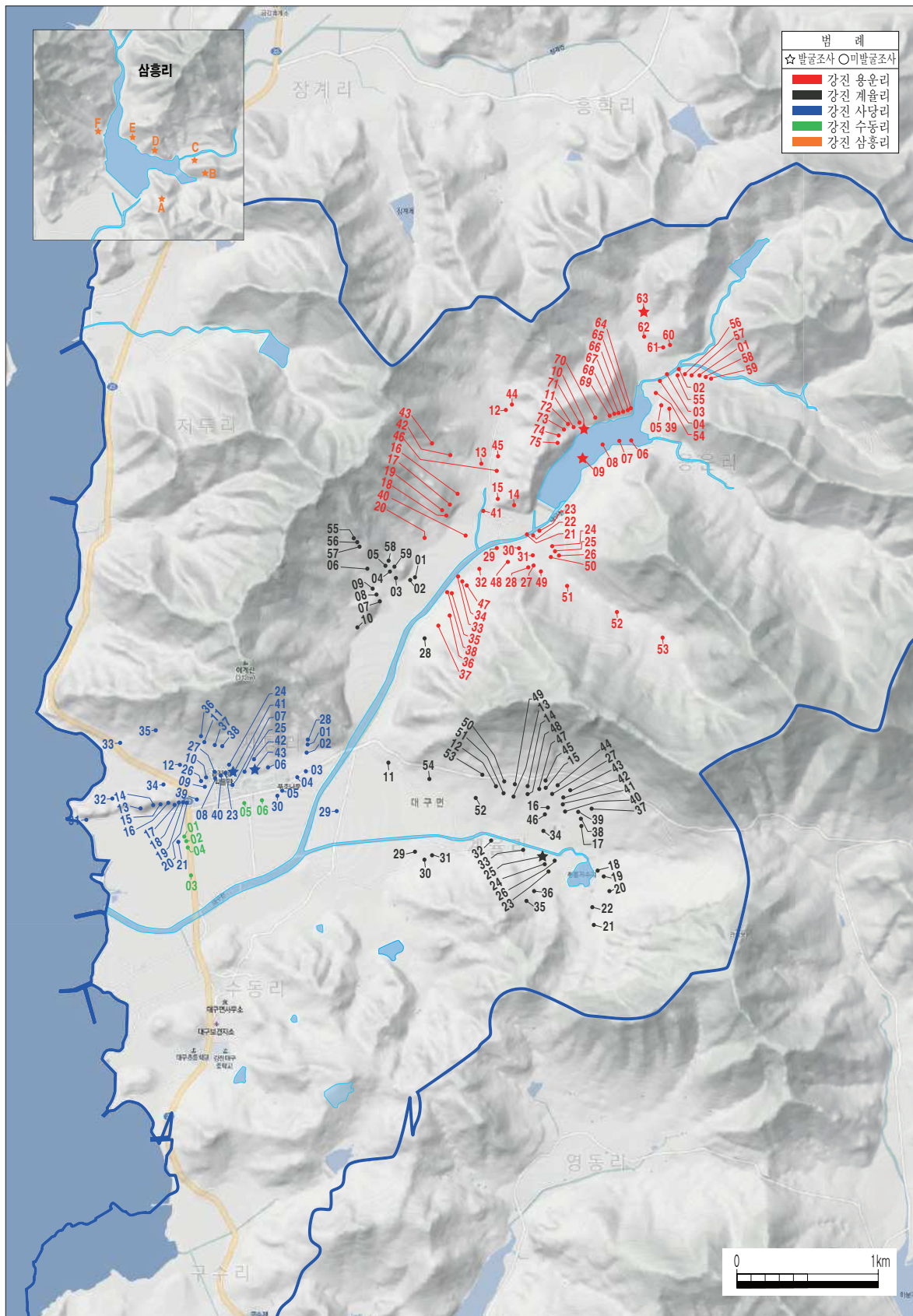
최순우, 1965, 「강진 사당리출토 청자상감 발원문편」, 『고고미술』 63·64, 한국미술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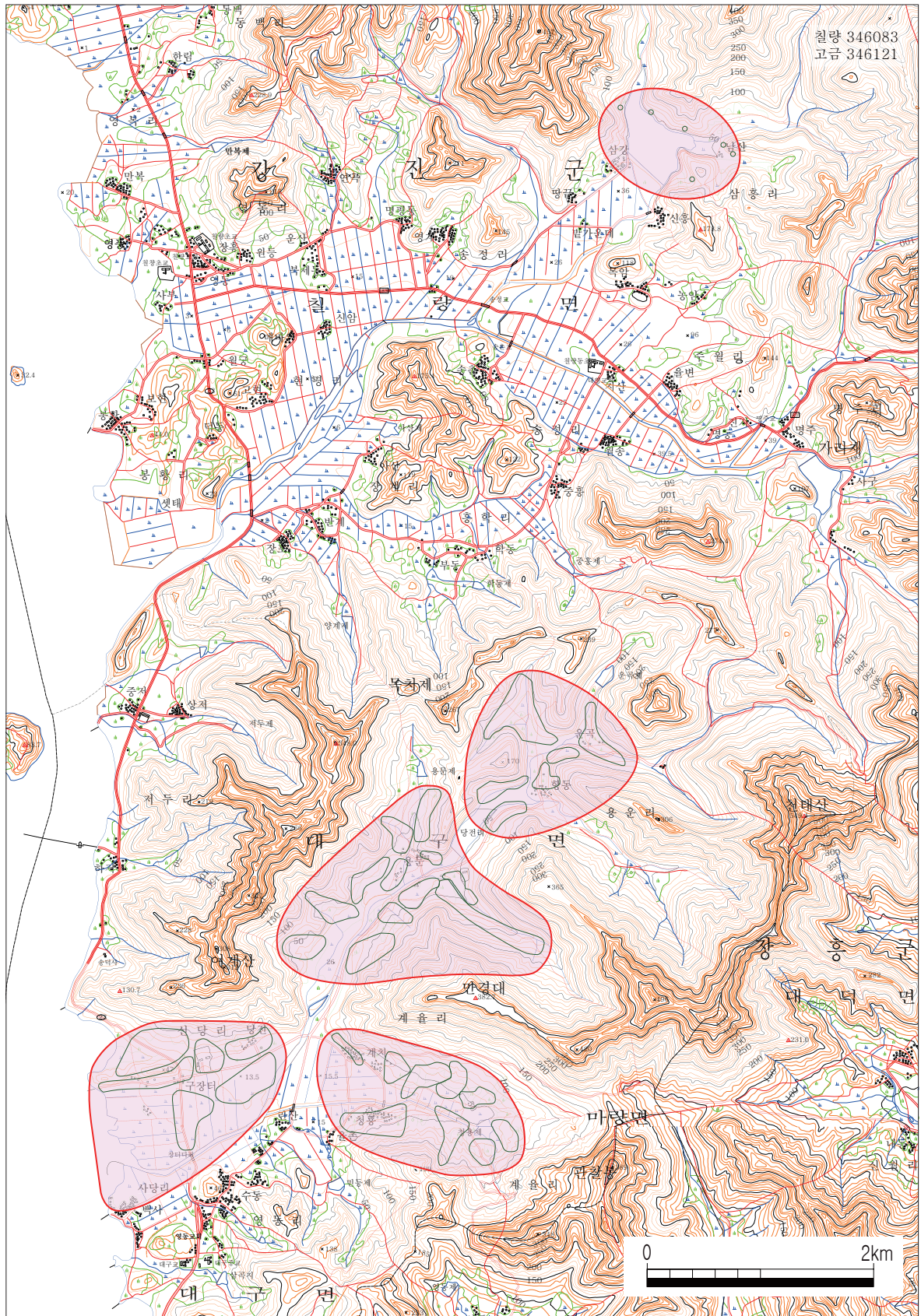
최순우, 1967,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전」, 『고고미술』 89, 한국미술사학회.

해강도자미술관, 1992, 『강진의 청자요지』.

호남문화재단연구원,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I.

95) 『世宗實錄』, 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도면 08. 강진 청자요지 군집 분포도



사진 02. 강진 용운리 청자요장 전경

龍雲里는 용문천 상류지역으로 雲谷, 巷洞, 龍門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75기의 가마터가 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가마터가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상태가 아주 좋다. 이곳 가마는 대부분 청자 발생기 가마를 비롯한 초기요지들이 분포하고 있어 청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선해무리 굽 완와 변형 해무리굽 완까지 초기청자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越州窯와 汝窯 등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기형과 문양 등을 볼 수 있다. 기종은 일상 생활용기가 대부분으로 회백색 耐火土 비짐을 받쳐 포개 燻造하였으나 완은 1점씩 단독 번조하였다. 문양은 蓮瓣文과 菊唐草文이 있으며 한국식 해무리굽 완이 출토되는 가마터에서는 鐵畫와 堆花技法이 약간씩 나타난다. 그리고 圓筒形 匣鉢과 갑발 받침이 많이 출토되는데, 갑발 측면에는 다양한 음각 기호가 있어 주목된다.



사진 03. 강진 계율리 청자요장 전경

용문천 중류지역인 桂栗리는 桂峙와 靑龍, 卵山, 栗村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59기의 가마터가 있다. 이곳은 초기 가마터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전반의 것이다. 가마터의 일부가 계곡 동측 계곡에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수몰되거나 논으로 변한 곳이 있으나 산사면에 위치하여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 지역은 용운리처럼 초기청자 가마터도 있으나 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다음 시기인 평저접시가 출토되는 가마가 중심을 이룬다. 문양은 음·양각과 堆花技法 등이 확인되며 기벽이 얇고 유약도 얇게 시유되어 있다. 이외에 13~14세기 상감청자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가마를 이동하면서 청자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은 11세기 세련기 청자와 14세기 쇠퇴 확산기 청자를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청자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역이다.



사진 04. 강진 사당리 청자요장 전경

桂峙 계곡을 지나 용문천 하류의 비교적 넓은 들을 지나면 沙堂里가 위치하는데 이곳이 고려청자의 절정기를 맞았던 지역이다. 이곳은 고려시대에 가장 양질의 청자를 제작하였던 곳으로 국립박물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靑瓷瓦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沙堂里는 堂前과 尾山, 白沙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43기의 가마터가 있다. 그러나 용문천의 침식과 비교적 넓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전답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곳이 많다. 사당리는 강진청자의 핵심지역으로 1914년 조사 이래 가장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이 가운데 당전마을 가마터는 전성기 청자들로 翡色의 완성과 상감청자가 세련 발달되던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에 생산된 절정기 청자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국식 해무리굽 완이 출토되는 가마터도 일부 있으며 14세기 가마터가 다수 확인된다. 당전마을 가마는 해안에 위치한 이웃 미산마을로 연결되어 청자가 쇠퇴 확산되는 14세기까지 운영된다. 미산마을 가마는 12세기에서 13세기에 이어 14세기 쇠퇴 확산기 청자를 집중적으로 제작한 곳이다. 후기청자는 시문기법과 기종이 단순해지며, 상감청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문양이 圖式化 간략화되며 실용성이 강한 청자들이 제작된다. 그리고 1964년부터 8차례 실시한 당전마을 117번지 일대에 대한 국립박물관 발굴조사에서 靑瓷瓦가 다수 발견되어 『高麗史』에 養怡亭과 觀瀾亭을 靑瓷瓦로 덮었다는 기록과⁹⁶⁾ 그 제작지가 사당리로 확인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발굴조사된 사당리 41호 가마터는 자연 경사면을 이용한 반지하식 登窯로 천정은 궁륭형이다. 가마의 특징은 火口 앞 측면에 작은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다.

96) 『高麗史』 第18卷, 世家 第18, 毅宗 丁丑 11年(1157) 4月 丙申日.



사진 05. 강진 수동리 청자요장 전경

水洞里는 사당리 남측 들판에 있는 마을로 6기의 가마터가 분포한다. 가마터는 전답으로 개간되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곳은 사당리 미산마을과 마찬가지로 쇠퇴 확산기인 13세기부터 14세기대의 후기 상감청자를 주로 생산하였다.



사진 06. 강진 삼흥리 청자요장 전경

三興里는 삼흥저수지 주변과 저수지 동남측 남산마을 주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대구면 요지와는 천태산을 경계로 바로 인접하여 있다. 칠량면 역시 국가의 통제를 받았던 자기소 중 칠량소가 있었던 곳으로⁹⁷⁾ 고려청자 요지와 조선 분청자 요지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97) 『世宗實錄』地理志, 康津縣條; 所八 山計 山深 大谷 大口 七良 種玉 舊溪 富元.

Ⅲ. 調查 範圍와 方法

1. 調查 範圍
2. 調查 方法
3. 遺蹟의 層位
4. 出土遺物의 分類



Ⅲ. 調査 範圍와 方法

1. 調査 範圍

조사지역인 용운리 63호 청자요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84번지 일원으로 향동마을 북쪽에 위치한 대구천 상류의 가지골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해발 76m 내외의 산사면으로 가마터의 동쪽은 해발 150m 정도의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과 남쪽은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일부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가마 뒷부분의 동쪽에도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 유적 주변이 많이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봉통부(연소실) 등 가마의 전면부는 경작으로 인해 대부분 삭평되었으며, 유적 앞에는 천태산에 내려오는 계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유적의 동쪽은 천태산(해발 549.4m)에서 뺀어 나온 산줄기들로 산세가 험하며 산지 사이사이에 소규모의 곡간지가 발달되어 곳곳에 청자 요지가 자리하고 있다. 63호 주변에도 남쪽 산사면에 용운리 60~62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과 서쪽의 곡부와 산사면은 신규로 확인된 3기의 요지가 자리하고 있다.



도면 09. 조사지역 원경(남-북)

2. 調査 方法



사진 07. 퇴적층 층위별 수습 작업

잡목과 잡초 등을 제거하여 유적의 윤곽을 확인하였다. 포토에서 갑발과 청자 파편 등이 확인되어 가마 퇴적층을 먼저 확인하였으며 폐기층 우측에서 소결된 가마의 흔적이 노출되었다. 가마를 중심으로 위쪽은 묘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지형이 깎였으며, 봉통부 등이 있는 가마의 하단부는 경작을 위한 개간으로 많은 부분이 삭토되어 유구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는 퇴적층과 가마를 중심으로 묘지 앞까지 최대한 확장하여 전면 제토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청자 가마터 1기와 퇴적층 1개소가 확인되었다.

가마터는 경작으로 대부분 유실되고 번조실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가마 크기에 맞추어 장축과 단



사진 08. 유물 세척 작업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하상 퇴적으로 인한 자갈층과 모래층만 확인될 뿐 봉통부와 요전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사면을 이용한 퇴적층은 63호 청자요지의 좌측에 형성되어 있다. 조사는 토층 양상을 파악한 다음, 층위에 맞추어 내용을 기록하면서 진행하였다. 출토 유물은 먼저 층위에 맞추어 자기류와 갑발류를 분류하였으며, 청자류는 출토 수량이 많지 않아 통계의 의미가 적어 대표적인 기종을 중심으로 기형이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나, 갑발류는 1/3 이상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다음 형태를 알 수 있는 갑발과 외면에 문양이 새겨진 갑발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발굴조사는 63호 청자요지와 가마 퇴적층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작업 공간인 공방의 분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우천으로 인한 유적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가마 윗부분에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배수로를 만든 다음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마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축 30cm 너비의 ‘+’자 독을 설정한 후 세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토층을 먼저 확인한 다음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요전부가 현재 경작면보다 더 깊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번조실 경사도에 맞추어 제토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결 흔적과 숯층이 확인되는 곳은 50cm 너비의 ‘+’자를 설정하여 확인



사진 09. 유물 선별 작업

조사지역의 기준 층위는 지형을 고려하여 현재 경작을 실시하고 있는 평지부와 가마가 위치한 사면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기준 토층 1은 현재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쪽 단애면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경작면을 1m 가량 굴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하상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적 바로 앞에 흐르는 계류가 과거에는

현재 경작면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3. 遺蹟의 層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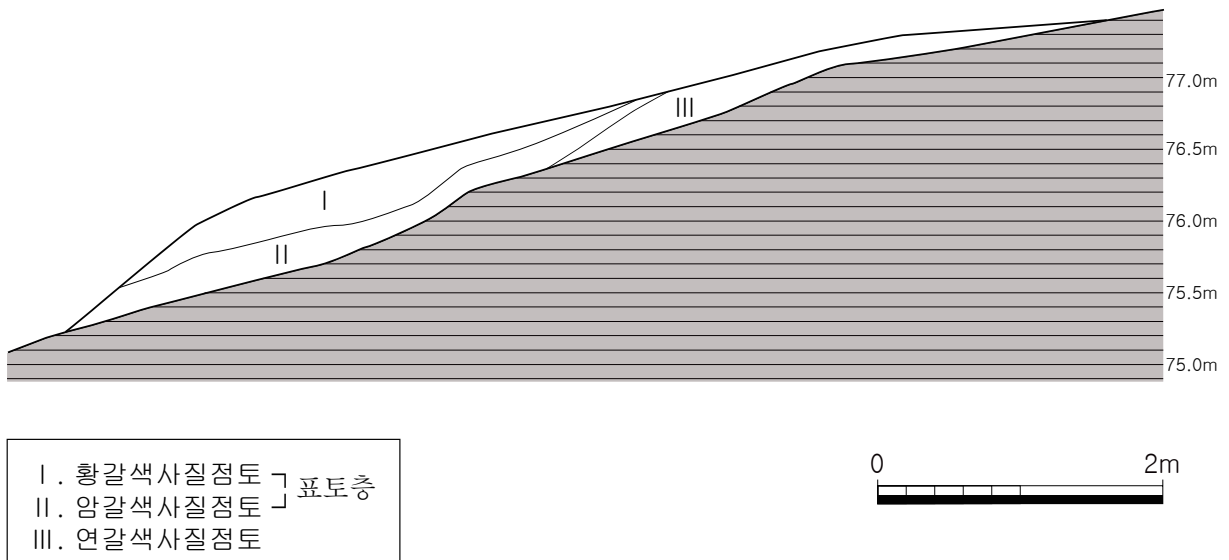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내 퇴적양상은 북동쪽에 설정한 가마퇴적과 관련된 A-A'와 남쪽 하상퇴적과 관련된 B-B'층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사진 10. 조사지역 기준 층위 위치



사진 11. 조사지역 기준 토층(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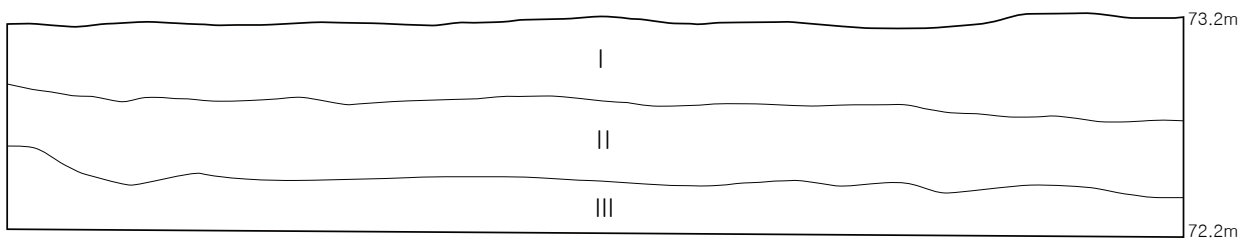


도면 10. 조사지역 기준 토층도(A-A')

A-A'는 63호 청자요지의 북동쪽 사면으로 풍화 침식에 의한 자연 재해와 인위적 경작, 묘지 조성 등으로 지형이 많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 층위는 총 3개층으로 구분된다. I ~ II 층은 경사면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적된 표토층이며, III 층은 구릉 상단부에서 퇴적되었으며, 화강암질 풍화암 반응으로 유구가 형성된 층이다.



사진 12. 조사지역 기준 토층(B-B')



- | | |
|-----------------|------------|
| I. 황갈색사질점토(표토층) | |
| II. 황갈색자갈층 | 구하천과 관련된 층 |
| III. 흑갈색모래층 | |



도면 11. 조사지역 기준 토층도(B-B')

B-B'는 63호 청자요지의 남쪽에 위치하며, 하천 관련 하성퇴적이 이루어져있다. I 층은 최근까지 경작이 이루어진 경작층이다. II 층은 황갈색자갈층으로 다량의 자갈과 모래가 혼입되어 나타나며, III 층은 전면에 걸쳐 고운 흑갈색 모래가 쌓여 있는 층이다. II~III 층은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으로 하천 관련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B-B'는 하천의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유적의 바로 앞으로 작은 개울이 지나고 있어, 과거에 요지와 가깝게 물이 흘렀으며, 물줄기가 바뀌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4. 出土遺物의 分類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에서 출토된 청자류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전개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용운리 63호 청자요지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발·완·잔·접시·병·뚜껑·호 등이 확인되었으며, 청자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갑발, 도침 등이 출토되었다. 수습된 청자는 모두 정리되어 기형복원이 가능한 것, 정확한 기형 파악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유물은 가마 내부 4점, 가마 퇴적층 155점으로 159점이 수습되었다.

1) 발

발은 모두 10점으로 완형유물의 수량 적어 굽에서부터 벌어져 올라가는 그릇 측면과 구연의 변화와 굽의 형태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형은 A·B형으로 구분하였다. 굽은 굽 높이와 벌어진 정도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하였다.

표 04. 발形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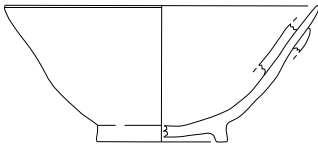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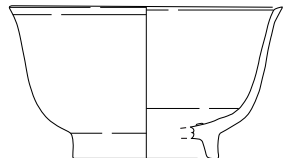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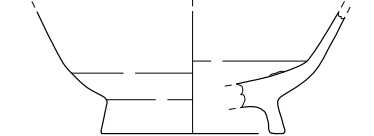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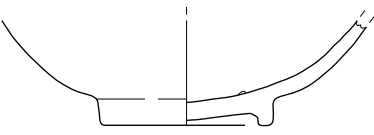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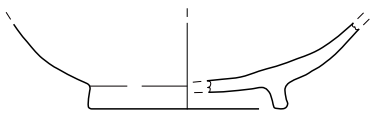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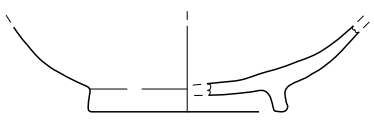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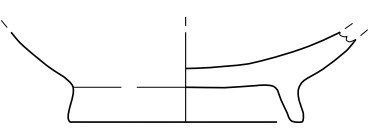
형식	도면	특징
A		그릇 측면이 하단에서 곡선형으로 완만하게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직립되었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으며 1조의 음각선대만 있다.
B		그릇 측면이 하단에서 곡선형으로 곧추서 올라가며, 구연은 외반되었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으며, 1조의 음각선대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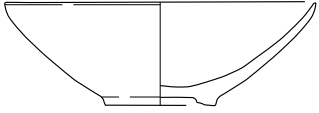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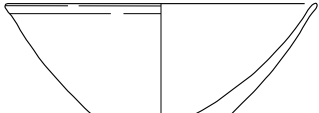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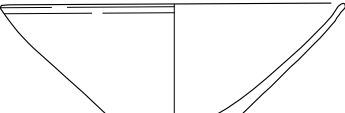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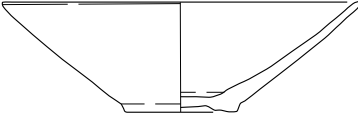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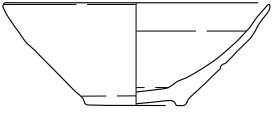
표 05. 발식 분류

형식	도면	특징
1		<p>굽은 1.0cm 이상 높고 외경되며, 굽바닥은 넓은 편이다.</p>
2		<p>굽은 1.0cm 이상 높고 직립된 형태이다.</p>
3		<p>굽은 높이가 높고 외경되었으며 굽바닥이 넓은 편이다.</p>
4		<p>굽은 높이 낮고 직립되었다.</p>
5		<p>굽은 1.0cm 이상 높고 외경된 형태이다.</p>

2) 완

완은 출토 수량이 32점으로, 굽에서부터 벌어져 올라가는 그릇 측면과 구연의 변화, 내저원각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기형은 6종류로 구분하였다. 굽은 모두 직립된 형태로, 굽바닥의 폭에 따라 넓이 0.3cm이하로 좁은 것은 1식, 0.4~1.0cm미만 2식, 1.0cm이상 되는 것을 3식으로 하였다. 이외에 양인각모란문완이 1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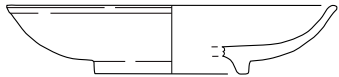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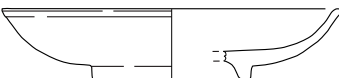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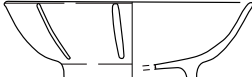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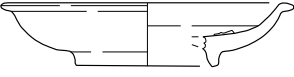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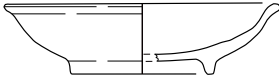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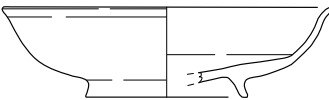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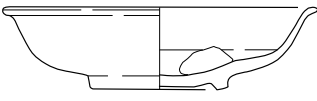
표 06. 완 形 분류

형식	도면	특징
A		그릇 측면이 완만한 곡선형이며, 구연은 직립되었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B		그릇 측면이 사선형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직립되었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C		그릇 측면이 완만한 곡선형이며, 구연부는 약간 외반되었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D		그릇 측면이 사선형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다. 내저면에 자리한 내저원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E		그릇 측면이 사선형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직립되었다. 내저면에 뚜렷한 원각이 남아 있다.
F		그릇 측면이 사선형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직립되었다. 구연부 아래 한줄의 음각선이 있으며, 내저면에 뚜렷한 원각이 남아 있다.

3) 접시

접시는 모두 21점이 출토되었으며, 다른 기종들에 비해 높이가 낮고 속심이 깊지 않은 형태이다. 굽에서부터 벌어져 올라가는 그릇 측면과 구연의 변화, 내저면과 굽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기형은 8 종류로 구분하였다. 굽은 벌어진 정도에 따라 높이가 낮고 직립된 a형과, 굽이 낮고 외경된 b형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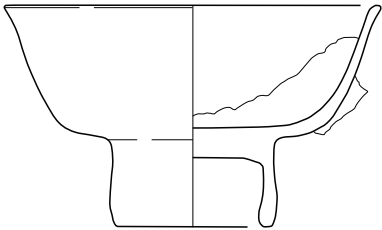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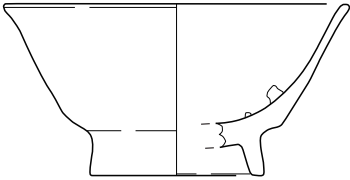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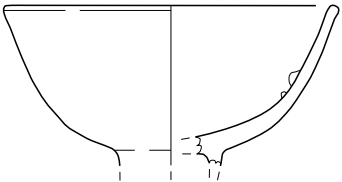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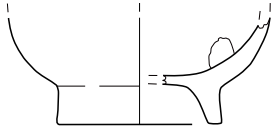

표 07. 접시 形 분류

형식	도면	특징
A		그릇 측면이 사선형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직립되었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B		높이가 낮고 내저면이 넓고 편평하다. 그릇 측면이 저부에서 구연까지 완만하게 벌어진 형태로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었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C		크기가 작고 그릇 측면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선을 이루며, 구연은 전혀 외반되었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D		그릇 측면이 사선형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직립되었다. 내저면은 음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E		C형과 기형은 같으나 높이가 낮고 내저면이 편평하며 속심이 깊지 않은 형태이다. 내저면은 음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F		그릇 측면이 사선형으로 가깝게 벌어져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어 바라져 있다. 내저면은 음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G		내저면은 편평하고 저부가 수평으로 벌어지다 각이져 꺾여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어 바라진 S자 형태이다. B형과 유사하나 구경에 비해 높이가 낮은 형태이다. 내저면은 원각이 남아 있다.
H		그릇 측면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선을 이루며, 구연의 외반정도가 큰 편이다. 내저면은 원각이 남아 있다.

4) 잔

잔은 모두 9점이 확인되며, 대체로 접시에 비해 속심이 깊은 형태이다. 굽에서부터 벌어져 올라가는 그릇 측면과 구연의 변화, 굽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잔은 단독번조하였으며, 기종은 5종류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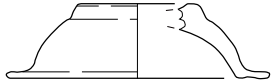
표 08. 잔 形 분류

형식	도 면	특 징
A		내저면은 편평하고 그릇 측면은 동체 하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었다. 굽은 1.0cm 이상으로 높고, 내만된 형태이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B		그릇 측면은 동체 하부에서 단이져 꺾여 사선에 가깝게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었다. 굽이 1.0cm 이상으로 높고, 외반된 형태이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C		그릇 측면은 저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D		크기가 작으며, 그릇 측면은 저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굽은 1.0cm 이상 높고, 외반된 형태이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E		D형과 유사하며, 굽은 1.0cm 내외로 낮고 직립된 형태이다. 내저면은 곡면을 이룬다.

5) 뚜껑

뚜껑은 3점이 출토되었으며, 완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류 기준은 측사면의 형태와 동체에 접하는 축의 형태로 2종류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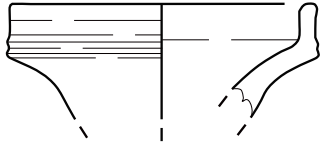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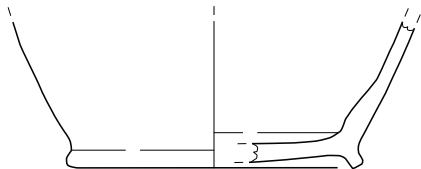
표 09. 뚜껑形분류

형식	도면	특징
A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내려가며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인 후 구연부는 수직으로 세워져 밀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B		뚜껑 상면에서 구연으로 곡선을 이루며 내려가다 구연에서 수평에 가까운 전을 형성하였다. 상면에는 다리굽의 손잡이가 있으며, 하면에는 축이 낮고 뾰족한 형태이다.

6) 병

병은 모두 7점으로 완형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 등의 파편으로 출토되어 기형 분류가 어렵다. 구연부와 저부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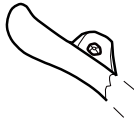
표 10. 병形분류

형식	도면	특징
A		구연에 명확한 꺾임이 있으며, 목이 긴 반구형이다.
B		넓고 낮은 다리굽으로 접지면이 밖으로 벌어지며 굽안바닥은 편평하다. 그릇 측면은 사선으로 올라간다.

7) 호

호는 파편으로 1점이 출토되었다. 용운리 9호 청자요지에서 유사한 기형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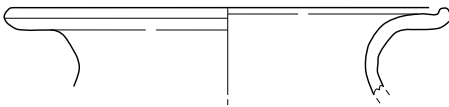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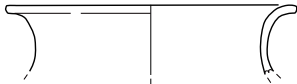
표 1. 호形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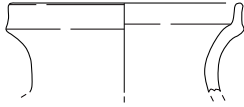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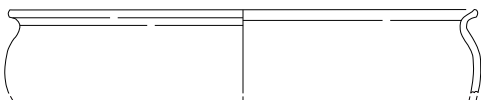

형식	도면	특징
A		작은 귀가 달린 소호로 추정된다. 구연은 수평을 이룬다. 어깨에 달린 귀는 작고 각이 졌으며 원형의 작은 구멍을 뚫었으며, 예리하게 비스듬히 깎은 형태이다.

8) 도기

도기는 모두 23점으로 구연부와 저부만 확인되어, 구연의 형태로 기형을 분류하였다. 구연부와 저부 형태로 파악되는 발과 병, 호, 동이 등으로 추정된다. A~C형은 호류, D~G형은 동이류이다.

표 12. 도기形분류

형식	기종	도면	특징
A	호		구연부는 어깨에서부터 넓게 외반된 형태이며, 구연의 끝이 수직으로 꺾여 올라간다.
B			구연부가 목에서부터 넓게 외반된 형태이다.

형식	기종	도 면	특 징
C	호		<p>구연부는 반구형으로 외반되었다.</p>
D			<p>구연부를 밖으로 말듯이 접은 형태로, 단면이 n자형로 둥글게 처리되었다.</p>
E	동		<p>구연부는 도톰하게 외반되어 한번 접은 뒤 상면은 오목한 누른 형태이다.</p>
F	이		<p>목이 짧고 구연부가 꺾이듯 외반된 형태이다.</p>
G			<p>구연부를 밖으로 말듯이 접은 후 위쪽으로 한번 더 접은 형태로 구연부 상면에 1조의 홈이 돌아간다.</p>

9) 요도구

청자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도구이다. 요도구는 갑발과 갑발 받침, 도침, 불창마개 등이 확인되었다. 갑발은 가마 안에서 잡풀이나 재 등의 불손물 등으로부터 기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고급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도구이다. 갑발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초기청자의 경우에는 항상 갑발 받침과 뚜껑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갑발은 모두 원통형의 형태로 크기에 따라 大·小로 구분되며, 대부분 측면에 ○, △, □ 등의 구멍이 한 개, 또는 2~4개 씩 뚫려 있으며, 구멍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음각되어 있다.

표 13. 요도구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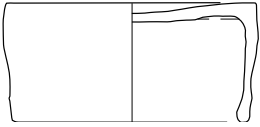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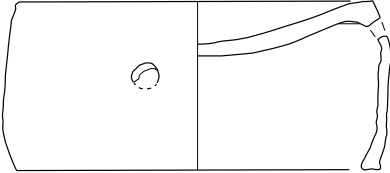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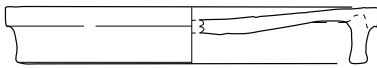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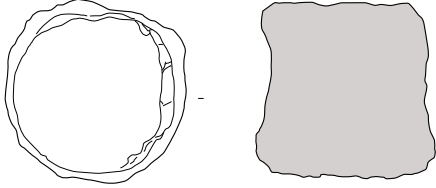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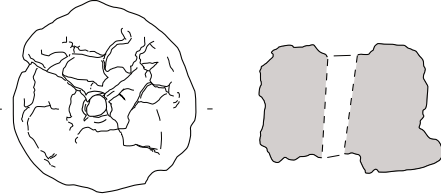
기종		도면	특징
갑발	A		지름 20cm 이하로 상면이 대부분 편평하다.
	B		지름 21cm 이상으로 상면이 편평하거나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다.
갑발 받침			상면이 편평하고 굽다리가 있어 단면이 床形이다. 다리의 형태는 밖으로 벌어지거나 수직에 가까운것, 다리가 안으로 오므리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도지미			원통형으로 중앙에 구멍이 없다.
불창마개			크기는 도침과 유사하나, 한쪽 지름이 넓고, 자화된 양상의 차이가 크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다.



사진 13. 갑발 외면 통기공과 음각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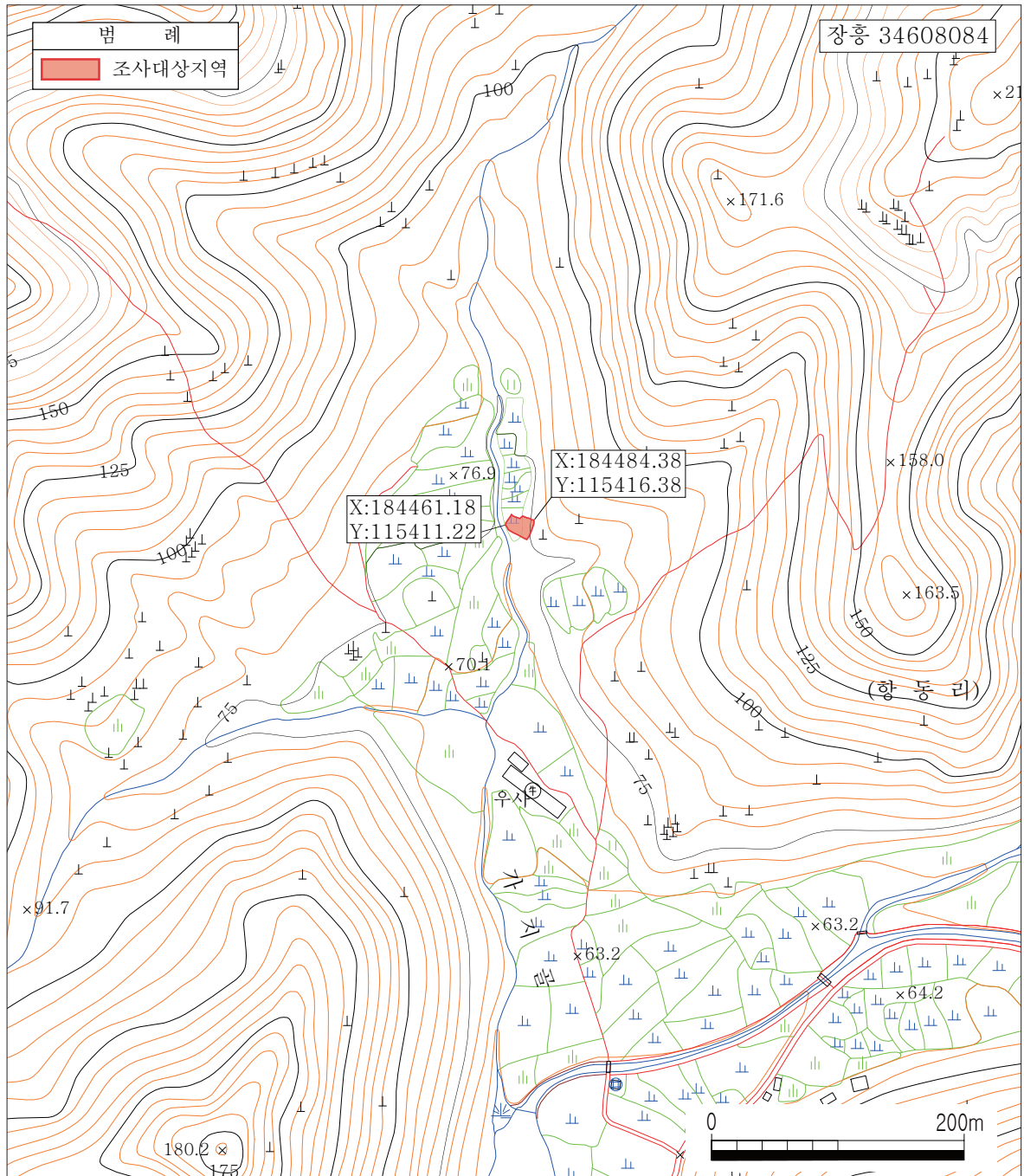
IV. 調查內容

1. 靑瓷窯址
2. 가마 퇴적층
3. 遺物의 科學的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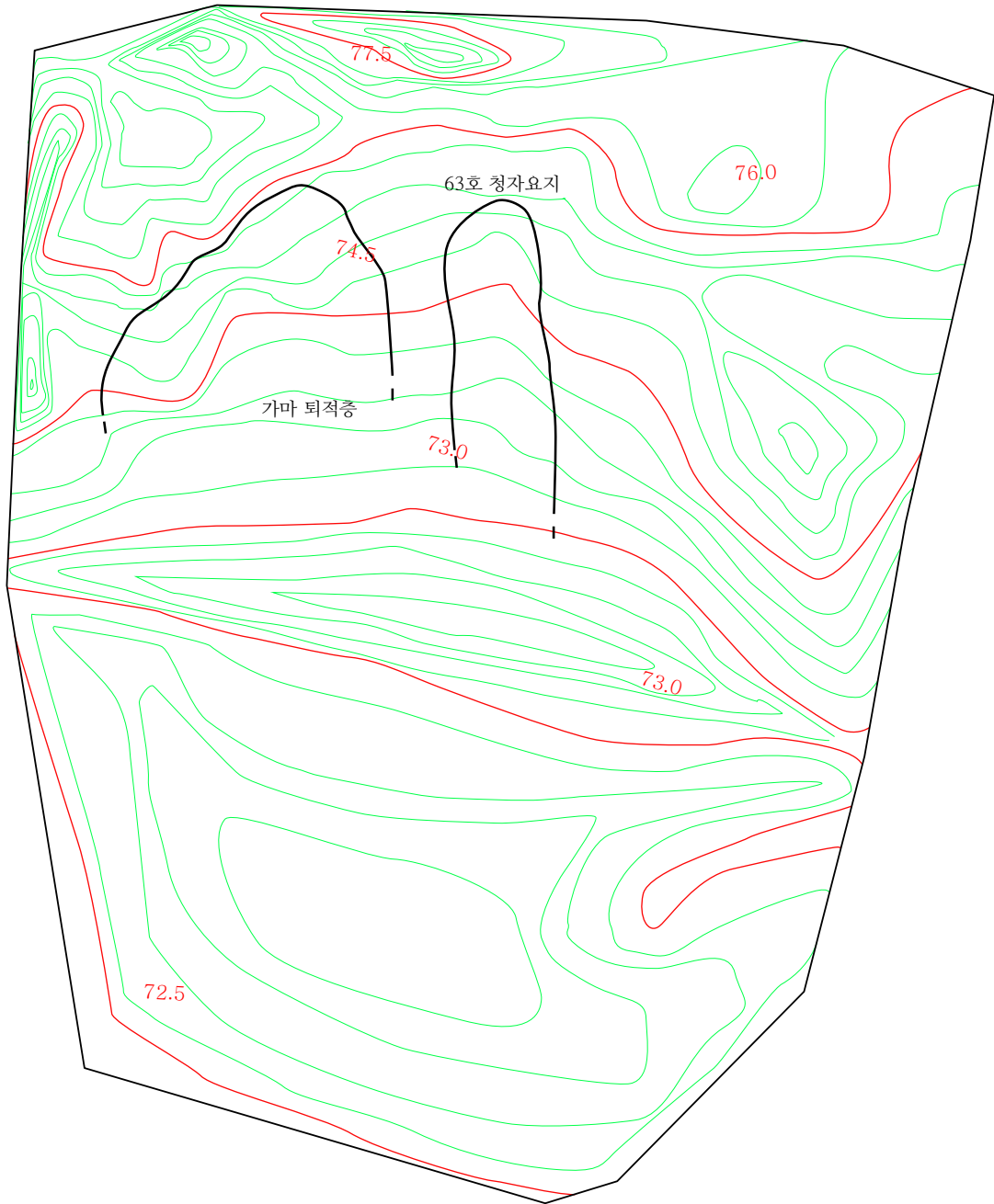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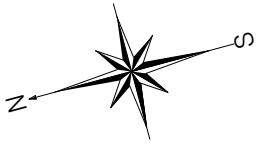


IV. 調査内容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는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84번지의 해발 77m 내외의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청자요지 1기와 퇴적층 1개소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후대의 경작과 묘지 조성 등으로 많은 부분이 삭평되어 유구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도면 12. 조사지역 지형도(1/5,000)



도면 13. 조사지역 유구 배치도

1. 靑瓷窯址

요장은 작은 곡간부를 경계로 구분되어 경작지와 사면 경계부에 갑밭과 청자 파편 등이 퇴적되어 있다. 가마 위쪽은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아래쪽은 작은 계류가 흐르며 계류 단면에서도 청자 파편 등이 수습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경작을 위한 개간이 많이 이루어져 유적의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사진 14.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원경

가마는 표토층을 제거하자 벽체와 소결 흔적이 확인되었다. 가마는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잔존 규모는 길이 550cm, 너비 130cm 내외, 깊이 50cm로 남아있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72° E)이며 가마 바닥의 평균 경사도는 18° 정도이다. 가마의 구조는 지표면을 일부 파고 축조한 반지하식 單室 登窯로 대부분 유실되어 번조실 일부만 남아 있다. 가마 뒷부분의 자연 암석에 그을음 흔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가마의 끝부분으로 추정되나 뚜렷하지 않아 연도부의 구조도 파악할 수 없었다. 가마 내부는 가마 벽체 파편들이 그대로 함몰되어 있으며, 그 위에 흑갈색사질 점토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가마의 조사는 유구 중앙에 30cm 너비의 ‘+’자 독을 설정한 다음 내부 퇴적토를 제토하면서 진행하였다. 가마의 잔존 상태와 경사도를 고려하여 요전부와 봉통부가 현재 경작면보다 깊게 위치할 가능성도 있어 너비 50cm의 탐색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였으나 하상 퇴적으로 인한 자갈층과 모

래층만 확인되어 경작을 위한 개간으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번조실은 잡석이 포함된 지표면을 굴광한 다음 판 후 조성하였으며, 흙을 이용하여 좌우 벽체와 천장을 궁륭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는 20cm 내외의 점토를 가로 방향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덧바른 보수 흔적이 관찰된다.

벽체와 바닥은 불에 익어 소결되었다. 번조실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단면은 'U' 형태를 띠고 있다. 가마 내부에서는 2점의 청자완과 2점의 갑발이 출토되었다.



사진 15.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전경

가마 내부의 퇴적 양상은 3개 층으로 구분된다. I 층은 암갈색사질토로 현재 표토층으로 얇게 형성되어 있다. II 층은 적갈색사질토로 소토와 벽체, 갑발이 혼입되어 퇴적되었으며, III 층은 암흑색사질토로 소토와 벽체가 혼입되었다. II 층과 III 층은 가마가 폐기되는 과정에 형성된 층으로 판단된다.



도면 14.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평·단면도



사진 16.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조사전(①), 조사중(②), 단축 토층(③·④)



사진 17.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조사중(①), 가마 벽체(②·③), 장축 토층(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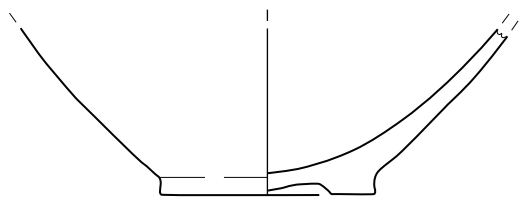
사진 18.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조사완료(①), 가마 내부 출토유물(②~④)

- 가마 내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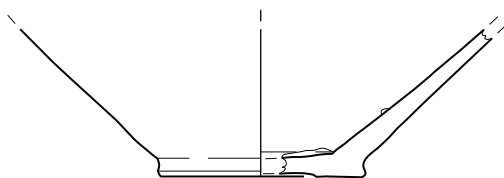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1	완	-	3 (1.3)	-	무	회백색	청백색	(4.4)	.	5.6	0.4~0.6	빙렬, 굽딴음, 내면 저부 일부 산화
2	완	-	3 (1.3)	-	유 (4.0)	회백색	청백색	(3.9)	.	5.4	0.3~0.7	빙렬, 내면 저부 잡물
3	갑발	A	-	-	-	흑갈색	-	10.2	20.3	20.2	0.7~1.1	바닥 중앙 내화토 흔적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이 뚫려 있음. 부분적 자연유 흐름. 상면 찌그러짐
4	갑발	A	-	-	-	흑갈색	-	9.2	(22.0)	(19.1)	0.9~1.4	외면 자연유 흐름, 갑발의 접지면 흔적, 저부 갑باط편 부착



사진 19.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내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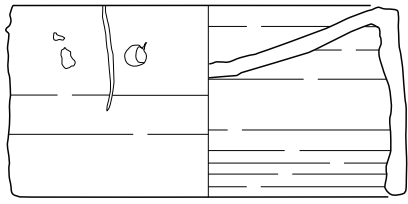


1



2





3



4



2. 가마 퇴적층

퇴적층은 가마 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따로 수혈을 파지 않고 경사진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대의 경작과 산사면에 위치하여 자연적인 유실 등에 의해 잔존 상태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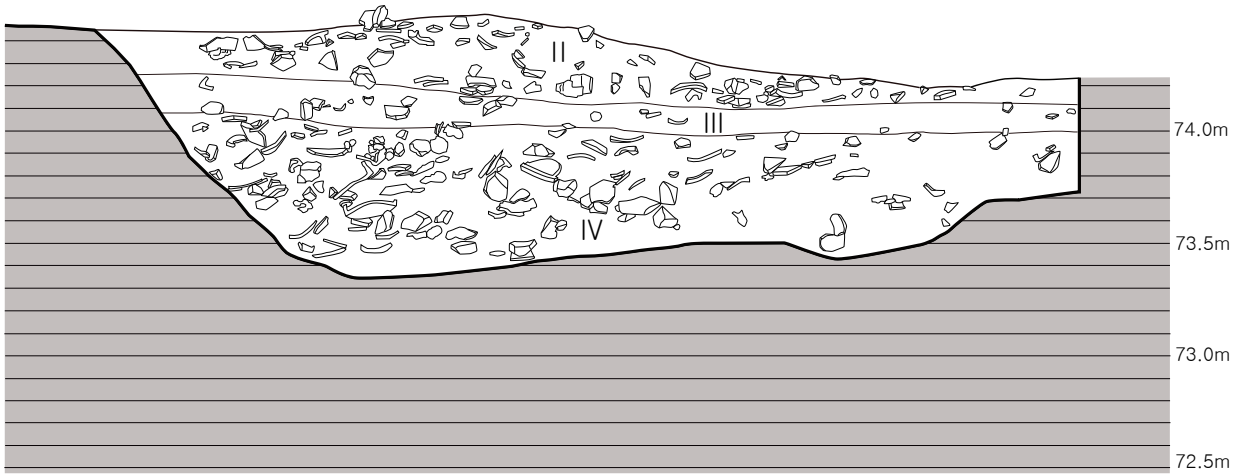
퇴적층의 조사는 먼저 전체 윤곽을 확인 한 뒤 ‘+’독을 설치한 다음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퇴적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높은 부분에 중심축을 두고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가마와 퇴적층의 이격 거리는 20cm 내외이며, 깊이는 250cm 정도이다. 평면 형태는 부정형으로 퇴적양상은 가마의 중심 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퇴적 양상은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며, 가장 후대의 I층은 퇴적층을 파괴하고 형성된 층이며, II층은 가마 사용 시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폐기층으로 발과 완, 접시, 잔, 이호, 뚜껑, 병 등이 많으며 번조 과정에 사용되었던 갑발과 갑발 받침, 도침 등의 요도구가 출토되었다. III층은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일정한 두께로 소토와 벽체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IV층은 퇴적량이 가장 많으며 발과 완, 접시, 병의 자기류와 도기류가 퇴적되어 있으나, 퇴적의 중심이 요도구인 갑발과 갑발 받침의 비율이 높아 요도구가 퇴적의 중심을 이루는 초기 청자 가마터의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0.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전경



사진 21. 가마 퇴적층 단축 토층



<토층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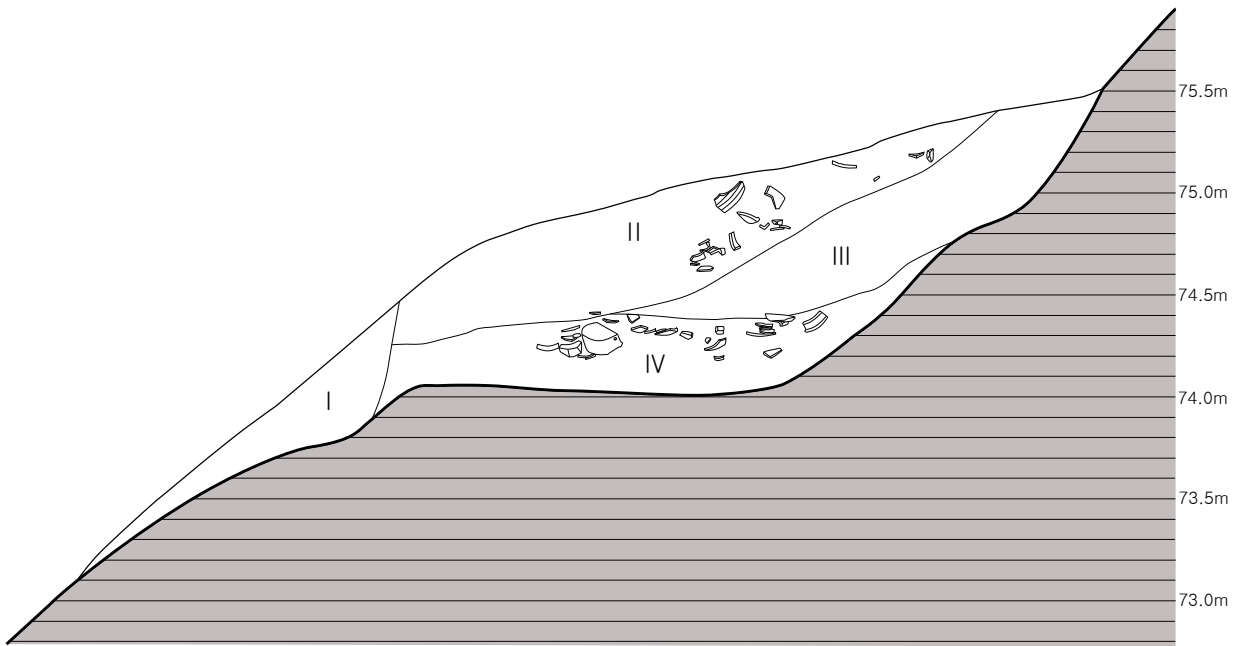
- II. 암갈색사질토(도청·갑발 등의 요도구와 벽체편이 다수 확인됨. 대다수의 청자편을 폐기한 층)
- III. 적갈색사질토(유물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으며 소토와 석재가 다수 확인됨)
- IV. 암갈색사질토(II 층과 같은 양상임)



도면15. 가마 퇴적층 단축 토층도



사진 22. 가마 퇴적층 장축 토층



<토층주기>

- I. 황갈색사질토(후대 가마폐기장을 파괴하고 형성됨)
- II. 암갈색사질토(도청·감발 등의 요도구와 벽체편이 다수 확인됨. 대다수의 청자편을 폐기한 층)
- III. 적갈색사질토(유물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으며 소토와 석재가 다수 확인됨)
- IV. 암갈색사질토(II 층과 같은 양상임)



도면 16. 가마 퇴적층 장축 토층도



사진 23.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조사전



사진 24.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전경(①), I층(②)·II층(③)·IV층(④) 조사완료 후 전경



사진 25.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가마 퇴적층 출토유물



사진 26.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가마 퇴적층 조사전(①), 조사중(②~④), 조사완료(⑤)

- 가마퇴적 I 층 출토유물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발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5	발	A	2	내화도	무	회백색	청백색	7.7	18.0	7.3	0.3~0.7	빙렬 포개 구워 깨진편 내외면 부착 내저면 내화도 부착
6	발	-	5	내화도	무	암회색	담록색	(2.9)	-	7.5	0.5~1.1	빙렬
7	발	B	1	-	음각선대	회백색	청록색	7.8	14.0	7.2	0.3~0.7	빙렬, 내면 일부 잡물 묻음
8	발	-	2	내화도	무	회백색	청백색	(4.1)	-	(6.5)	0.4~0.7	빙렬, 내저면 내화도 부착
9	발	-	4	내화도	음각선대	회백색	청백색	(6.7)	-	7.4	0.2~1.1	빙렬, 내저면 산화 외면 백색 내화도 부착
10	발	-	4	내화도	-	회백색	청백색	(2.4)	-	6.5	0.3~0.7	빙렬, 내저면 잡물이 묻음
11	발	-	3	-	음각선대	회백색	청록색	(5.3)	-	7.9	0.4~1.1	굽 일부 산화, 내저면 내화도 부착
12	발	-	4	-	음각선대	회백색	산화됨	(3.0)	-	6.9	0.3~0.7	굽깎음, 내외면 산화
13	완	E	1 (0.3)	내화도 (-, 3)	유 (2.5)	회백색	청백색	3.9	(15.2)	3.4	0.2~0.5	기형 뒤틀림, 모란이 양인각됨 윤형굽(?)
14	완	-	2 (0.8)	내화도 (-, 4)	무	암회색	담록색	(4.9)	-	6.0	0.4~1.0	빙렬, 내외면 부분적으로 산화
15	완	C	2 (0.8)	내화도	무	암회색	담록색	5.1	(14.2)	5.0	0.3~0.8	빙렬, 굽뒀음, 내면 산화 잡물이 묻어 있음
16	완	-	2 (0.9)	-	희미 (2.0)	회백색	-	(4.6)	-	5.8	0.2~0.7	굽뒀음 외면 부분적으로 산화
17	완	B	2 (0.8)	내화도	무	회백색	청백색	5.2	(15.7)	5.8	0.2~0.9	빙렬 내면 갑발편 부착
18	완	-	3 (1.0)	-	무	암회색	담록색	(2.4)	-	5.7	0.5~0.7	빙렬, 굽뒀음
19	완	-	3 (1.0)	내화도	무	회백색	청백색	(2.5)	-	5.6	0.4~0.7	빙렬, 굽뒀음, 내부 일부 잡물 묻음
20	완	-	3 (1.2)	내화도	무	회백색	청백색	(5.6)	-	(5.9)	0.2~0.7	빙렬
21	완	-	2 (0.9)	내화도	무	회백색	청백색	(3.8)	-	(6.1)	0.5~1.0	빙렬
22	완	-	2 (0.7)	내화도	무	암회색	담록색	(3.1)	-	5.8	0.4~0.6	빙렬, 굽깎음, 굽뒀음 내면 일부 산화됨 내면 잡물이 묻음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23	완	-	2 (1.0)	내화토	무	회백색	청백색	(3.3)	-	(5.4)	0.2~0.7	빙렬, 내면 잡물이 묻음
24	완	F	1 (0.3)	내화토	유 (3.0)	적갈색	회록색	(4.8)	-	(4.7)	0.2~1.0	빙렬, 굽뒤음, 내면 잡물 묻음
25	완	D	2 (0.7)	내화토 (-, 3)	희미 (3.5)	회백색	청백색	6.0	16.0	5.9	0.3~0.8	빙렬
26	완	E	3 (1.3)	내화토	유 (3.5)	회백색	청록색	5.2	(16.7)	5.2	0.2~0.9	
27	완	C	3 (1.0)	-	무	회백색	청백색	5.7	(14.5)	(6.2)	0.2~1.0	굽뒤음, 내외면 산화
28	완	E	2 (0.9)	내화토	유 (3.0)	회백색	청록색	6.0	(15.4)	(5.2)	0.3~0.8	빙렬, 굽뒤음, 내외면 일부 산화
29	완	-	2 (0.9)	내화토	희미 (2.0)	회백색	청백색	(4.1)	-	5.0	0.3~0.8	빙렬, 굽뒤음, 내면 내화토받침 有
30	완	-	2 (0.7)	-	희미 (2.5)	회백색	청백색	(3.7)	-	5.4	0.2~0.7	빙렬, 굽갸음, 굽뒤음 내면 일부 산화
31	완	-	2 (0.8)	-	희미 (4.0)	회백색	청백색	(3.1)	-	5.2	0.3~0.7	빙렬, 내외면 산화
32	완	-	2 (0.9)	내화토	희미 (4.0)	회백색	청백색	(2.5)	-	5.4	0.4~0.6	빙렬
33	완	-	3 (1.2)	-	희미 (3.5)	회백색	청록색	(4.1)	-	(5.4)	0.3~0.8	빙렬, 굽뒤음
34	완	-	3 (1.4)	내화토	유 (4.0)	회백색	청록색	(3.4)	-	5.2	0.4~0.7	빙렬, 내면 잡물 묻음
35	완	E	3 (1.1)	-	유 (4.0)	회백색	산화됨	6.2	(15.0)	5.2	0.2~0.7	내외면 전면 산화
36	완	-	3 (1.0)	-	유 (3.0)	회백색	청백색	(4.2)	-	(5.5)	0.3~0.8	빙렬, 굽뒤음, 내외면 산화
37	완	-	3 (1.5)	-	무	적갈색	-	(3.1)	-	(5.4)	0.4~0.8	
38	뚜껑	A	-	-	-	회청색	청백색	(2.4)	-	(18.9)	0.4~0.8	빙렬
39	접시	G	-	-	-	적갈색	-	(3.7)	(15.0)	-	0.3~0.5	초벌편
40	화형 접시	D	a	내화토	음각선대	회백색	청백색	3.4	11.1	5.9	0.2~0.4	빙렬, 내저면 백색 내화토 부착, 외측면에서 세로를 길게 눌러 花形 표현
41	화형 접시	D	a	내화토	음각선대	회백색	청백색	3.5	(10.7)	(5.0)	0.3~0.7	빙렬, 외측면에서 세로를 길게 눌러 花形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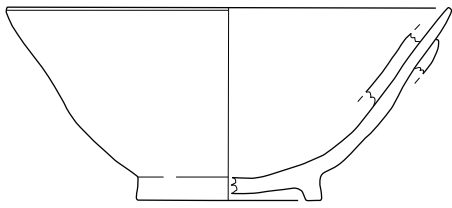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42	화형 접시	D	a	-	-	회백색	청백색	(2.9)	-	-	0.3~0.5	빙렬, 외측면에서 세로를 길게 놀려 花形 표현
43	접시	G	b	내화토	유	회백색	청록색	(3.7)	-	6.1	0.2~0.6	내저면 내화토와 깨진편 부착
44	접시	-	a	내화토	무	회청색	청백색	(2.2)	-	(7.6)	0.4~0.7	빙렬 내저면 내화토 부착
45	접시	-	a	-	음각선대	회청색	담록색	(2.1)	-	(7.0)	0.3~1.0	빙렬
46	접시	-	a	무	-	회청색	청백색	(1.8)	-	7.9	0.5~0.7	빙렬 내저면 내화토 부착
47	접시	-	a	내화토	음각선대	회청색	청백색	(1.9)	-	5.5	0.5~0.7	빙렬, 내외면 용융상태 불량, 내저면 내화토 부착
48	접시	-	a	내화토 (3, 3)	음각선대	회청색	청백색	(1.8)	-	5.0	0.2~0.5	빙렬 내저면 내화토 부착
49	접시	D	a	내화토	무	회청색	담록색	3.3	(10.9)	6.0	0.2~0.4	빙렬
50	접시	H	a	-	유	회청색	-	4.0	(14.6)	(17.2)	0.2~0.7	내외면 산화
51	접시	B	a	-	무	회청색	청백색	3.3	(16.0)	(7.4)	0.3~0.8	내외면 산화
52	접시	F	a	-	음각선대	회청색	청백색	3.2	(12.2)	(6.4)	0.2~0.8	빙렬, 굽 산화
53	접시	A	a	-	-	회청색	-	2.9	(12.0)	(6.2)	0.3~0.8	내외면 산화
54	접시	A	a	내화토	무	회청색	청백색	3.5	(14.8)	(5.8)	0.2~0.8	빙렬
55	접시	E	a	내화토	음각선대	회청색	청백색	2.9	(13.1)	(6.3)	0.3~0.8	빙렬 내저면 내화토 부착
56	접시	C	a	-	무	회청색	청백색	3.4	(10.8)	(5.5)	0.4~0.9	빙렬, 내외면 잡물부착
57	잔	A	-	-	무	회청색	청백색	7.6	(13.0)	(5.4)	0.2~0.5	빙렬, 외면 용착흔적 내면 벽체면 부착, 내저면 받침흔적 확인되지 않음
58	잔	B	-	내화토	무	회청색	청록색	6.9	(10.0)	(6.0)	0.2~0.8	빙렬, 내면 잡물 부착 내저면 받침흔적 확인되지 않음
59	잔	A	-	-	무	회청색	청백색	(4.9)	-	5.2	0.3~0.5	빙렬, 내면 갑발 부착
60	잔	D	-	내화토	무	회청색	청백색	(4.7)	-	(5.1)	0.4~0.7	빙렬, 내면 잡물 부착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61	잔	B	-	내화토	무	회청색	청백색	(4.4)	-	(5.3)	0.3~0.5	빙렬 내저면 내화토 부착
62	잔	C	-	-	무	회청색	청백색	(5.5)	(11.6)	-	0.3~0.7	빙렬, 잡물부착 내외면 용융상태 불량 내저면 받침흔적 확인되지 않음
63	잔	E	-	내화토	음각선대	회청색	-	(3.0)	-	4.4	0.3~0.7	빙렬, 내외면 산화 내면잡물 부착. 내저면 받침흔적 확인되지 않음
64	잔	E	-	내화토 (-, 4)	무	회청색	청백색	(1.9)	-	4.9	0.4~0.7	빙렬, 내저면 받침흔적 확인되지 않음
65	호편	A	-	-	-	회청색	청백색	(2.3)	-	-	0.5~0.8	빙렬
66	뚜껑	B	-	-	-	적갈색	청백색	3.1	(4.9)	(10.7)	0.5~0.8	빙렬, 부분적 산화 내외면 용융상태 불량
67	병	A	-	-	-	회청색	청백색	(2.7)	(7.2)	-	0.3~0.5	빙렬, 구연부 잡물 부착 용융상태 불량
68	병	B	-	-	-	회청색	담록색	(3.3)	-	(11.0)	0.5~0.8	외면 유약 산화, 내면 유약이 시유되지 않음
69	병	B	-	-	-	회청색	담록색	(4.9)	-	(9.5)	0.4~0.8	외면 유약 산화, 내면 유약이 시유되지 않음
70	병	-	-	-	-	회청색	청백색	(6.1)	-	-	0.5~0.8	빙렬, 내면 유약이 시유되지 않음
71	병	-	-	-	-	회청색	청백색	(9.4)	-	-	0.5~1.6	빙렬, 내면 유약이 시유되지 않음
72	구연부	A	-	-	-	회청색	-	(4.2)	(21.2)	-	0.6~0.7	경질
73	구연부	B	-	-	-	회청색	-	(3.4)	(14.5)	-	0.3~0.4	경질
74	구연부	B	-	-	-	회청색	-	(3.1)	(13.3)	-	0.3~0.4	경질
75	구연부	C	-	-	-	회청색	-	(4.4)	(11.5)	-	0.3~0.7	경질, 내면 자연유
76	구연부	F	-	-	-	회백색	-	(5.4)	(30.0)	-	0.4~0.5	연질
77	구연부	E	-	-	-	회백색	-	(4.8)	(26.4)	-	0.3~1.0	
78	구연부	G	-	-	-	회백색	-	(5.6)	(46.0)	-	0.3~0.5	연질
79	구연부	G	-	-	-	회백색	-	(3.5)	(38.6)	-	0.3~0.3	연질
80	구연부	D	-	-	-	회청색	-	(4.5)	(23.5)	-	0.4~0.5	경질
81	구연부	D	-	-	-	회청색	-	(4.2)	(18.6)	-	0.3~0.4	경질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82	저부	-	2 (0.9)	무	무	회백색	-	(2.7)	-	(6.0)	0.4~0.7	연질
83	저부	-	3 (1.1)	무	무	회백색	-	(3.9)	-	(6.1)	0.3~0.7	연질
84	저부	-	B (병)	-	-	적갈색	암흑색	(3.1)	-	(9.0)	0.5~0.7	내면 유약시유되지 않음, 외면 산화됨
85	저부	-	-	-	-	적갈색	암흑색	(5.9)	-	(10.1)	0.3~0.5	내면 유약시유되지 않음, 빙렬
86	저부	-	-	-	-	회청색	-	(3.6)	-	(18.2)	0.5~1.1	경질
87	저부	-	-	-	-	회청색	-	(3.7)	-	(18.1)	0.5~1.1	경질
88	저부	-	-	-	-	회백색	-	(4.6)	-	(23.0)	0.5~1.1	경질
89	저부	-	-	-	-	회청색	-	(5.6)	-	(17.4)	0.4~1.2	경질, 내면 자연유 외면 기포 형성됨
90	저부	-	-	-	-	회백색	-	(1.9)	-	(22.0)	0.5~1.4	경질
91	저부	-	-	-	-	회청색	-	(3.1)	-	(12.8)	0.7~1.2	경질, 외면 자연유
92	갑발	A	-	-	-	흑갈색	-	10.9	22.8	23.3	0.5~1.3	외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바닥 중앙 내화토 흔적 상면 가장자리에 갑발 접지면 흔적 있음 저부에는 굽음모래 등의 가마 바닥재가 있음
93	갑발	B	-	-	-	흑갈색	-	7.7	16.0	15.2	0.4~1.1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가장자리에 갑발 접지면 흔적 있음 바닥면 중앙에 그릇을 올려 놓아 얇은 흙이 형성
94	갑발편	A	-	-	-	회백색	-	9.4	23.1	21.3	0.5~0.9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95	갑발편	A	-	-	-	흑갈색	-	10.4	(21.4)	(20.0)	0.7~1.2	상면 청자편 부착
96	갑발편	A	-	-	-	흑갈색	-	9.9	(21.9)	(21.6)	0.5~1.1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 뚫려 있음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97	갑발편	A	-	-	-	회백색	-	10.0	(22.2)	(21.3)	0.6~1.7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구멍이 뚫려 있음
98	갑발편	A	-	-	-	흑갈색	-	(8.3)	(21.2)	-	0.7~2.0	상면 자연유 흐름 갑발 접지면 흔적 있음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99	갑발편	A	-	-	-	흑갈색	-	10.7	(22.7)	(22.7)	0.5~1.4	외면 자연유 흐름 부분적으로 산화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100	갑발편	A	-	-	-	회백색	-	(7.1)	(22.5)	-	0.4~1.0	상면 자연유 흐름 측상면 사선문 타날 상면 가장자리에 갑발 접지면 흔적 있음
101	갑발편	B	-	-	-	흑갈색	-	(8.3)	(21.0)	-	0.5~1.3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102	갑발편	A	-	-	-	흑갈색	-	10.9	(22.6)	(20.8)	0.6~1.7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이 뚫려 있음.
103	갑발편	A	-	-	-	흑갈색	-	(4.8)	(22.6)	-	0.6~1.0	외면 자연유 흐름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이 뚫려 있음, 상면 가장자리에 갑발 접지면 흔적있음
104	갑발편	A	-	-	-	흑갈색	-	(4.0)	(22.3)	-	0.6~0.8	외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105	갑발편	B	-	-	-	회백색	-	(7.3)	(18.8)	-	0.6~1.0	외면 자연유 흐름 측상면 격자문 타날
106	갑발편		-	-	-	흑갈색	-	(9.7)	-	-	0.6~1.0	자연유 흐름
107	갑발편	A	-	-	-	회백색	-	(5.5)	(22.3)	-	0.5~0.9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측상면 사선문 타날
108	갑발편	B	-	-	-	흑갈색	-	(7.3)	(20.2)	-	0.4~1.3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이 뚫려 있음
107	갑발편	A	-	-	-	회백색	-	(5.5)	(22.3)	-	0.5~0.9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측상면 사선문 타날
108	갑발편	B	-	-	-	흑갈색	-	(7.3)	(20.2)	-	0.4~1.3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이 뚫려 있음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109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4	(22.8)	(18.2)	1.0~1.2	저부에 가마 바닥재 부착 내면 접합흔 확인
110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4.1	(23.9)	(20.8)	1.0~1.8	상면 자연유 흐름, 내면 접합흔, 손누름 흔적 상면 가장자리 갑반 접지면 흔적 있음
111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8	(21.3)	(17.4)	0.9~1.1	내면 접합흔
112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2	(24.0)	(22.5)	0.9~1.3	상면 자연유 흐름, 내면 접합흔, 손누름 흔적
113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9	(22.6)	(21.3)	1.2~1.7	상면 자연유 흐름, 내면 가마 벽체편 부착
114	도침	A	-	-	-	흑갈색	-	11.0	10.3	-	-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내화토 흔적
115	도침	A	-	-	-	흑갈색	-	12.5	11.9	-	-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그릇 올려 놓았던 흔적 남아 있음
116	도침	A	-	-	-	흑갈색	-	12.2	12.7	-	-	상면 그릇 올려 놓았던 흔적 남아 있음
117	도침	A	-	-	-	흑갈색	-	11.8	12.8	-	-	상면 그릇 올려 놓았던 흔적남아 있음 바닥면은 가마바닥의 경사도에 맞추어 기울어져 있음
118	도침	B	-	-	-	흑갈색	-	11.5	12.5	-	-	기형이 일그러짐
119	도침	B	-	-	-	흑갈색	-	9.5	13.5	-	-	반파됨 바닥에 갑발편이 부착
120	도침	B	-	-	-	흑갈색	-	6.3	(11.3)	-	-	기형이 일그러짐
121	도침	A	-	-	-	흑갈색	-	8.8	13.5	-	-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내화토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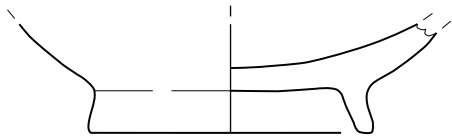
5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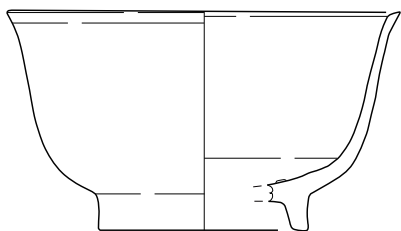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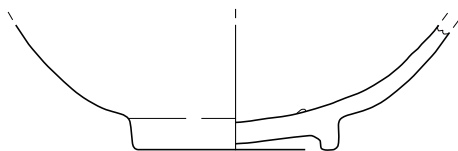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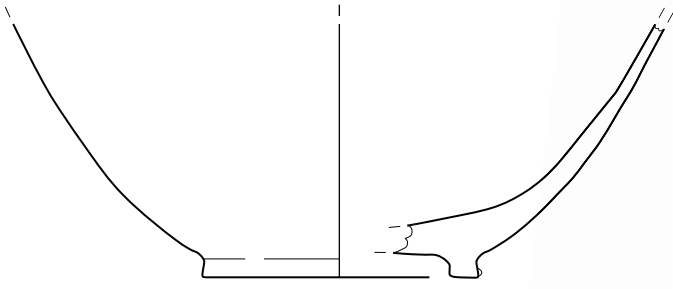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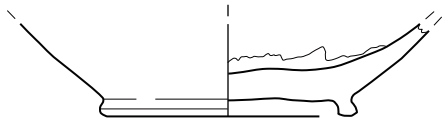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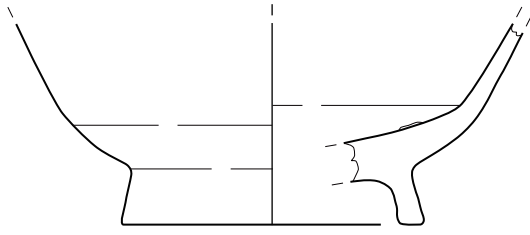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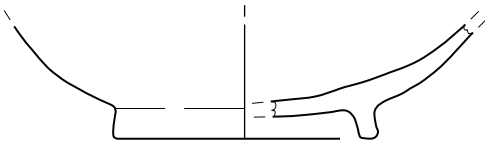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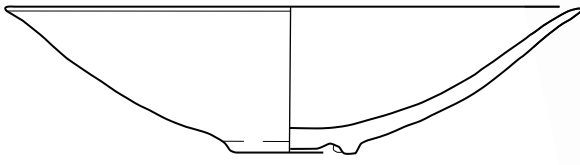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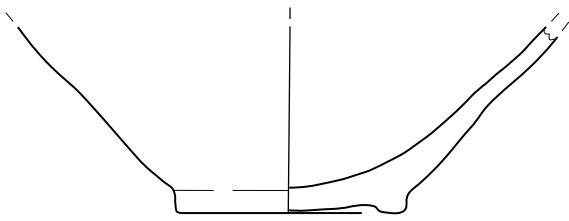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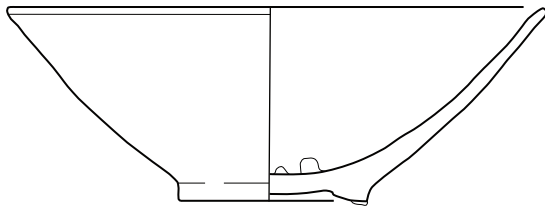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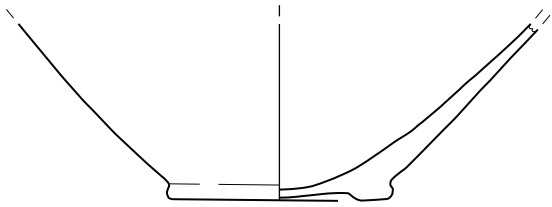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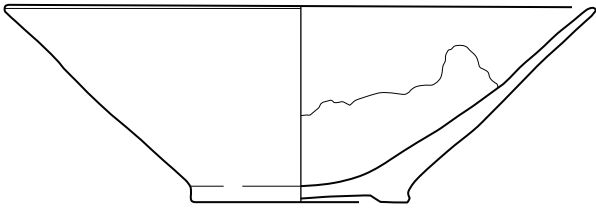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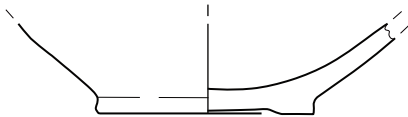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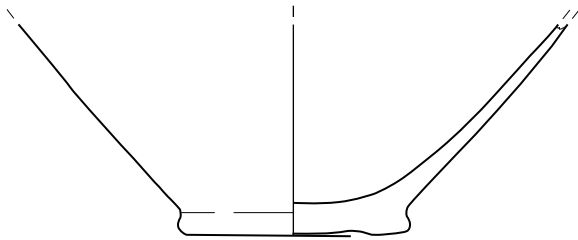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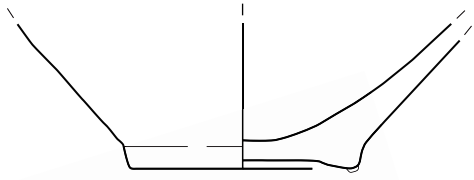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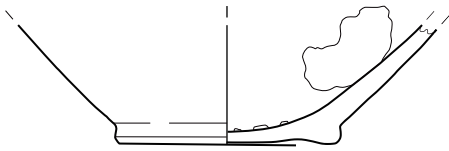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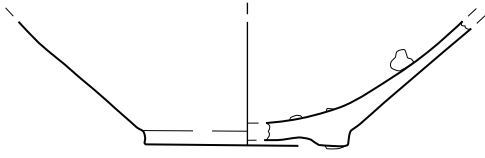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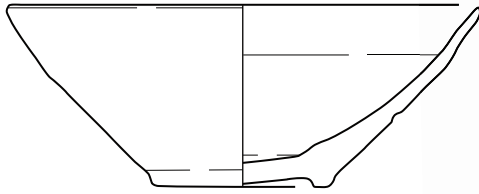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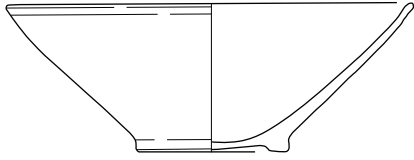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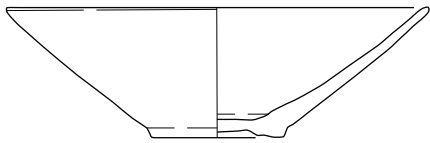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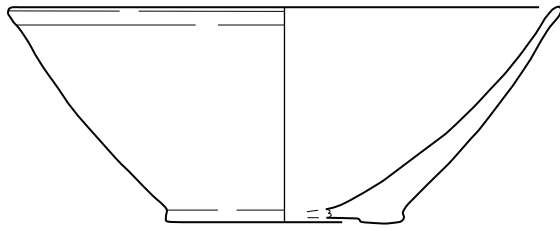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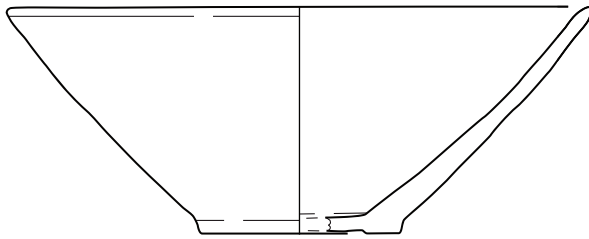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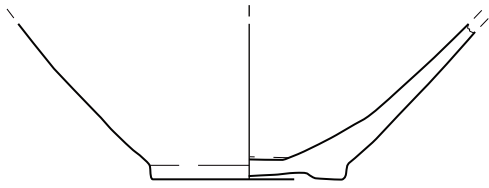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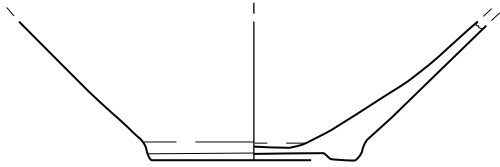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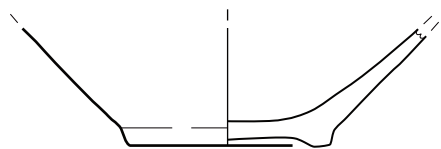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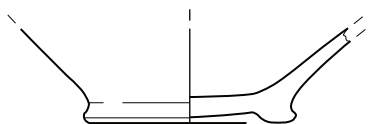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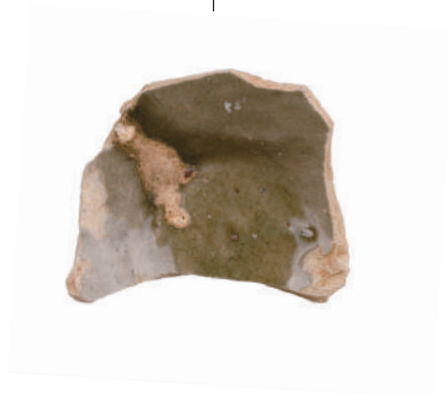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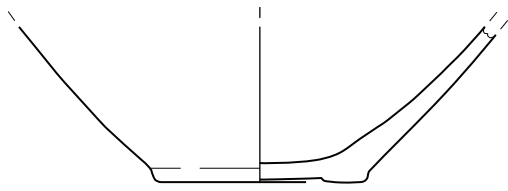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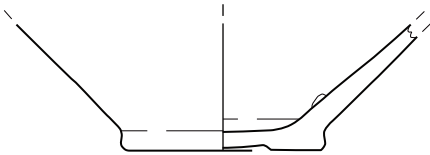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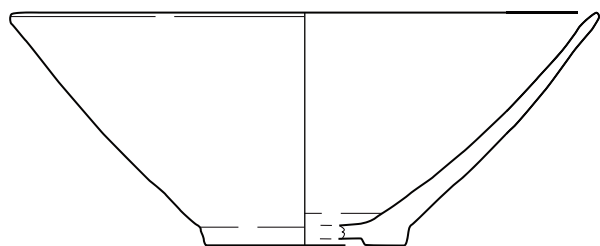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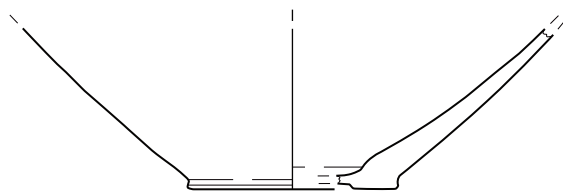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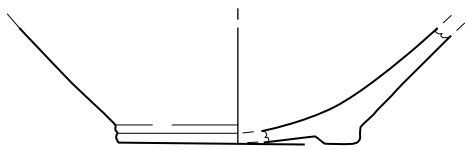


3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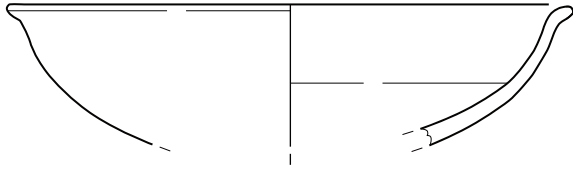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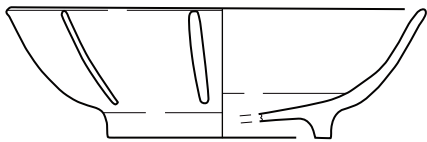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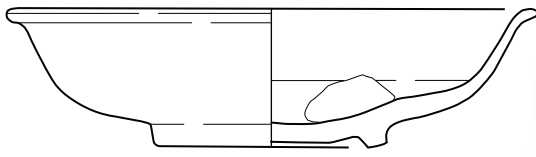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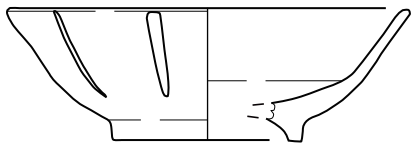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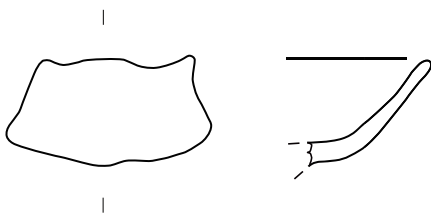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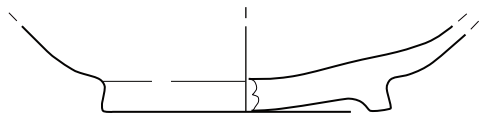


41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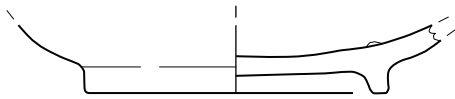


4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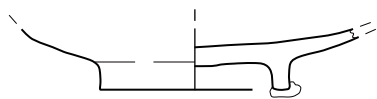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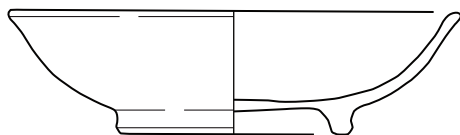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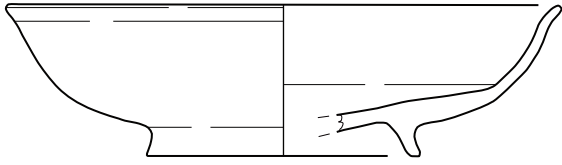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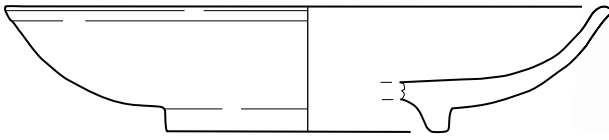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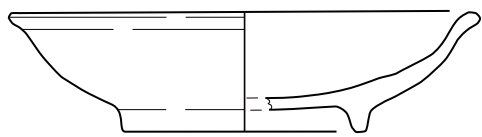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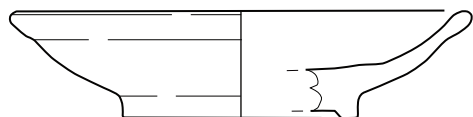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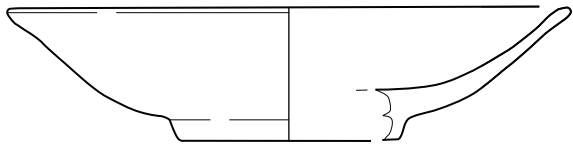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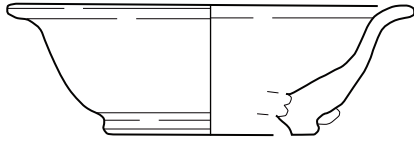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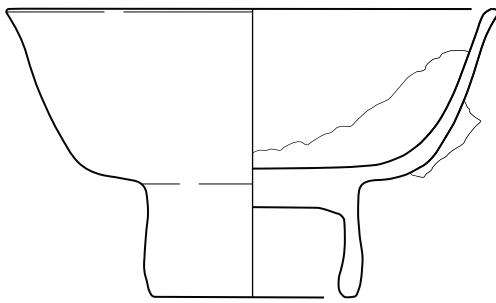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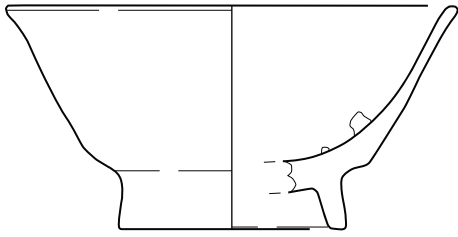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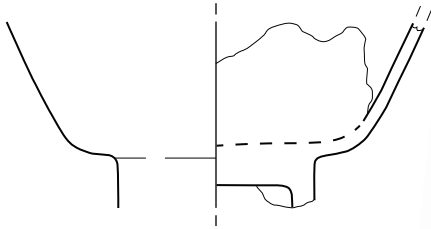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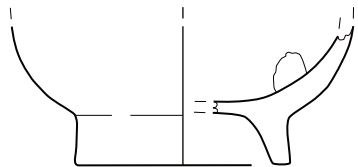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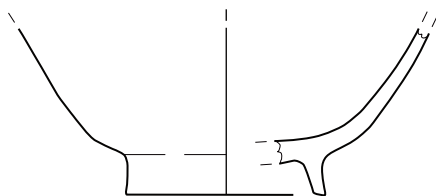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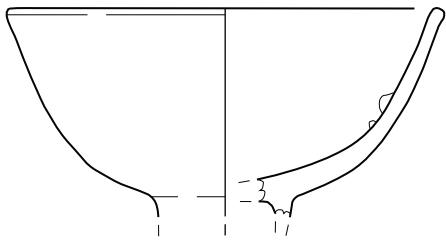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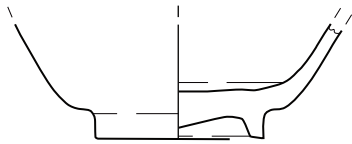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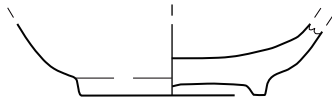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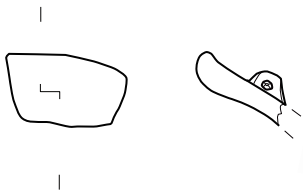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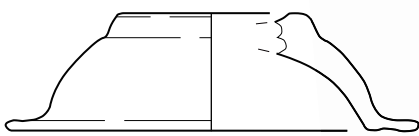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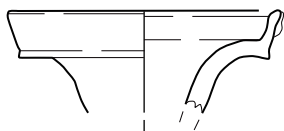
64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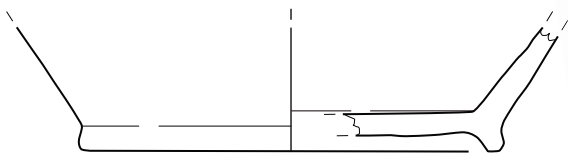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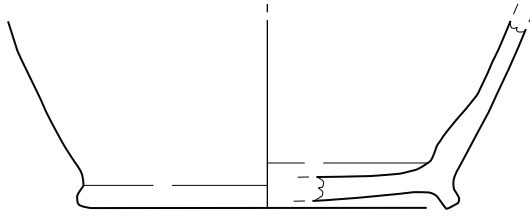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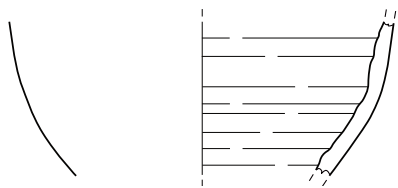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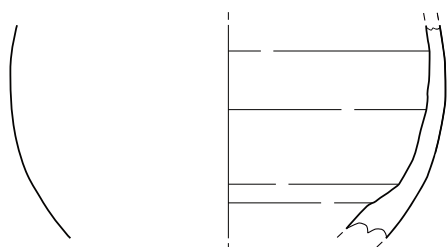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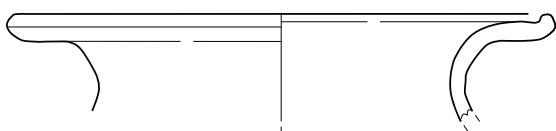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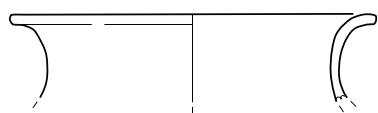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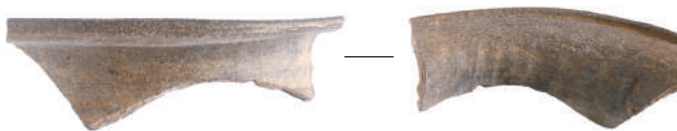
7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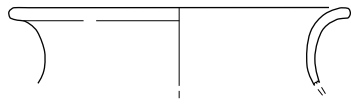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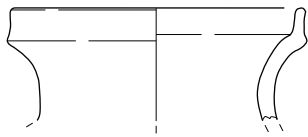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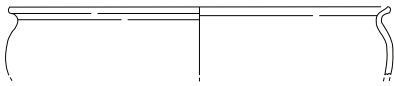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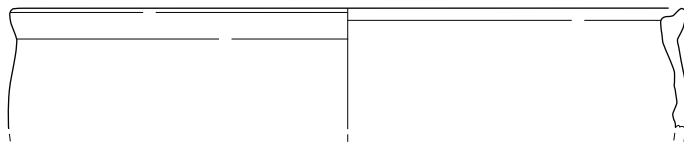
7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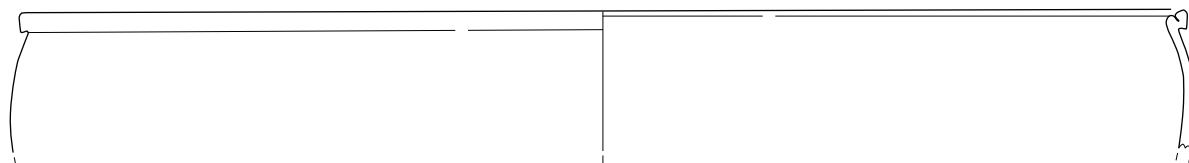


7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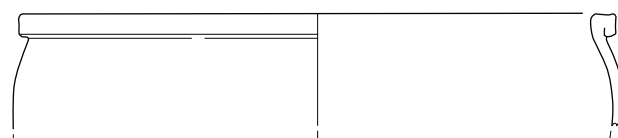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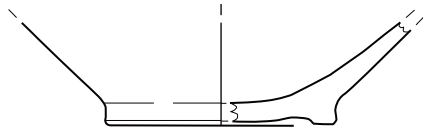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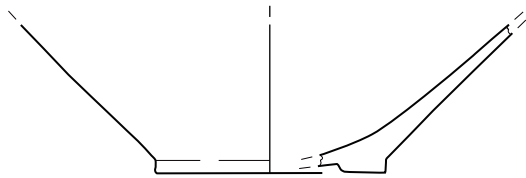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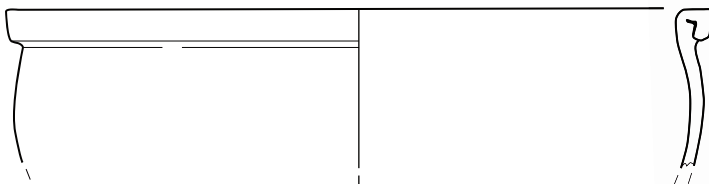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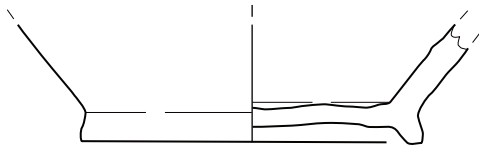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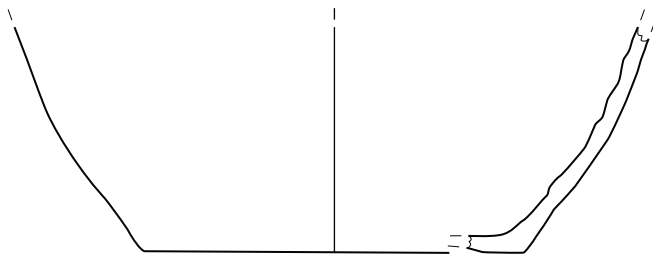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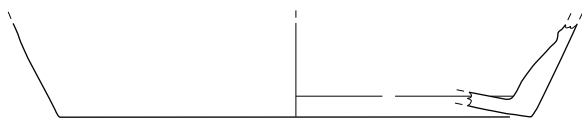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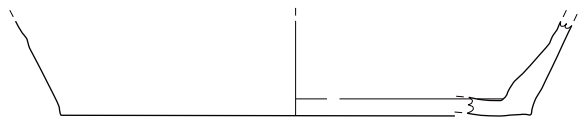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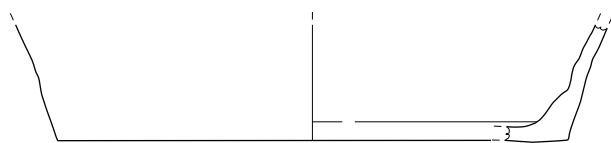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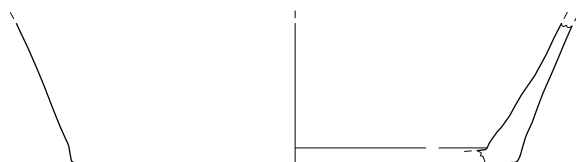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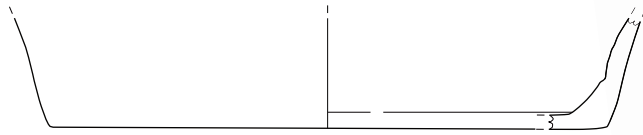


88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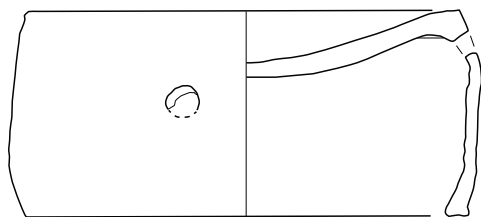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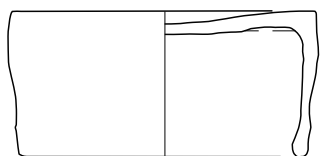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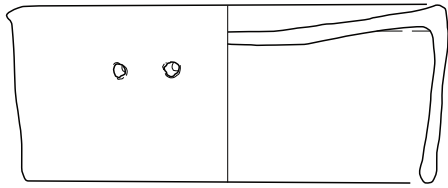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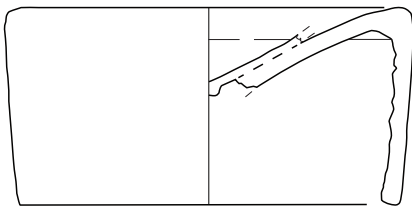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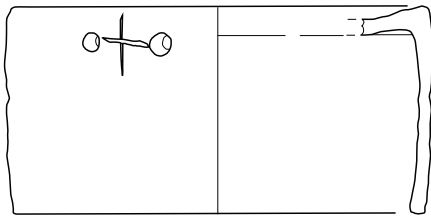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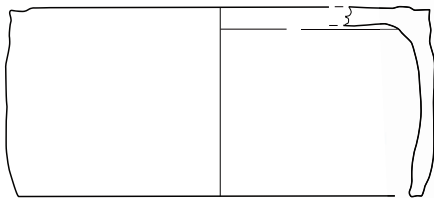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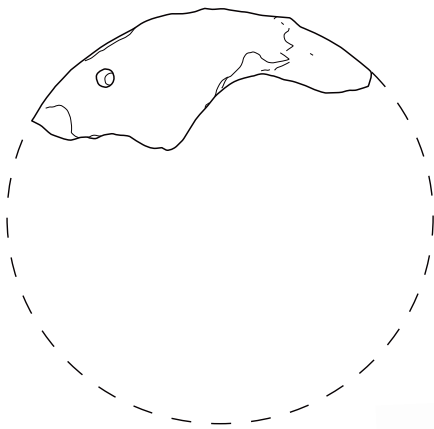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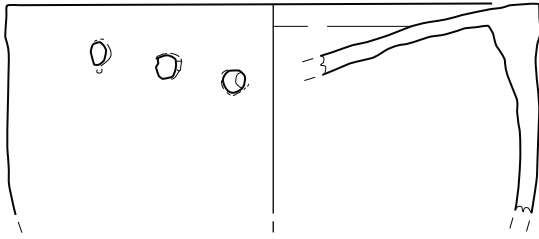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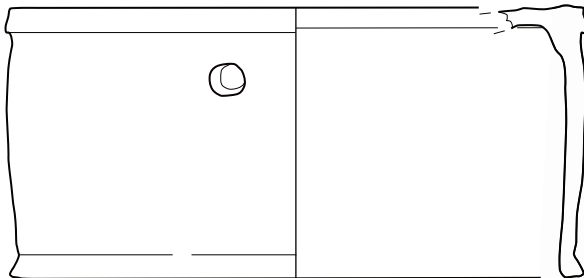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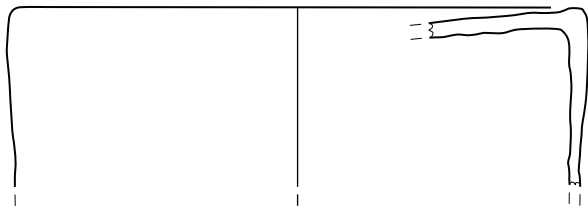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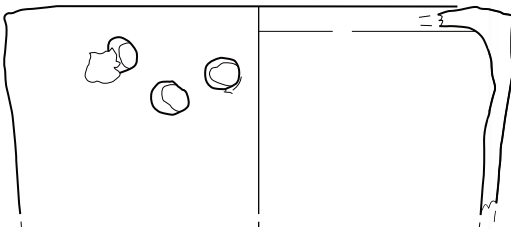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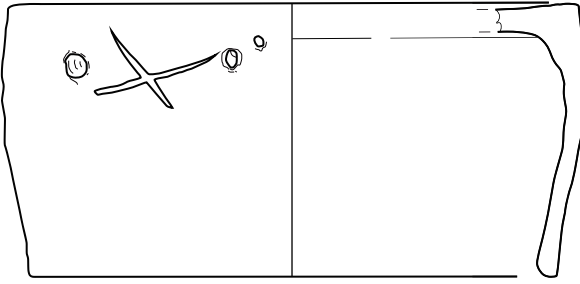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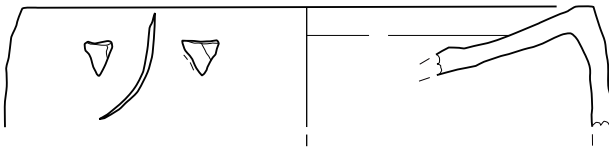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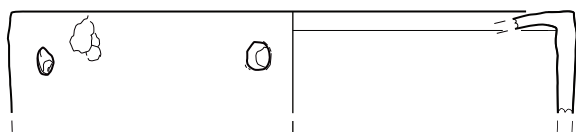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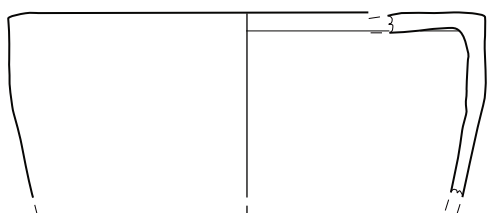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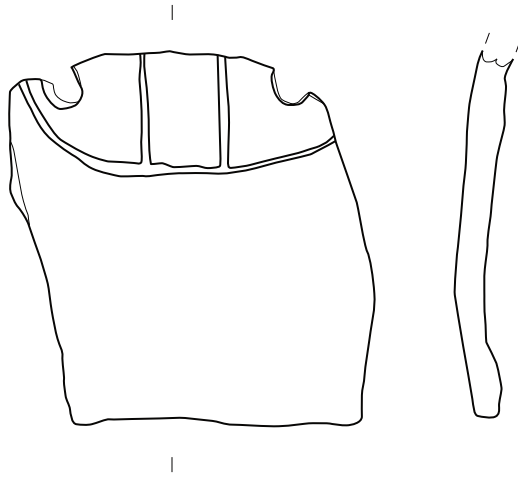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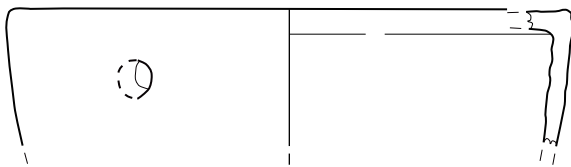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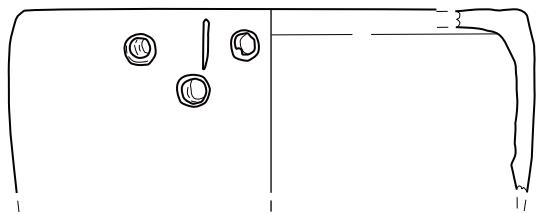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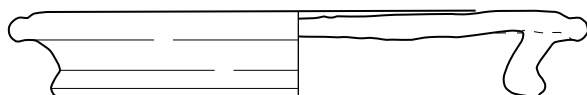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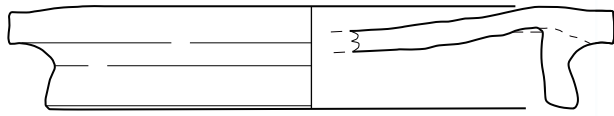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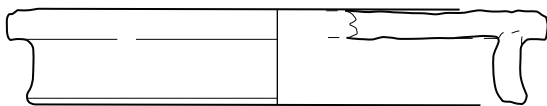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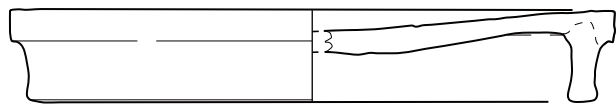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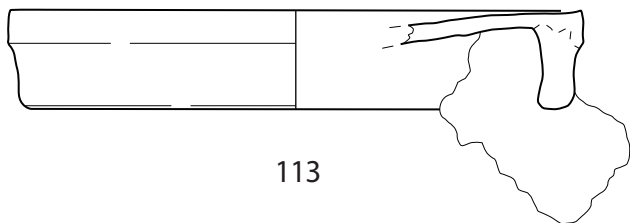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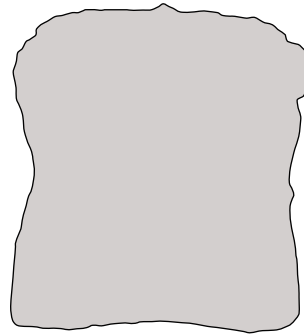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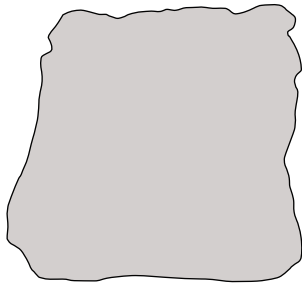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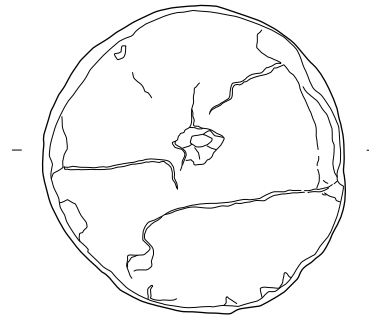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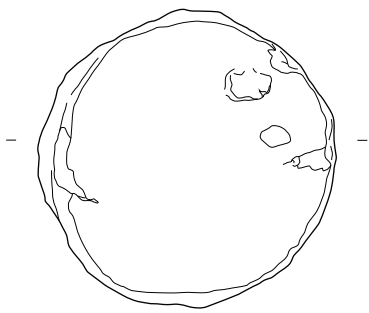


112



113





114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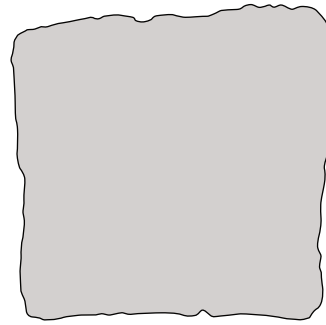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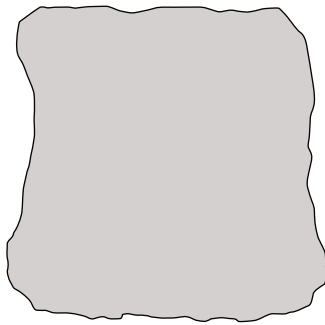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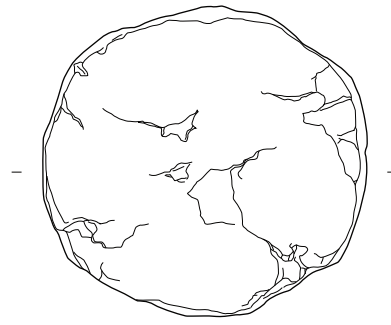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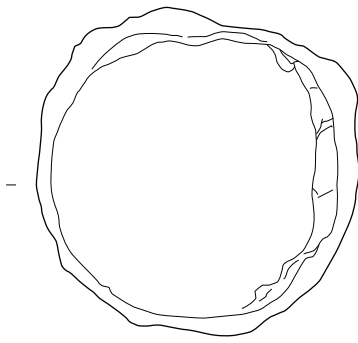


114



115





116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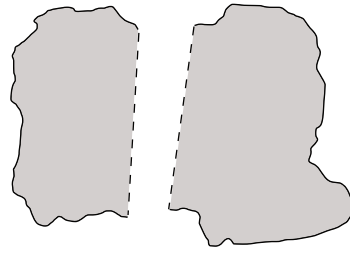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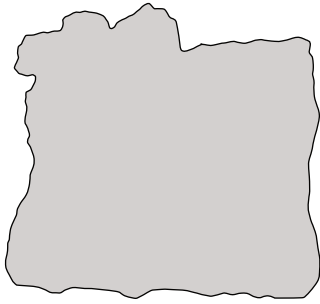


116



117





118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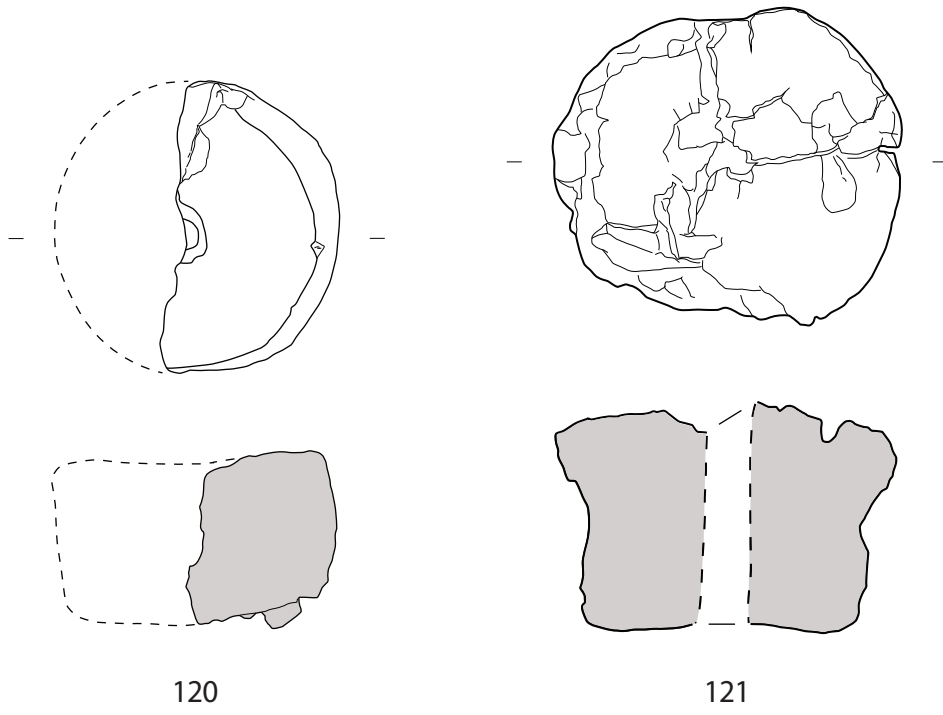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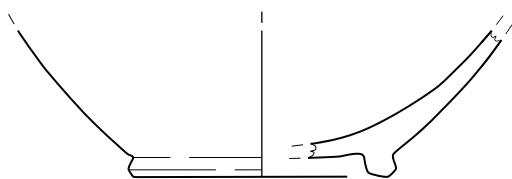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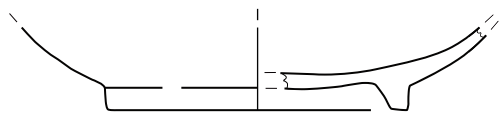


- 가마퇴적 II 층 출토유물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122	발	-	4	-	무	연갈색	-	(3.9)	(12.6)	(6.8)	0.4~0.9	굽깊음
123	접시	-	a	내화토	무	회청색	청백색	(2.2)	-	(8.0)	0.3~0.6	빙렬, 내지면 내화토 부착
124	접시	-	a	내화토	-	회청색	청백색	(1.0)	-	(6.5)	0.3~0.5	빙렬, 내지면 내화토 부착
125	병	A	-	-	-	회청색	청백색	(2.8)	(7.0)	-	0.4~0.8	빙렬
126	동체부	-	-	-	-	회청색	-	(11.0)	-	-	0.4~0.5	내외면 박자흔
127	갑발	-	-	-	-	회백색	-	(9.4)	-	-	0.5~0.8	자연유 흐름, 상면 가장자리 갑발 접지면 흔적 있음, 측면 '大' 명문과 구멍 뚫려 있음
128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8	(24.3)	(20.2)	0.8~1.0	상면 산화, 내면 접합흔, 전체적으로 잡물 부착
129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7	(21.1)	(17.2)	1.0~1.4	부분적 산화, 저부 잡물 부착
130	도침	A	-	-	-	흑갈색	-	12.0	11.7	-	-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내화토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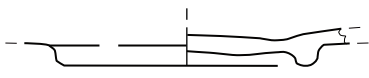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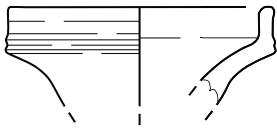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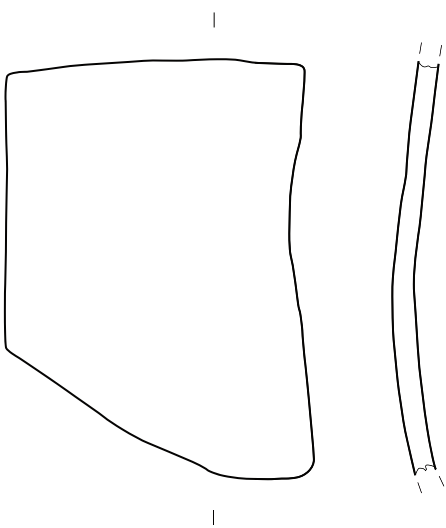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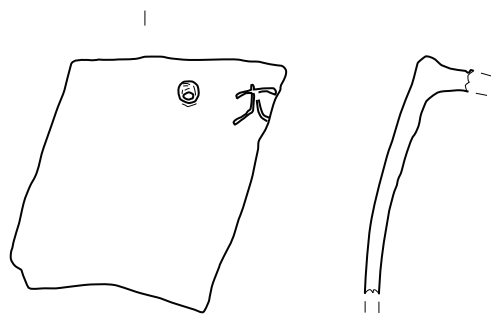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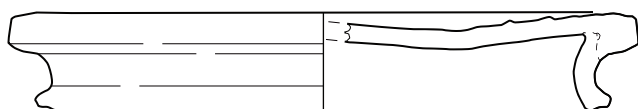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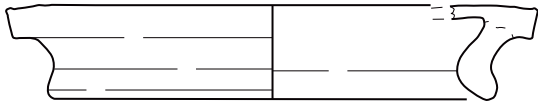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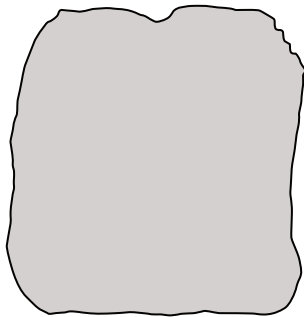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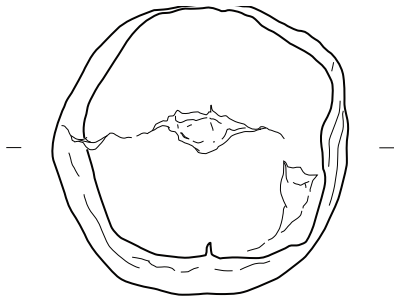


128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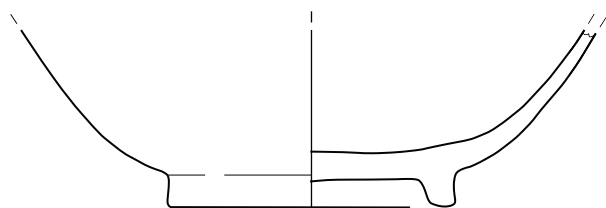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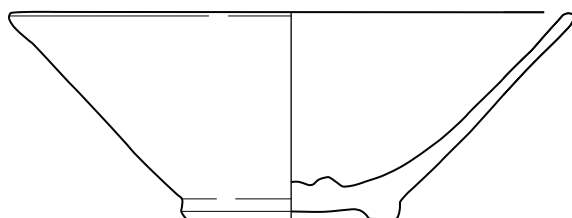
- 가마퇴적 IV층 출토유물

연번	기종	기형	굽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131	발	-	4	무	무	회백색	청백색	(4.7)	-	(7.5)	0.3~0.8	빙렬
132	완	B	2 (0.8)	내화토 (-, 3)	무	회백색	청백색	5.4	(14.9)	(5.1)	0.3~0.8	빙렬, 내외면 산화, 내면 벽체면 붙어있음
133	완	-	2 (0.8)	내화토 (-, 3)	무	회백색	청백색	(4.4)	-	(5.9)	0.3~0.7	빙렬, 내면 기포 있음, 외면 유약 산화
134	완	A	2 (0.8)	내화토	무	회백색	청백색	4.7	(14.7)	(5.1)	0.3~0.8	빙렬, 굽딴음, 굽에 잡물 묻음
135	완	-	2 (0.8)	내화토	무	회백색	청백색	(2.3)	-	(5.3)	0.5~0.8	빙렬, 내외면 산화, 내면 잡물 묻음
136	완	-	3 (1.0)	-	무	연갈색	-	(3.7)	-	(6.2)	0.3~0.9	초벌편
137	뚜껑	A	-	-	-	회청색	-	(24.0)	(19.0)	-	0.3~0.5	빙렬, 내면 용융상태 불량
138	접시	-	a	내화토	무	회청색	청백색	(1.3)	-	(5.2)	0.3~0.5	빙렬, 내저면 내화토 흔적
139	잔	E	-	내화토 (-, 3)	무	회청색	청백색	(2.3)	-	(5.2)	0.4~0.8	빙렬, 내저면 내화토 흔적, 외면 용착 흔적
140	병	A	-	-	-	회청색	청백색	(1.7)	(7.4)	-	0.3~0.7	빙렬
141	구연부	G	-	-	-	암흑색	-	(2.7)	-	-	0.3~1.2	연질
142	저부		-	-	-	회청색	-	(5.3)	-	(25.0)	0.4~1.2	경질
143	갑발	A	-	-	-	회백색/	-	11.2	(23.3)	(22.5)	0.5~0.9	자연유 흐름, 바닥 중앙 내화토 흔적, 상면 가장자리 갑발편 부착,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이 뚫려 있음
144	갑발	A	-	-	-	회백색/	-	(6.0)	(23.4)	-	0.6~1.2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가장자리 갑발 접지면 흔적, 측상면 각자문 타날, 측면 구멍이 뚫려 있음
145	갑발	A				회백색/		9.8	(32.1)	(30.9)	0.4~1.0	전면 자연유 흐름, 상면 잡물 부착

연번	기종	기형	급유형 (너비)	받침 (내, 외)	원각 (너비)	색조	유약	제원(cm)				비고
								높이	구경	저경	두께	
146	갑발	A	-	-	-	회백색	-	9.8	(20.8)	(19.4)	0.7~1.6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가장자리 갑발 접지면 흔적, 중앙 내화토 흔적,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 뚫려 있음
147	갑발	A	-	-	-	회백색	-	10.7	(22.1)	(20.5)	0.6~1.4	전면 자연유 흐름, 상면 가장자리 갑발 접지면 흔적,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 뚫려 있음
148	갑발	A	-	-	-	흑갈색	-	10.2	(24.4)	(23.0)	0.5~1.2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 뚫려 있음
149	갑발	A	-	-	-	흑갈색	-	6.7	(20.8)	(19.5)	0.5~0.8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구멍 뚫려 있음
150	갑발	A	-	-	-	흑갈색	-	(6.1)	(21.2)	-	0.6~1.4	상면 자연유 흐름, 측면 사선문 타날, 구멍 뚫려 있음
151	갑발	A	-	-	-	흑갈색	-	(7.9)	(23.6)	-	0.6~1.4	전면 자연유 흐름, 측면 격자문 타날, 구멍 뚫려 있음
152	갑발	A	-	-	-	흑갈색	-	(6.0)	(23.2)	-	0.7~1.0	자연유 흐름, 측면 음각기호와 구멍 뚫려 있음
153	갑발	A	-	-	-	흑갈색	-	(4.6)	(24.4)	-	0.6~1.5	상면 자연유 흐름, 상면 가장자리 갑발 접지면 흔적 있음, 측면 구멍 뚫려 있음
154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4	(22.1)	(18.0)	1.6~1.9	측면 자연유 흐름, 저부 가마 바닥재 부착
155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4	(22.5)	(21.2)	0.9~1.1	저부 가마 바닥재 부착
156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7	(23.6)	(20.4)	1.0~1.8	저부 가마 바닥재 부착
157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4.3	(23.3)	(21.4)	0.9~1.3	측면 자연유 흐름, 상면 가장자리 집물 부착
158	갑발 받침	-	-	-	-	흑갈색	-	3.7	(23.0)	(21.0)	0.9~1.4	상면 자연유 흐름, 저부 가마 바닥재 부착
159	도침	B	-	-	-	흑갈색	-	10.0	(14.8)	-	-	반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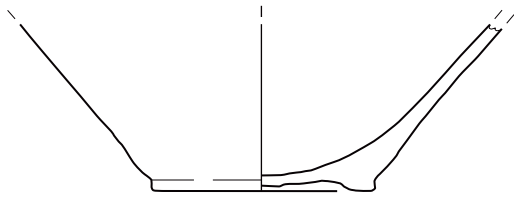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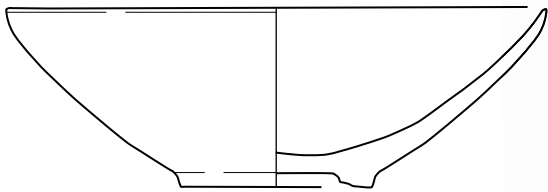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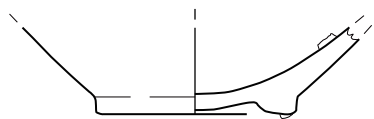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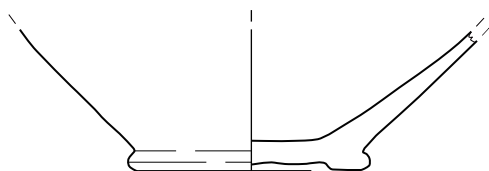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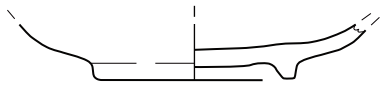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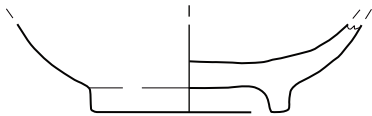


136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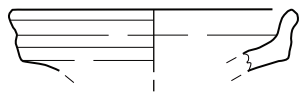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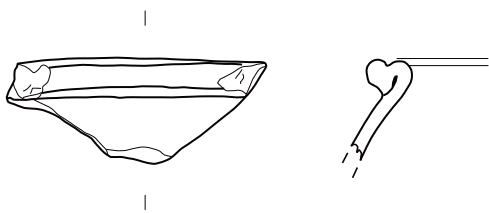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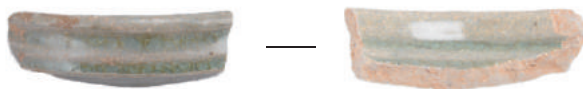


137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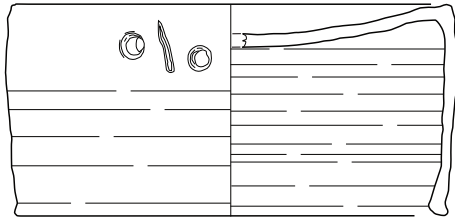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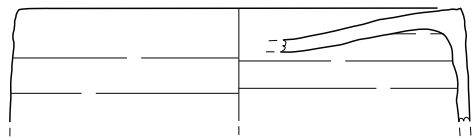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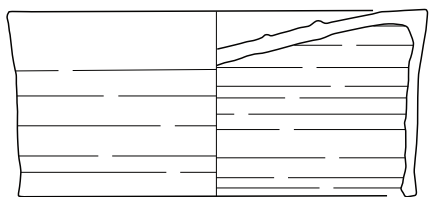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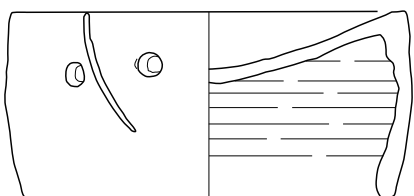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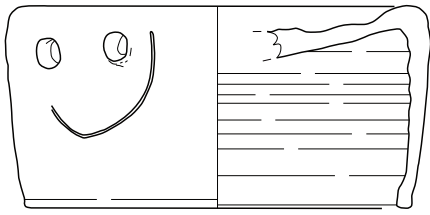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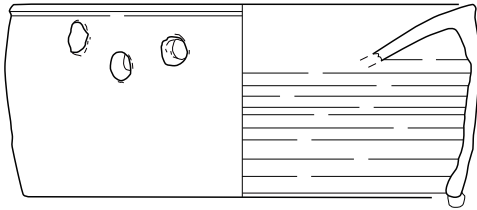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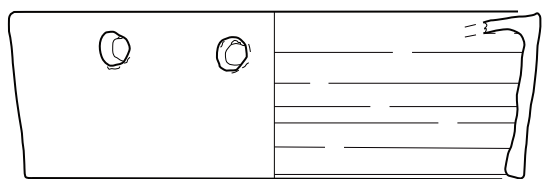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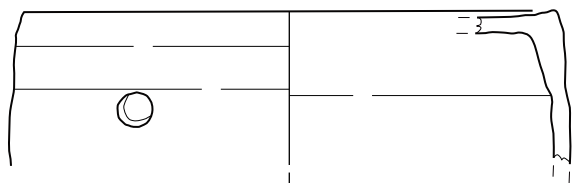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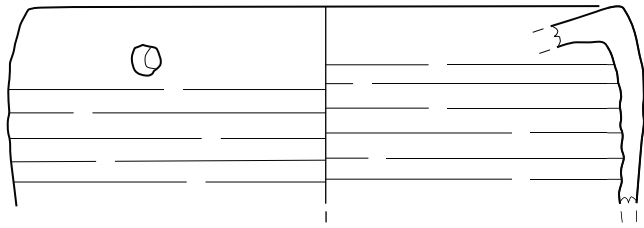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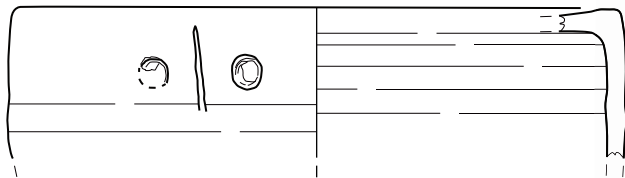


150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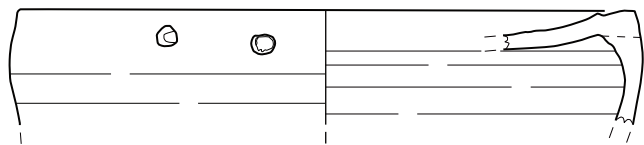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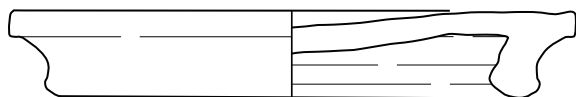


0 10cm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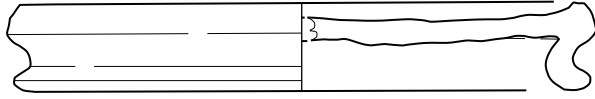


153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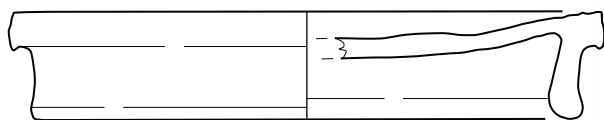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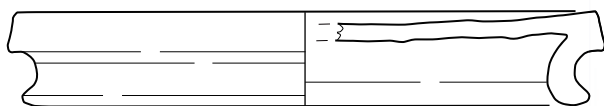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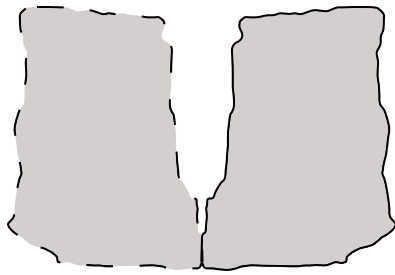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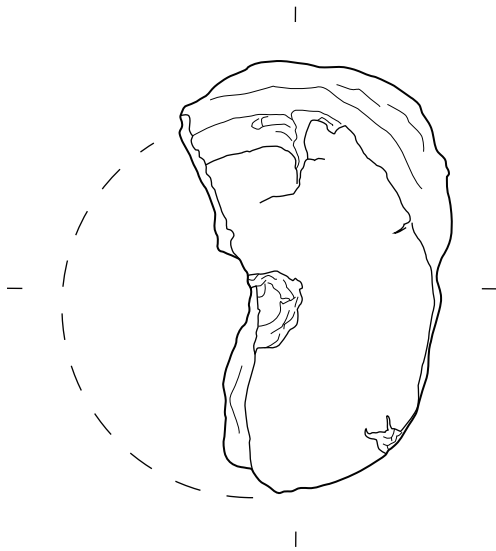


157



158





159



3. 遺物の科學的分析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분포하는 75기의 가마터 가운데 1기로 대구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용운리에 분포하는 청자요지들은 대부분 초기청자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보여주며, 용운리 63호 요지의 발굴조사에서도 가마의 일부를 비롯하여 많은 청자와 갑발 파편 등 초기청자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 출토되었다.

초기청자 요지인 용운리 63호 요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해무리굽 청자완과 갑발, 갑발 받침 등은 미술사학적 연구 자료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도 초기청자를 제작하였던 원료 특성을 비롯한 제작기술 등의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다. 특히, 생산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는 제작 시점의 기술적 특성과 변화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청자의 생산과 유통 관계에 접근하는 과학기술적 연구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청자요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분석연구는 생산지 유적인 청자요지의 제작기술 등과 더불어 그 변화 양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등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¹²²⁾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와 갑발 파편을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과학적 분석 대상은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가장 보편적인 청자와 갑발 파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청자는 가마 퇴적 I·II·IV층에서 출토된 것이고, 갑발은 가마 퇴적 I·III층에서 출토된 것이다. 분석 대상의 청자와 갑발 파편에 대한 외관상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자는 대부분 구연과 동체만 남아있는 파편이며, 많은 파편들이 청자완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자 파편은 대체로 치밀한 태토 조직으로 갈색 또는 회갈색을 띠고, 유층은 균열이 발생된 상태로 갈색 또는 녹갈색을 띠고 있다. 또한, 청자 파편은 층위를 기준으로 외관상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마 퇴적 I층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갈색계열의 색상으로 치밀한 태토 조직을 보이고, 유층도 대부분 갈색계열의 색상과 미세하게 발생된 균열들이 관찰된다. 가마 퇴적 II층의 청자들은 I층에서 출토된 청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회색 또는 회갈색의 태토와 녹갈색 또는 녹청색의 유층으로 청자의 발색에서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가마 퇴적 IV층의 청자는 대체로 가마 퇴적 II층에서 출토된 청자와 유사한 외관상 특징으로 관찰된다. 한편, 갑발 파편은 거칠고 불규칙적인 색상을 띠는 태토 조직으로 관찰되고, 갑발에 따라 유층의 형성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122) Prudence M. Rice, 1987, 『Pottery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과학적 분석 방법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청자와 갑발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과 광물조성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기기를 활용하였다. 청자와 갑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는 우선적으로 유층을 포함하는 표면층을 제거하고, 태토만을 瑪瑙乳鉢에서 분쇄하여 분말시료를 만들었다. 모든 태토의 분말시료는 120℃에서 건조하였다.

청자와 갑발의 태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회절분석기기(XRD, X-Ray Diffractometer, Rigaku D-MAX2500)를 이용하였고, 전압 40KV, 전류 30mA, Scanning speed 2°/min, full scale range 5000cps, 特性波長 $CuK\alpha(\lambda=1.5405 \text{ \AA})$, Ni-filter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자와 갑발의 태토에 대해 화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과 미량원소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Perkin Elmer Optima 3300RL)로 분석하였다.

2) 청자의 과학 기술적 특성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와 갑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분석결과는 <표 16·17>의 화학조성과 미량원소 함량, 그리고 X-선회절분석 결과인 <도면 23·24>와 같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근거로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청자제작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특성을 비롯하여 청자가 출토된 유구에 따라 제작기술의 변화양상도 살펴보았다.

(1) 청자의 화학적 특성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와 갑발의 태토를 화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은 표 2의 화학조성과 같다.¹²³⁾ 청자 태토의 화학조성에서 과학적 분석대상인 21점의 청자는 가마 퇴적의 층위에 따라 두드러진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층위에 따른 청자의 태토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태토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을 산성, 중성, 염기성 성분으로 나누고, 퇴적의 층위에 따른 청자의 태토 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¹²⁴⁾

청자의 태토조성에 대한 분포도는 <표 16>의 화학조성에서 중성 성분에 대한 분자수의 비율을 1로 설정하고, 산성과 염기성 성분의 비율로 나타낸 <도면 17>과 같다. 청자들이 출토된 가마 퇴적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용운리 63호지 청자들은 <도면 17>의 태토조성 분포도와 같이 산성 성분과

123) 화학조성에서 화학식으로 표기한 화학성분은 산화규소(SiO₂), 산화알루미늄(Al₂O₃), 산화철(Fe₂O₃),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칼슘(CaO), 산화나트륨(Na₂O), 산화칼륨(K₂O), 산화티타늄(TiO₂), 산화인(P₂O₅), 산화망간(MnO)이다. 본고에서는 화학성분의 명칭과 표, 그림에서 화학식으로 표기하였다.

124) 檜山眞平·磯松嶺造, 1976, 『陶器·磁器』日刊工業新聞社, p.61~72.
분자수의 함량비율에 따른 태토조성은 중성 성분(Al₂O₃), 산성 성분(SiO₂), 염기성 성분(MgO, CaO, Na₂O, K₂O)으로 구분한다. 중성과 산성 성분은 내화도가 높고, 염기성 성분은 용제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내화도를 떨어뜨린다.

염기성 성분에 대하여 비례 함량 관계를 형성하면서 분산된 태토 특성을 보인다.

청자의 태토조성에서 대부분의 청자들은 산성 성분 6몰, 염기성 성분 0.25몰을 중심으로 분산 균집을 이루고, 일부 청자들은 산성 성분의 함량 차이로 대부분의 청자와 구분되어 균집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일부 청자의 태토조성에서 보이는 산성 성분의 비율 차이는 태토를 구성하는 규석 광물의 함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용 원료의 특성 또는 태토의 제조기술에 변화가 부분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청자의 태토조성에 대한 분포 양상을 기초로 살펴보면 퇴적 I·II의 청자보다 퇴적 IV의 청자가 안정적인 태토의 제조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적을 달리하여 출토된 갑발들은 출토유구에 따라 태토조성을 달리하지 않고 모든 청자들과 유사한 태토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용운리 63호 요지의 갑발은 대체로 퇴적 층위에 따라 태토조성을 달리하지 않고, 청자와 유사한 원료 또는 태토 조합의 기술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자와 갑발의 태토조성에서 염기성 성분의 비율에 대한 양상을 각각의 청자와 갑발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염기성 성분들인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산화칼륨과 산화나트륨의 함량 분포를 살펴보았다. 염기성 성분들의 분포와 같이 청자와 갑발들은 산화칼슘과 산화나트륨의 낮은 함량 범위에 위치하고, 산화마그네슘과 산화칼륨의 높은 함량 범위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청자와 갑발은 비교적 균일한 비율의 염기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화칼륨의 함량에서는 일부 청자와 갑발에 따라 두드러진 함량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견운모 또는 장식광물의 함량과 관련된 원료 종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퇴적 I층에서 출토된 청자편(6번)은 산화칼슘과 산화나트륨의 비율에서 모든 청자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태토조성에서도 낮은 산성 성분의 비율로 같은 퇴적층에서 출토된 청자와 구분되었다. 이는 원료 특성만이 아니라 태토 조합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의 청자와 제조기술을 달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학적 분석 대상인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들은 대체로 갈색, 회갈색, 회색계열의 다양한 발색 변화를 보이지만, 갈색과 회갈색의 태토 색상을 띠는 청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자와 같은 요업 제품의 색상은 화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분과 번조 여건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태토 색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화학성분은 착색금속 산화물인 산화철, 산화티타늄 등이고, 또 다른 번조 조건은 번조 온도와 분위기이다. 화학적으로 청자의 색상은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의 함량 특성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기 위한 화학성분의 분포도는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용운리 63호 요지의 청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태토조성과 같이 청자가 출토된 퇴적 층위에 관계없이 구분되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 분산 균집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청자들은 산화철 2~3%, 산화티타늄 1% 함량 범위에 분산 균집으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분석된 고려청자의 화학적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²⁵⁾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퇴적 IV층의 청자들은 산화철의 함량 범위에서 다른 층위에서 출토된 청자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화학적 특성을 보인다. 더불어 갑발

125) 姜景仁, 2010, 「高麗靑瓷의 가마 構造와 色相變化」, 『靑瓷의 發色特性』 제12회 고려청자학술세미나, 康津靑瓷博物館, p.9~24.

들도 출토된 가마 퇴적에 따라 착색금속 성분의 함량을 달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자의 태토 특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청자와 갑발들은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의 함량 범위에서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청자의 제작에서 안정적인 사용 원료의 특성과 태토 제조의 기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정적인 착색금속 성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용운리 63호 요지의 청자들은 갈색, 회갈색, 회색 등 다양한 발색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자의 발색 변화에 착색금속 성분의 함량보다는 번조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견된다.

(2) 청자의 광물학적 특성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외관상 치밀한 태토 조직으로 양호하게 번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업 제품들은 번조되는 가열 온도의 변화와 부합하는 광물의 변화양상을 나타내면서 번조된 온도에 따라 瓷化되는 것으로 재질 상태가 결정된다. 갑발을 포함한 청자에 대한 자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X-선회절분석법(이하 XRD)의 분석결과는 <도면 23·24>와 같다.

청자와 갑발에 대한 보편적인 XRD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림과 같이 청자와 갑발의 태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 종류는 석영(α -Quartz), 크리스토팔라이트(Cristobalite), 물라이트(Mullite)이고, 청자에 따라 대부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높은 온도에서 번조된 청자는 원료 광물인 점토, 장석, 석영, 견운모 등이 번조되는 가열 온도에 따라 분해와 용융으로 燒失되고, 최종 번조 온도에서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석영,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물라이트와 석영에서 轉移된 크리스토팔라이트의 광물 종류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청자와 갑발들은 번조 과정에서 광물의 분해와 생성 정도를 보여주는 광물의 결정도에 각각 차이를 보이고, 열적인 변화와 관련된 석영의 크리스토팔라이트 전이 정도와 물라이트 광물의 생성 상태에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물라이트의 생성과 크리스토팔라이트로 전이 상태는 화학적으로 태토조성과 물리적으로 번조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¹²⁶⁾ XRD 분석의 결과와 같이 용운리 63호 요지의 청자는 광물학적으로 청자 태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인 석영의 크리스토팔라이트로 전이와 물라이트의 생성 정도에 따라 크게 2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유형은 크리스토팔라이트로 전이와 물라이트의 생성이 양호한 청자이고, 퇴적 IV층에서 출토된 청자와 퇴적 II층에서 출토된 일부 청자가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보다 크리스토팔라이트로 전이와 물라이트의 생성이 미약한 퇴적 I층에서 출토된 청자와 퇴적 II층에서 출토된 일부 청자로 분류된다. 한편, 퇴적 I·III층에서 출토된 갑발은 크리스토팔라이트로 전이와 물

126) 素木洋一, 1969, 『セラミック外論』 3, 日本窯業協會, p.114~119.

석영은 α -Quartz, Tridymite, Cristobalite의 3종류가 있다. 순수한 석영은 870℃에서 Tridymite로 轉移하고, 전이된 Tridymite는 1,470℃에서 다시 Cristobalite로 전이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조성의 광물에서 결정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전이라 한다. 한편, Mullite는 태토를 구성하는 원료인 점토가 1,100~1,200℃에서 석영과 Mullite로 되고, 견운모는 1,050~1,100℃에서 mullite, alumina와 유리질로 됴으로써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mullite는 점토광물의 함량이 많고,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성된다.

라이트의 생성이 모두 양호한 상태로 청자의 특성에서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모두 크리스토팔라이트가 검출되는 광물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고대 도자의 광물학적 특성에서 부분적으로 크리스토팔라이트를 포함하는 광물학적 특성은 일부 청자 요지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다.¹²⁷⁾

(3) 청자의 번조 조건

청자의 화학적 특성에서 용운리 63호 요지 청자는 유사한 태토조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자의 광물학적 특성에서 크게 2유형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번조 과정에서 가열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청자에 따라 번조 조건을 달리하여 제작된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특히,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에서 크리스토팔라이트 광물의 존재는 높은 온도와 긴 번조 시간에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¹²⁸⁾ 또한, 퇴적 I·II·IV층 순으로 갈수록 청자에서 크리스토팔라이트의 전이 정도가 양호한 양상은 보다 높은 번조 온도와 길어진 번조 시간에 따른 광물학적 특성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청자의 번조 기술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청자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발은 출토된 층위에 관계없이 크리스토팔라이트의 전이가 매우 양호한 양상이다. 이는 청자 번조보다 높은 온도와 긴 번조 시간에 영향을 받은 속성이고, 갑발의 용도에 맞는 반복 사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광물학적 변화이기도 한다.

(4) 청자의 원료 산지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가마 퇴적 층위에 따라 청자의 화학적 특성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청자의 제작에서 사용되었던 원료의 특성 또는 제작기술의 유사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청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자제작에 사용된 원료의 특성과 산지 구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청자 태토에 함유된 미량원소의 함량을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검출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광물학적으로 장식 광물에 함유된 미량원소인 스트론튬(Sr, Strontium)은 산화칼슘의 공급원인 斜長石, 루비듐(Rb, Rubidium)은 산화칼륨의 공급원인 正長石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¹²⁹⁾ 따라서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광물학적 내용을 <도면 20>의 사장석에 함

127) 姜景仁, 2004, 「科學的 分析結果를 통해 본 康津靑磁의 技術的 特性」, 『康津 高麗靑瓷의 優秀性』, 康津靑瓷資料博物館, p.29~55.

128) 높은 온도에서 전이·생성되는 Cristobalite와 Mullite의 광물은 번조 조건에서 높은 온도만이 아니라 번조 시간이 길면 갈수록 광물의 전이와 생성량이 많아지게 된다.

129) 三辻利一, 1979, 「胎土分析による古代土器の産地推定」, 『古文化談叢』 6, 九州古文化研究會, p.229.

유된 특성 성분인 산화칼슘과 스트론튬, 그리고 <도면 21>의 정장석에 함유된 특성 성분인 산화칼륨과 루비듐의 함량 분포도로 살펴볼 수 있다.

<도면 20>의 산화칼슘과 스트론튬의 분포도에서 대부분의 청자들은 출토 층위에 관계없이 산화칼슘 0.15~0.35%, 스트론튬 45~60pm 함량의 매우 좁은 범위에 군집되는 특성을 보이고, 퇴적 I·II층에서 출토된 일부 청자만이 함량 분포를 달리하고 있다. 그림 7의 산화칼륨과 루비듐의 분포도에서 대부분의 청자들도 출토 층위에 관계없이 산화칼륨 1.8~2.8%, 루비듐 95~182pm 함량의 좁은 범위에 군집되는 특성을 보이면서 청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함량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한편, 청자와 함께 출토된 갑발도 청자와 유사한 함량 분포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용운리 63호 요지의 퇴적 I·II층에서 출토된 일부 청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자와 갑발들은 유사한 화학적 특성의 장석 광물이 포함된 원료로 제작되었고, 그 함량에도 크게 변화가 없는 원료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석 광물 중에서 정장석과 사장석의 분포에는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과 점토 광물에서도 루비듐(Rb, Rubidium)의 함량이 높으면 스트론튬(Sr, Strontium)의 함량이 낮아지고, 반대로 루비듐의 함량이 낮으면 스트론튬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은 광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¹³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미량원소는 청자 태토에 함유된 스트론튬과 루비듐이고, 그림 8은 이들 원소의 함량 관계를 나타낸 분포도이다.

이 분포도에서 청자와 갑발의 대부분 파편들은 광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스트론튬 45~60pm의 매우 좁은 함량 범위와 루비듐 95~182pm의 함량 범위에서 분산 군집을 이루고, 청자와 갑발이 출토된 층위에 따라서는 구분되지 않았다. 다만 I·II·IV층 순으로 갈수록 청자들은 층위에 따라 군집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청자 제작에서 사용 원료의 안정적인 특성을 반영하거나 제작기술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받은 변화라고 판단된다. 한편, 퇴적 I층에서 출토된 청자(1·6번)와 퇴적 II층에서 출토된 청자(8·12번) 각각 2점은 대부분의 청자와 미량원소의 함량 특성을 달리하여 구분된 양상으로 사용 원료의 특성 또는 태토 제조기술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자에서 검출된 21종류의 미량원소는 표 3과 같이 대체적으로 모든 청자에 유사하게 함유된 양상을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스트론튬(Sr), 루비듐(Rb)과 더불어 바륨(Ba), 지르코늄(Zr) 원소 종류의 함량에서 일부 청자와 갑발만이 두드러진 함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9는 미량원소인 바륨과 크롬 원소의 함량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청자와 갑발은 바륨 500pm, 지르코늄 300pm을 중심으로 군집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퇴적 I층에서 출토된 청자(1·6번)는 바륨 원소의 높은 함량 범위, 퇴적 II층에서 출토된 청자(8·12번)는 지르코늄 원소의 높은 함량 범위에 분포하여 대부분 분석 대상의 청자와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석 대상 갑발 4점에서 1점만이 지르코늄 원소의 높은 함량 범위에 놓여 함량 분포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바륨과 지르코늄 원소와 같은 非流動性 원소는 광물학적으로 鑛化作用을 받는 과정에서

130) 三辻利一, 1988, 「土器の産地推定」, 『新しい研究法は考古學になにをもたらしたか』クハプロ, p.265~266.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母岩에서 유래되어 원료 산지의 차이를 반영하는 특성 원소로 작용한다.¹³¹⁾ 따라서 용운리 63호 요지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청자는 동일한 화학적 특성을 지닌 산지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과학적 분석대상 25점의 청자에서 4점은 원료 산지에 미소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14.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대상 청자와 갑발 파편

번호	종류	출토 유구	외관상 특징
Y1	청자	퇴적 I 층	회색의 치밀한 태도, 녹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2	"	"	갈색의 치밀한 태도, 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3	"	"	갈색의 치밀한 태도, 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4	"	"	갈색의 치밀한 태도, 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5	"	"	회갈색의 치밀한 태도로 판단면 층위에 따른 색상 변화, 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6	"	"	회갈색의 치밀한 태도, 회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7	"	"	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8	"	퇴적 II 층	회색의 치밀한 태도, 녹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9	"	"	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10	"	"	회갈색의 검은 반점이 있는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11	"	"	갈색의 치밀한 태도, 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12	"	"	회색의 치밀한 태도, 회청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
Y13	"	"	회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
Y14	"	"	회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
Y15	"	퇴적 IV 층	회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
Y16	"	"	회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
Y17	"	"	회갈색의 검은 반점이 있는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18	"	"	회색의 치밀한 태도, 녹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19	"	"	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미세한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20	"	"	회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Y21	"	"	회갈색의 치밀한 태도, 녹갈색의 균열이 있는 유층
Y22	갑발	퇴적 I 층	연회색의 치밀하지 않은 태도로 외면에만 흑갈색의 유층이 형성
Y23	"	"	불규칙한 색상과 거친 태도로 유층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
Y24	"	퇴적 III 층	불규칙한 색상과 거친 태도로 유층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
Y25	"	"	회갈색의 치밀하지 않은 태도에 미세한 사립이 분산되어 있고, 외면에만 흑갈색과 녹갈색의 유층이 형성

131) 申相垠, 1990, 『全南 西南部地域の 白堊基 火山活動에 隨伴된 蠟石, 高陵石, 明礬石 鑛床에 대한 鑛物 및 地球化學의 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p.98.
吉本文平, 1958, 『鑛物工學』, 技報堂, p.602~605.









(a) Y1	 <p data-bbox="549 645 592 674">외면</p>	 <p data-bbox="1082 645 1125 674">내면</p>
(b) Y2	 <p data-bbox="549 1066 592 1095">외면</p>	 <p data-bbox="1082 1066 1125 1095">내면</p>
(c) Y3	 <p data-bbox="549 1487 592 1516">외면</p>	 <p data-bbox="1082 1487 1125 1516">내면</p>
(a) Y4	 <p data-bbox="549 1908 592 1937">외면</p>	 <p data-bbox="1082 1908 1125 1937">내면</p>

사진 27.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p>(b) Y5</p>	 <p>외면</p>	 <p>내면</p>
<p>(c) Y6</p>	 <p>외면</p>	 <p>내면</p>
<p>(a) Y7</p>	 <p>외면</p>	 <p>내면</p>
<p>(b) Y8</p>	 <p>외면</p>	 <p>내면</p>

사진 28.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c) Y9	 <p>외면</p>	 <p>내면</p>
(a) Y10	 <p>외면</p>	 <p>내면</p>
(b) Y11	 <p>외면</p>	 <p>내면</p>
(c) Y12	 <p>외면</p>	 <p>내면</p>

사진 29.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a) Y13	 <p>외면</p>	 <p>내면</p>
(b) Y14	 <p>외면</p>	 <p>내면</p>
(c) Y15	 <p>외면</p>	 <p>내면</p>
(A) Y16	 <p>외면</p>	 <p>내면</p>

사진 30.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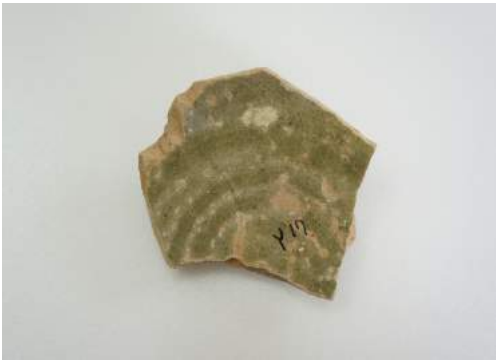






(B) Y17	 <p>외면</p>	 <p>내면</p>
(C) Y18	 <p>외면</p>	 <p>내면</p>
(a) Y19	 <p>외면</p>	 <p>내면</p>
(b) Y20	 <p>외면</p>	 <p>내면</p>

사진 31.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c) Y21	 <p>외면</p>	 <p>내면</p>
(a) Y22	 <p>외면</p>	 <p>내면</p>
(b) Y23	 <p>외면</p>	 <p>내면</p>
(c) Y24	 <p>외면</p>	 <p>내면</p>
(a) Y25	 <p>외면</p>	 <p>내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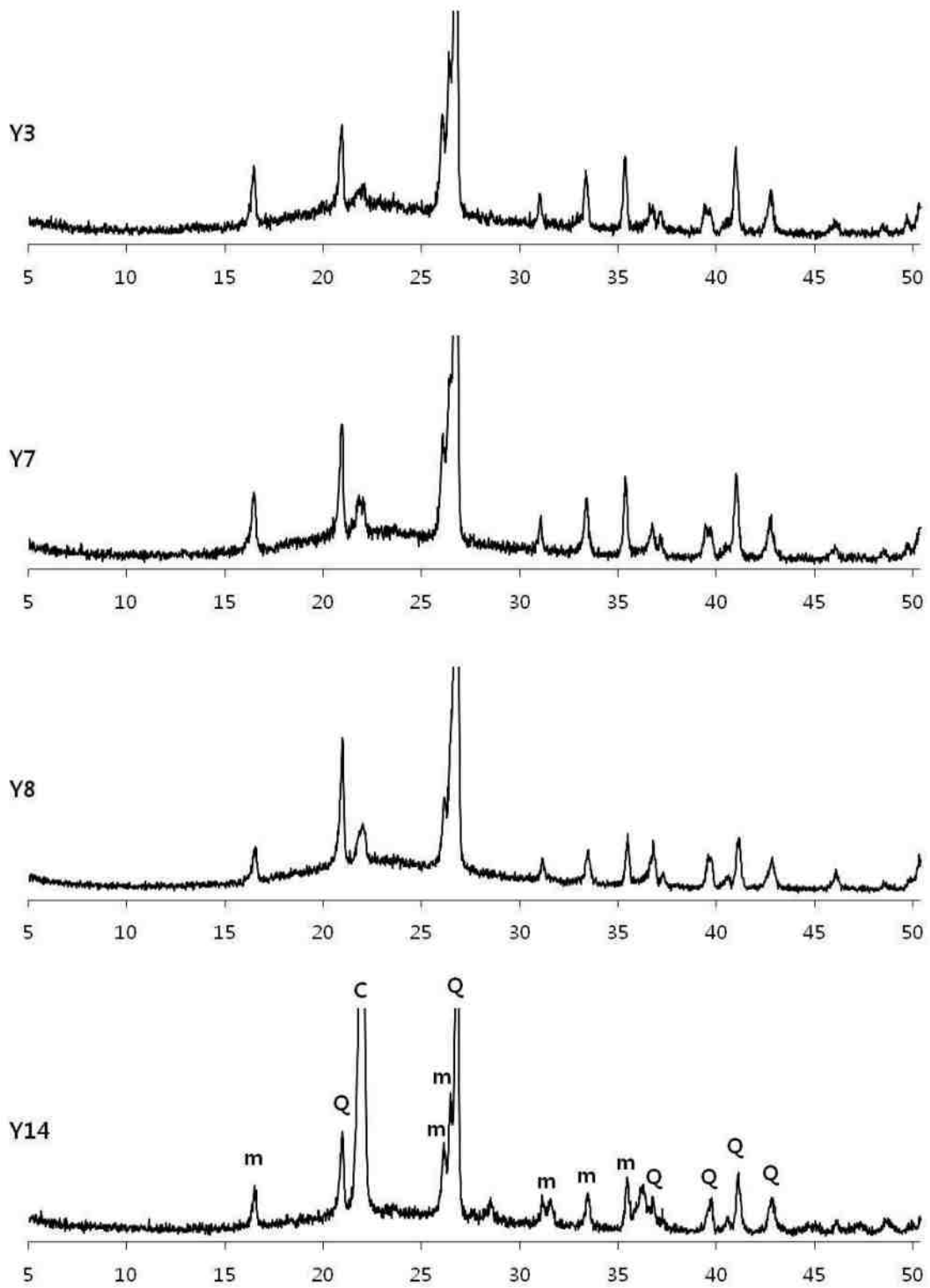
사진 32.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과학적 분석 대상

표 15.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 태토의 화학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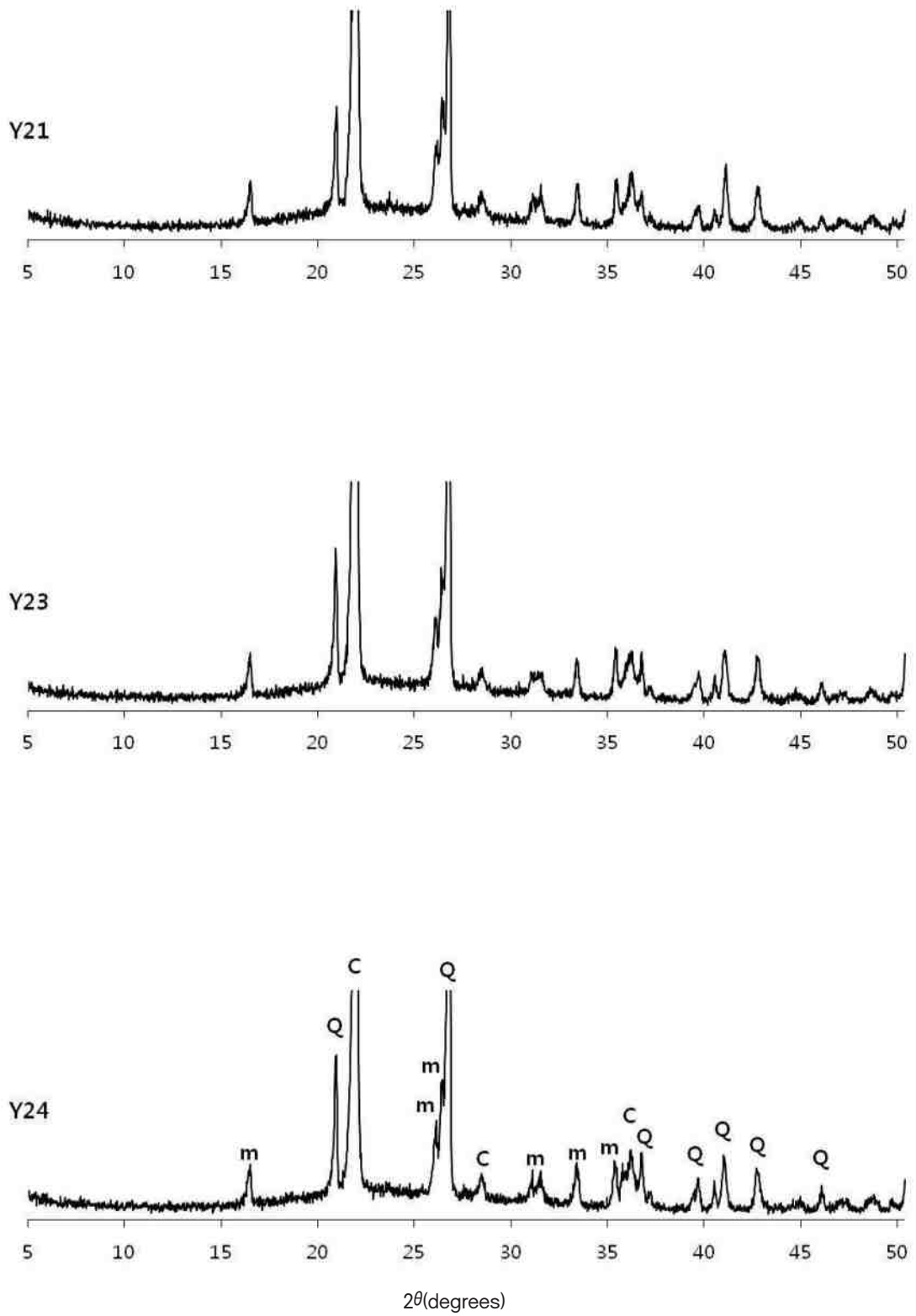
구분	화학조성(%)									
	SiO ₂	Al ₂ O ₃	Fe ₂ O ₃	MgO	CaO	Na ₂ O	K ₂ O	TiO ₂	P ₂ O ₅	MnO
Y1	74.38	18.92	2.39	0.56	0.30	0.29	2.00	1.11	0.03	0.02
Y2	73.13	20.36	2.29	0.68	0.28	0.15	2.03	1.05	0.02	0.01
Y3	68.41	23.96	2.77	0.82	0.25	0.23	2.46	1.06	0.03	0.01
Y4	75.61	17.77	2.37	0.56	0.28	0.17	2.10	1.12	0.02	0.01
Y5	67.92	25.04	2.68	0.83	0.17	0.14	2.22	0.96	0.02	0.01
Y6	72.35	20.23	2.41	0.64	0.56	0.56	2.16	1.05	0.03	0.02
Y7	68.81	24.24	2.60	0.83	0.23	0.14	2.18	0.94	0.02	0.01
Y8	73.68	19.18	2.34	0.66	0.25	0.28	2.60	0.96	0.02	0.01
Y9	69.30	23.79	2.62	0.84	0.18	0.14	2.23	0.87	0.02	0.01
Y10	67.59	25.15	2.71	0.86	0.20	0.15	2.37	0.93	0.02	0.01
Y11	72.05	21.58	1.94	0.70	0.15	0.21	2.31	1.02	0.02	0.01
Y12	70.57	21.72	2.49	0.81	0.31	0.25	2.81	1.00	0.03	0.02
Y13	74.98	18.89	2.06	0.57	0.32	0.13	1.93	1.09	0.02	0.01
Y14	73.31	20.07	2.30	0.67	0.26	0.19	2.11	1.06	0.02	0.01
Y15	74.47	19.15	2.16	0.62	0.32	0.14	1.98	1.12	0.02	0.01
Y16	72.35	21.27	1.98	0.71	0.15	0.22	2.31	0.99	0.02	0.01
Y17	66.75	25.47	3.23	0.90	0.26	0.12	2.27	0.96	0.02	0.01
Y18	71.97	21.52	2.00	0.71	0.16	0.23	2.39	0.99	0.02	0.01
Y19	72.27	21.36	1.99	0.70	0.15	0.22	2.27	1.00	0.02	0.01
Y20	72.12	21.45	1.99	0.71	0.18	0.21	2.31	1.01	0.02	0.01
Y21	73.69	19.80	2.13	0.67	0.35	0.19	2.04	1.09	0.02	0.01
Y22	69.48	23.46	2.61	0.77	0.19	0.14	2.31	1.01	0.02	0.01
Y23	74.94	18.55	2.25	0.57	0.28	0.23	2.17	0.98	0.02	0.01
Y24	75.48	17.83	2.31	0.58	0.25	0.23	2.32	0.96	0.02	0.02
Y25	73.69	19.70	2.67	0.58	0.18	0.13	1.94	1.09	0.02	0.01

표 16.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태토에 함유된 미량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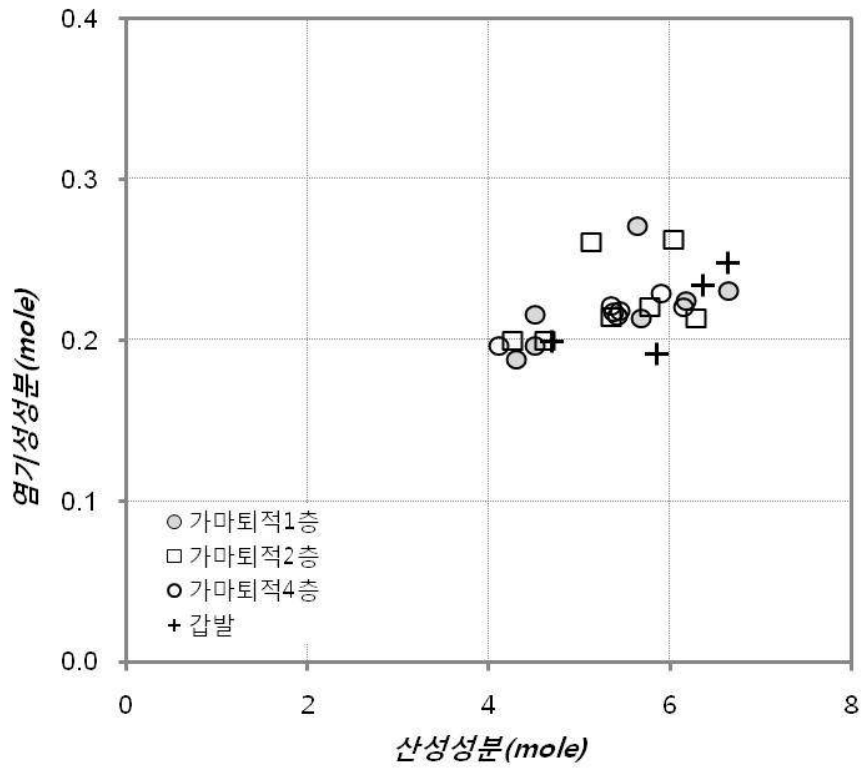
구분	미량원소(pm)																				
	Ba	Co	Cr	Cu	Li	Ni	Sc	Sr	V	Y	Zn	Zr	La	Ce	Nd	Sm	Eu	Dy	Yb	Pb	Rb
Y1	616	14	51	0	15	13	16	81	103	32	58	451	48	73	38	6.6	1.5	4.9	3.1	31	96
Y2	460	12	86	4	24	22	16	52	109	36	52	298	61	84	47	7.9	1.5	5.3	3.2	28	125
Y3	549	13	88	6	32	30	19	55	109	38	87	260	68	100	54	9.3	1.8	6.0	3.3	30	168
Y4	509	13	75	5	36	19	14	49	101	27	54	216	58	92	45	7.3	1.4	4.8	2.7	29	121
Y5	481	12	96	12	42	30	19	48	114	37	72	286	63	97	50	8.6	1.7	5.9	3.4	32	167
Y6	520	18	58	14	45	21	19	88	128	55	79	417	79	132	57	9.7	2.0	7.8	4.5	30	98
Y7	475	12	95	8	36	29	18	49	116	33	70	269	59	90	46	7.9	1.6	5.4	3.0	34	154
Y8	659	11	58	7	31	17	16	70	90	30	61	311	55	76	42	6.8	1.5	4.5	2.6	30	123
Y9	470	12	96	7	40	30	18	46	114	38	68	324	65	94	51	8.6	1.7	6.1	3.5	28	181
Y10	505	12	93	7	46	32	19	50	119	38	71	290	65	95	51	8.7	1.8	6.0	3.4	28	184
Y11	512	12	88	9	39	24	17	51	106	35	55	294	59	93	46	8.0	1.6	5.5	3.2	28	144
Y12	655	12	71	12	46	25	18	73	104	35	81	277	65	97	53	9.1	1.9	5.8	3.1	32	148
Y13	413	13	100	4	35	16	16	46	113	36	43	360	57	90	46	7.8	1.5	5.6	3.4	28	110
Y14	474	13	91	2	33	20	16	51	112	36	52	282	66	99	51	8.6	1.6	5.7	3.2	28	124
Y15	448	13	70	5	40	19	16	48	115	38	48	338	63	95	49	8.4	1.6	5.8	3.4	29	114
Y16	514	12	74	9	33	23	17	52	106	35	54	288	59	93	46	8.0	1.6	5.5	3.2	27	143
Y17	496	13	100	10	60	31	20	58	125	41	68	291	71	96	55	9.2	1.8	6.2	3.6	32	149
Y18	527	12	88	9	38	23	18	53	102	34	54	285	59	93	46	8.1	1.6	5.4	3.2	28	143
Y19	507	12	87	8	39	22	18	50	105	36	55	306	60	94	47	8.3	1.6	5.8	3.3	29	147
Y20	514	12	84	10	43	23	18	53	104	37	56	305	60	95	48	8.2	1.6	5.9	3.3	28	148
Y21	457	12	84	4	29	17	15	55	113	25	47	356	45	82	37	6.1	1.2	4.0	2.8	28	123
Y22	486	12	92	6	44	27	18	51	109	40	64	375	61	93	49	8.4	1.7	6.2	4.3	30	153
Y23	491	12	76	9	42	19	14	53	97	34	46	292	62	93	49	8.2	1.6	5.2	3.1	28	120
Y24	483	11	70	6	36	19	14	55	97	27	41	318	51	83	41	6.6	1.2	4.2	2.7	23	116
Y25	439	13	86	6	31	22	15	46	105	35	48	466	56	81	43	7.0	1.3	5.1	3.3	26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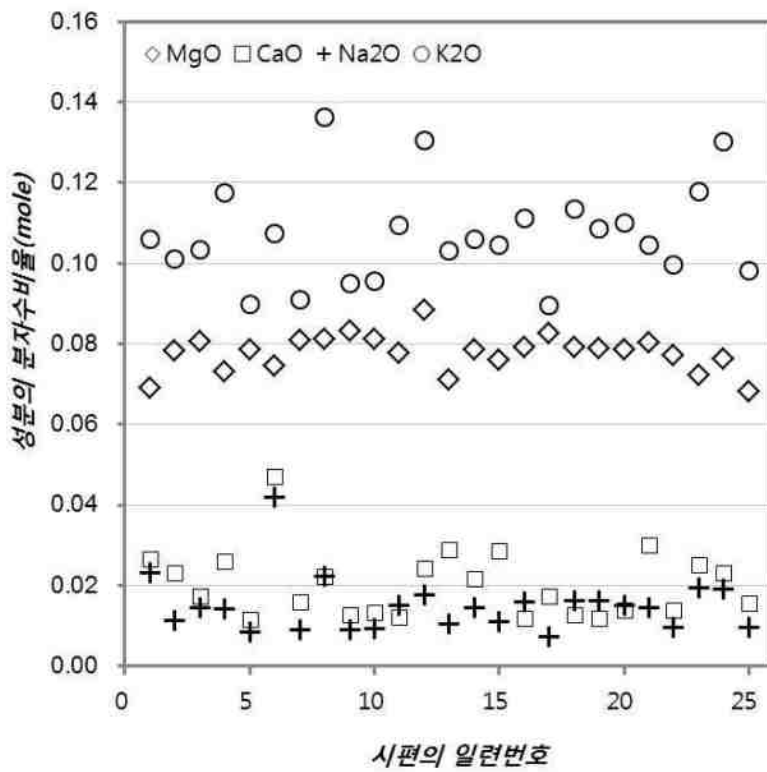
도면 17.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X-선회절 분석 유형
(Q : 석영, C : 크리스토팔라이트, m : 물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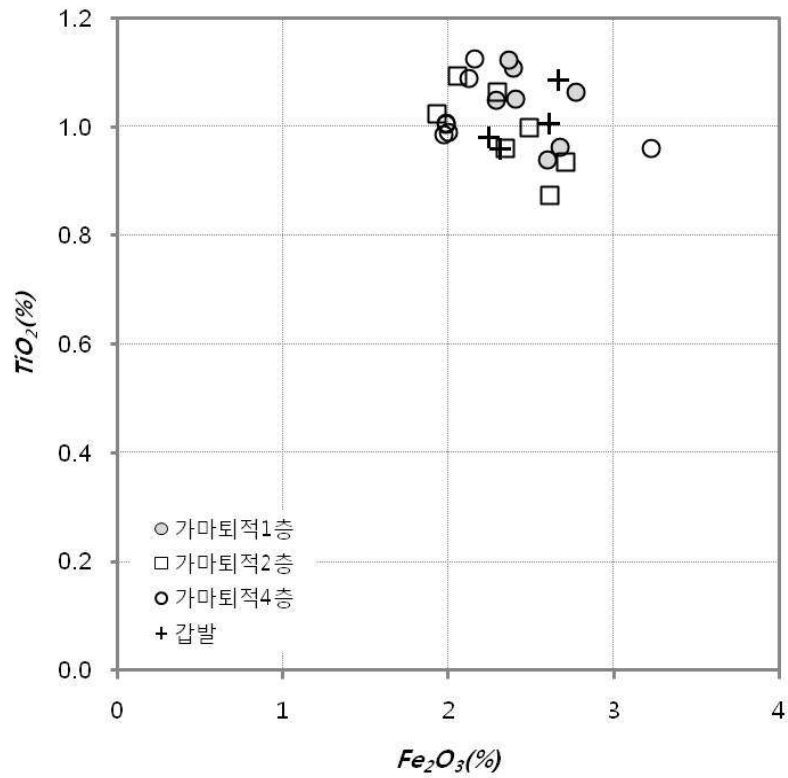
도면 18.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X-선회절 분석 유형
(Q : 석영, C : 크리스토팔라이트, m : 몰라이트)



도면 19. 강진 응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태토조성 분포도



도면 20. 강진 응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의 태토 염기성 성분 분포도



도면 21.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산화철과 산화티타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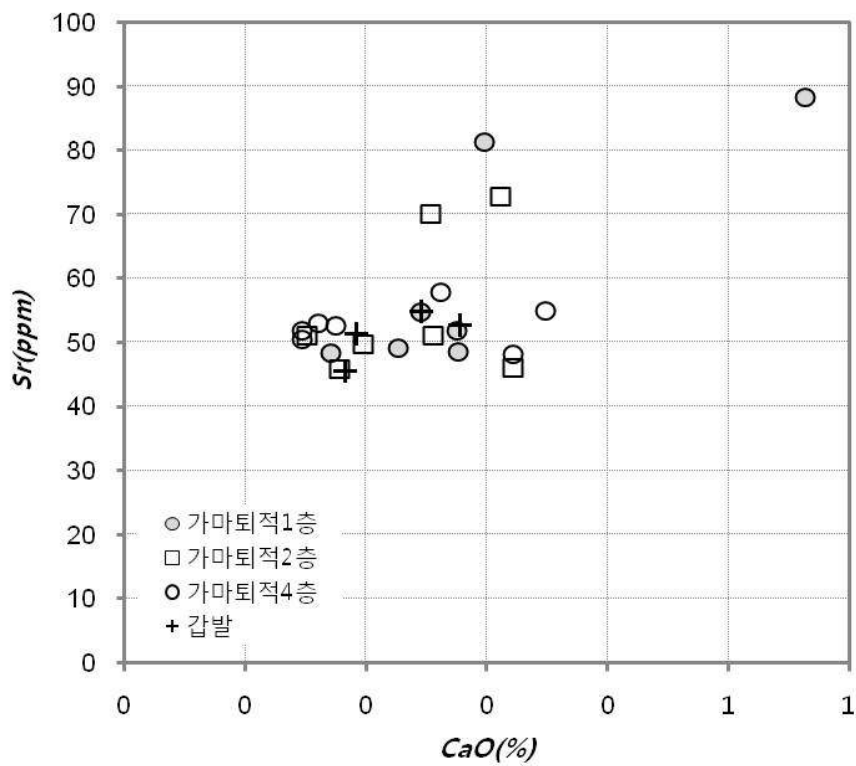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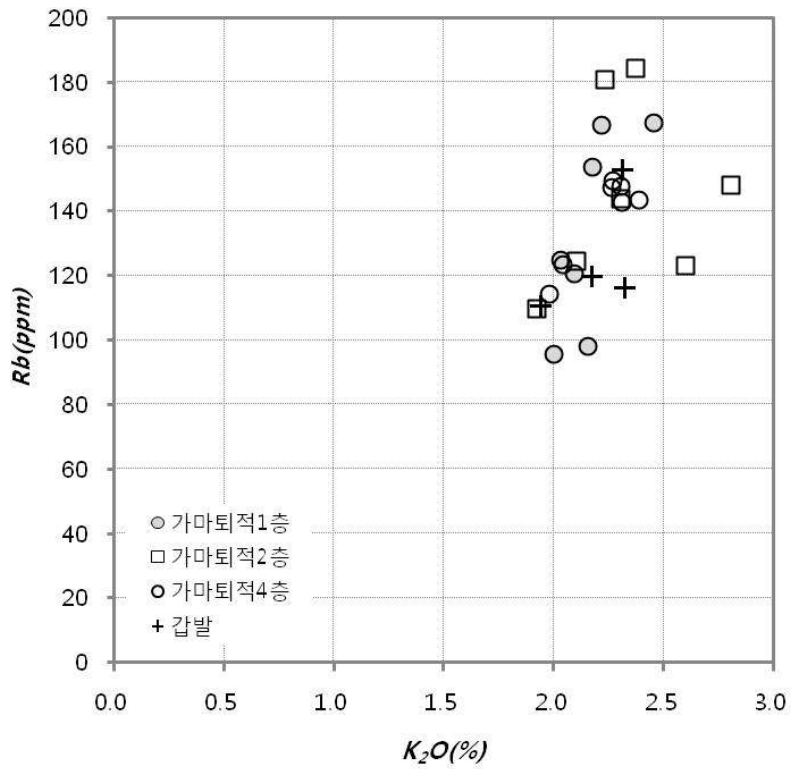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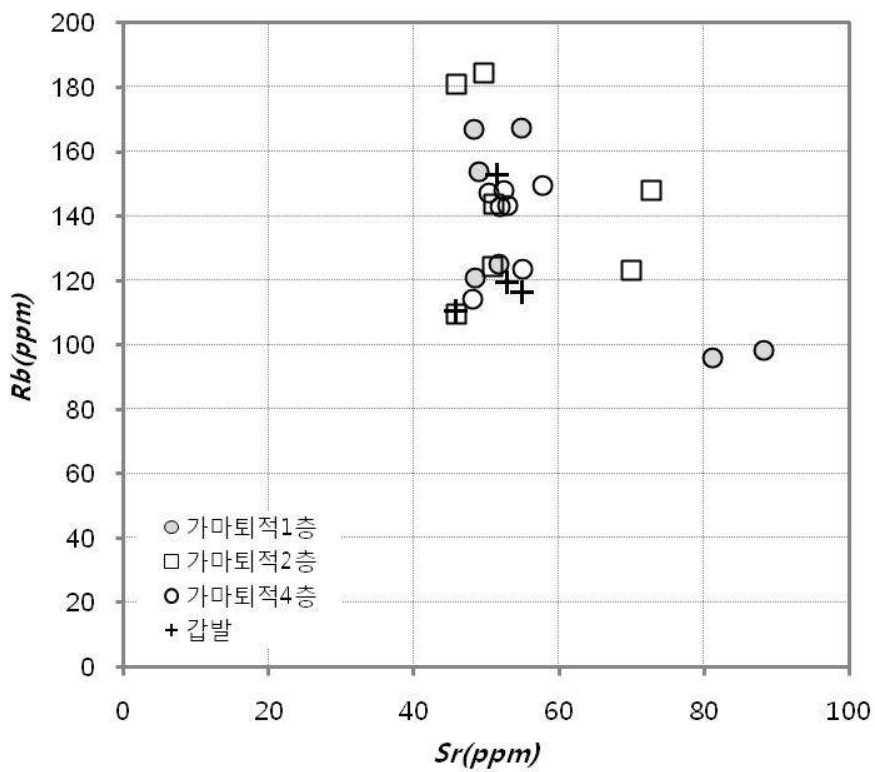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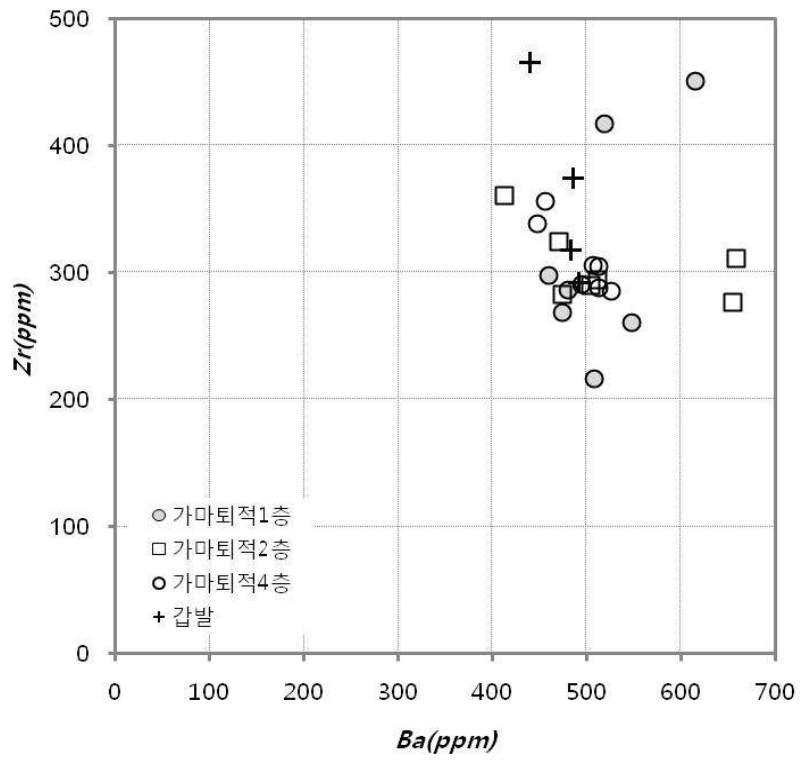
사진 22.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산화칼슘과 스트론튬 분포도



도면 23.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산화칼륨과 루비듐 분포도



도면 24.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스트론튬과 루비듐 분포도



도면 25. 강진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에 함유된 바륨과 지르코늄 분포도

V. 考察



V. 考 察

1. 요장 현황과 출토품

1) 가마와 퇴적

강진의 청자요지는 1913년 봄, 대구면 주재원이었던 나카시마 요시시게(中島義軍)가 요지를 발견하여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⁹⁸⁾ 그리고 수차례의 학술조사와 해강도자미술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188개소의 요지가 확인되면서 가마군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⁹⁹⁾



사진 33. 강진 용운리 63호 구조와 상태

그 중에서도 용운리 일대는 계곡을 따라 흐르는 대구천(용문천)의 상류지역에 雲谷, 巷洞, 龍門의 세 개 마을이 있으며, 그 주변에 75기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개발이 덜 이루어져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용운리 63호는 淨水寺로 향하는 小路의 북쪽 좌측에 위치하며, 같은 골짜기 안에는 용운리 60호, 61호, 62호가 연결해 있다. 용운리 58-1번지 일대

에 자리하고 있는 63호 가마는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정확한 가마 규모와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마의 구조는 구릉 경사면을 정리하여 바닥을 살짝 파내고 측벽과 천장부를 진흙으로 쌓아 올린 반지하식의 단실 등요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랜 경작과 주변 지형의 침하로 가마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어, 남아 있는 부분은 길이 550cm, 너비 130cm에 불과하며 가마의 바닥은 지표로부터 50cm 정도 내려가 있다. 또한, 가마의 排煙部 쪽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상부의 확인이 불가능한데 노출된 상태로 보아 민묘 조성 과정에 이미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변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과 봉통부[아궁이] 쪽이 예전부터 溪流였던 것을 고려하면 가마의 전체 길이는 10m 이상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가마는 구릉사면을 따라 지표면을 파내고 벽면과 천장부에 진흙을 발라 궁륭형으로 축조한 單室

98) 野守健, 1944, 『高麗靑磁の研究』 清閑舍, p.231~232.

99) 海剛陶磁美術館·康津郡, 1992, 『康津의靑磁窯址』.

의 土築窯이다. 현재 잔존하는 가마의 상태로 볼 때 측면 출입구의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 폐기물층이 가마의 왼쪽(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측면 출입구는 좌측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34. 강진 용운리 63호 벽체 상태



사진 35. 강진 용운리 63호 가마 퇴적층

폐기물이 쌓여 있는 퇴적층은 가마 왼편 20m 정도 위치에 420×420cm 범위에 퍼져 있으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높이 250cm 가량 남아 있다. 이곳 역시 가마와 마찬가지로 경작과 오래된 침식 과정 속에서 상당부분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퇴적층은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이곳에서는 소량의 청자 파편과 다수의 갑발, 갑발 받침 등이 수집되었다. 용운리 63호 출토유물의 양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물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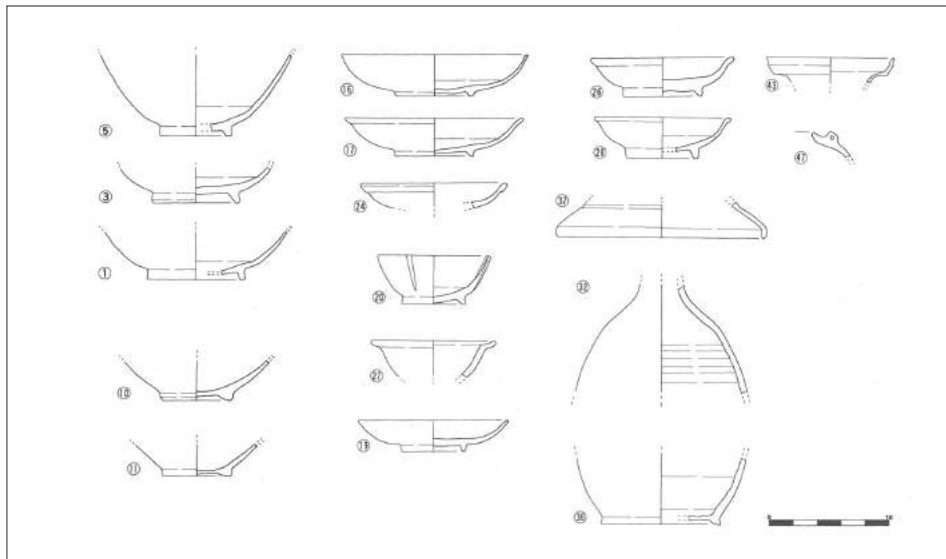
2) 출토품의 구성과 특징

용운리 63호 요지의 출토품은 크게 청자 파편과 요도구로 구분된다. 청자의 기종은 발, 완(선해무리굽, 한국식해무리굽), 잔, 각종 접시류(구연외반형, 구연내만형, 옥연형, 화형, 뚜껑형),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뚜껑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991년 지표조사와 동일한 양상을 지닌다.¹⁰⁰⁾ 더 많은 기종과 기형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퇴적층의 상당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므로 현재 파악이 가능한 청자의 기종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해무리굽완을 생산한 강진의 초기청자 요지 수는 용운리에 29기(9, 13, 16, 17, 18, 19, 26-①, 27, 28, 32, 33, 34, 36, 37, 42, 43, 44, 45, 46, 47, 50-①, 52, 53, 54, 55, 60, 63, 71, 75호), 계율리에 1기(55호), 사당리에 1기(11호), 삼흥리에 3기(1, 2, 3호) 등 모두 34기가 있다.¹⁰¹⁾ 기종 구성과 기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들窯場 출토품들과 비교하면 용운리 63호는 제작 양상에서 다소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먼저 기벽의 두께와 무게, 釉色, 釉層의 두께[厚薄], 시유 상태, 굽 깎음새 등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00) 海剛陶磁美術館·康津郡, 1992, 『康津의 靑磁窯址』, p.158~160.

101) 海剛陶磁美術館·康津郡, 1992, 『康津의 靑磁窯址』에 수록된 각 가마터의 파편을 관찰한 결과이다.



도면 26. 강진 용운리 63호 지표 수집품(『康津의 靑磁窯址』, p.158 발체)

용운리 63호 요지 출토 청자들은 질적으로 두 계통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벽의 두께와 유층이 무척 얇고 무게가 가벼운 유형으로 짙은 녹갈색조의 유색에 일부 기종에서는 유약이 말린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계통의 그릇들은 전반적으로 굽을 좁고 예리하게 깎았는데 내저곡면에 선해무리굽을 가진 완(이하 A유형)들도 여기에 포함된다(사진 25 ①, ③, ④). 그릇의 내면에는 재나 가마 천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갑발을 선별적으로 사용한 듯하며 출토유물의 대다수가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하겠다. 또 다른 그룹은 상대적으로 기벽이 두껍고 같은 기형이라 하더라도 약간 무겁다. 특히, 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釉面이 깨끗하고 유층이 두꺼우며 유색은 부드러운 청녹색을 띠고 있어 마치 宋代 鈞窯 등에서 볼 수 있는 天青色과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사진 35의 ①). 여기에 속하는 완들은 내저에 원각이 살짝 비치고 굽은 한국식해무리굽에 가까워 선해무리굽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완들은 내저면의 원각이 선명하지 않아 전형적인 한국식해무리굽완과도 차이가 있다. 이를 ‘과도기 해무리굽완’이라 부르겠다(이하 B유형).¹⁰²⁾ 특히 B유형의 완들은 모두 갑발에 넣어 구운 듯, 내면에 잡티가 없어 완성도가 높다. 이처럼 한 가마 제품들 간에 제작방식에 따른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수요대상에 따른 상품성의 차별화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된 청자에 비해 훨씬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도구이다. 용운리 63호에서 확인된 요도구는 갑발, 갑발 받침, 도침, 불창마개 등이 있다. 갑발은 원통형이 기본을 이루는데 크기와 높낮이가 다양하다. 태토는 고운 瓷土를 활용한 것과 모래 섞인 거친 태토를 활용한 두 종류가 있으며 자토를 활용한 경우에는 기벽이 얇고, 거친 태토를 사용한 예는 두껍다. 갑발의 제작 흔적을 보면 물레의 상판 위에 뒤집어 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서는 둥근판을 먼저 두드려 편 후 측면은 타래

102) 李喜寬의 논고에 표현된 ‘과도기 윤형저완’이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변화 단계를 내포하는 의미를 잘 담고 있어 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李喜寬, 2011, 『韓國 初期靑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地方史와 地方文化』 14권 2호, 歷史文化學會, p.7~51.



용운리 63호 해무리굽완 내면



용운리 63호 해무리굽완 굽부분



용운리 63호 다양한 갑발의 예



용운리 63호 갑발의 각종 투공과 기호

사진 36. 강진 용운리 63호 출토유물

를 쌓아 타날하여 접합하고 손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로 인해 갑발의 외측면에는 타날 흔적이 조금 씩 남아 있다.

주목할 점은 갑발 측면의 상부에 통기공이 뚫려 있거나 기호가 새겨진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통기공은 원형 또는 삼각형의 구멍 1~3개를 외부에서 뚫었고 통기공의 주변이나 가운데에는 원이나 +자형의 음각 부호를 새겨 놓았다. 모양이 같은 투공과 기호가 있는 갑발이 여러 벌 확인되는데 통기공은 기물을 구울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뚫은 것으로 보이며 기호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표식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통기공의 수량과 기호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갑발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학적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갑발끼리 붙거나 원통형 갑발의 상면 중앙에서 볼 수 있는 내화토 자국을 보면 여러 번 사용한 흔적이 중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갑발들은 대부분 瘳化되어 있고 외피 부분에 녹갈색의 자연유가 두껍게 유착되어 있어 많은 재가 발생한 채로 강한 火度에서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상부가 터진 갑발의 경우에는 폐갑발의 상부를 잘라 그 위에 올려놓고 다시 사용한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어 재활용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발 받침은 원통형 갑발의 지름에 따라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 다양한 크기가 확인된다. 갑발 받침은 다리 모양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되는데 다리가 밖으로 벌어지거나 수직에 가까운 것, 안으



사진 37. 강진 용운리 63호 갑발의 자연 유층



사진 38. 강진 용운리 63호 상부를 보수해 재활용한 사례



사진 39. 강진 용운리 63호 갑발 받침의 종류

로 오르라든 것이 있다. 갑발 받침은 갑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화가 덜 되었는데 이것은 받침이 가마 바닥 위에 위치했던 관계로 온도가 낮아 덜 익은 것이 분명하다. 이외의 요도구는 陶枕이 있는데, 支燒具인 도침은 원통형으로 지름 6.3~12.5cm 내외, 높이 10.3~13.5cm에 이르며 강진을 위시한 한반도 남서부 일원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비교하면 꽤 큰 편에 속한다. 이 도침

은 다른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경사진 도침과는 형태나 크기가 달라 용운리 63호의 지소구가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상면에 있는 굽 지름 흔적으로 볼 때 이들 도침은 굽 지름이 넓은 반구형이나 반구편병 등과 같은 기물의 적재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크기는 유사하나 한쪽 지름이 넓고 자화된 양상의 차이가 크며 가운데 구멍이 뚫린 요도구로 불창마개도 출토되었다.

2. 초기청자 요장 출토품과의 비교

1) 중서부 지방 전축요 출토품과의 비교

용운리 63호 출토품을 청자류와 요도구로 나누어 유사 양상을 보이는 중서부 지방 전축요 출토품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발굴조사로 알려진 전축요 출토품과 기종 구성, 주요 기종의 특징, 유약과 유색, 초벌 유무, 굽 깎음새 등의 제작기법, 요도구의 종류 등을 비교하여 용운리 63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¹⁰³⁾

103) 여러 가마가 있지만 전축요에서도 가장 이른 단계이자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시흥 망산동과 배천 원산리 2호 출토품을 대상으로



사진 40. 강진 용운리 63호 원통형 도침



사진 41. 강진 용운리 63호 불참마개

기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용운리 63호 요지와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시흥 방산동 요지와 같은 전축요 출토품 간에는 서로 다른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면 발굴이 실시되어 출토 양상이 완전하게 파악된 시흥 방산동 요지를 제외하고, 용운리 63호는 가마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배천 원산리 2호 요지는 가마의 내부만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출토유물을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수습품의 많은 사례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생산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혀 다른 기술에 의해 청자가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즉, 동일한 시기이든,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든 용운리 63호와 전축요는 계통이 다른 가마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용운리 63호는 전축요의 청자 생산기술과 큰 틀에서 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 기종 구성과 주요 기형의 특징

용운리 63호에서는 청자 기종으로 완(A, B유형), 발, 잔, 각종 접시류(구연외반형, 구연내만형, 옥연형, 화형, 뚜껑형),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뚜껑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발굴조사에서 수집된 기종으로 폐기물 퇴적층이 얇아 과연 실제로는 얼마나 다양한 기종을 생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배천 원산리 2호에서는 발(화형), 완(A유형), 접시(화형, 뚜껑형, 옥연형, 구연내만형), 잔(반구형), 잔탁, 뚜껑(합뚜껑, 주자뚜껑, 소호뚜껑), 합, 주자(나팔구연형, 구연직립형, 참외형), 소병(나팔구연형), 훈주, 호(원형, 구연직립형), 타호, 제기(호, 두형) 등이 수습되어 기종과 기형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¹⁰⁴⁾ 청자와 백자를 함께 번조한 시흥 방산동 요지의 경우도 배천 원산리와 기종에서 유사성을 보이거나 잔탁의 종류가 다양하고 반구형병, 장고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에 해당한다.¹⁰⁵⁾

강진 용운리 63호와 두 전축요는 요업의 규모나 축요 방식, 조업 기간 등이 다르므로 생산 기종의 종류와 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계통이 다른 가마로 보는 경향으로 인해 제작품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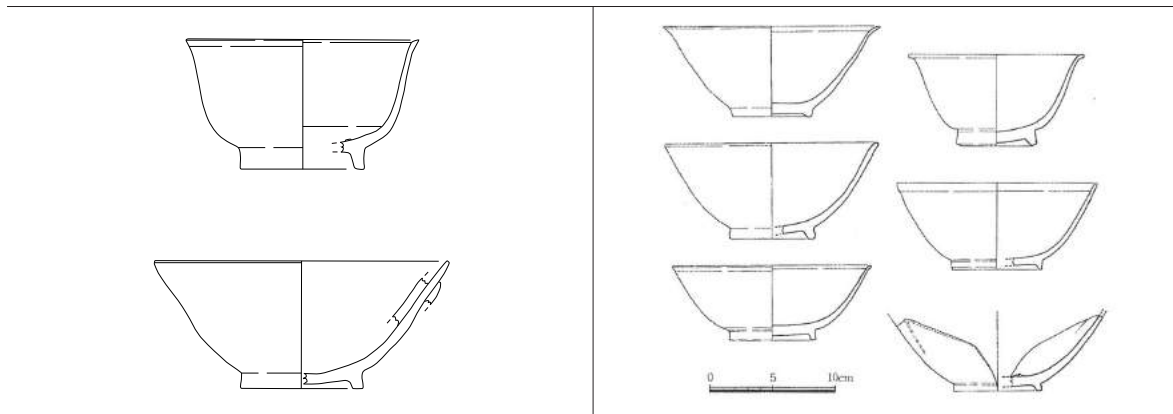
로 비교하였다.

104) 朝鮮遺蹟遺物圖鑑編纂委員會, 1992, 『峰泉郡 圓山里 자기 가마터』, 『朝鮮遺蹟遺物圖鑑』 12, p.306~315.
金榮播, 2003, 『도자기 가마터 발굴보고』, 白山資料院, p.94~171.

105) 海剛陶磁美術館·始興市, 2001, 『芳山大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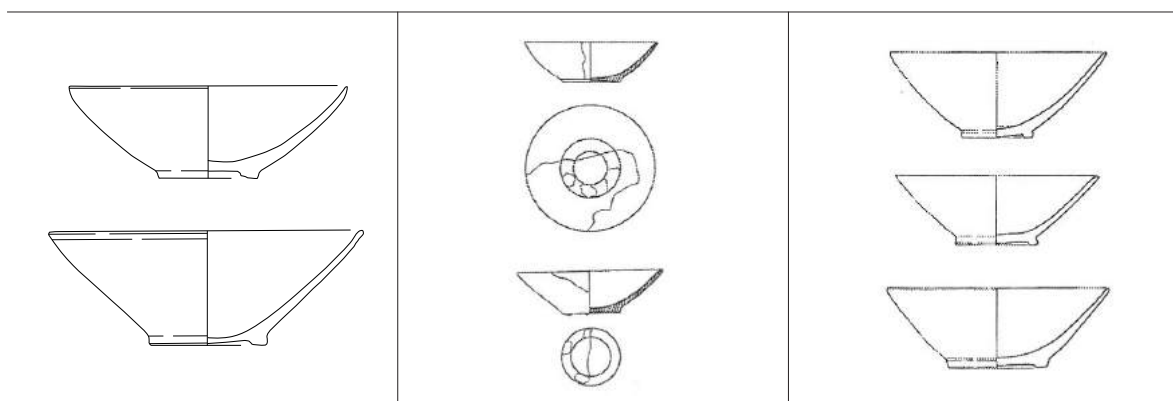
레도 다를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 성과도 있다.¹⁰⁶⁾ 그러나 생산된 기종 중에 겹치는 예들을 관찰해 보면 의외로 동질성이 많이 감지된다. 기형이 일치하는 사례들을 몇 점 비교해 보고자 한다.

① 발 : 용운리 63호 출토의 발은 구연이 외반하고 굽다리가 높으며 굽이 직립하거나 밖으로 살짝 벌어졌다. 이와 동일한 형식의 발은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 발견된 청자의 발과 차이가 없다.



도면 27. 강진 용운리 63호 발(좌), 시흥 방산동 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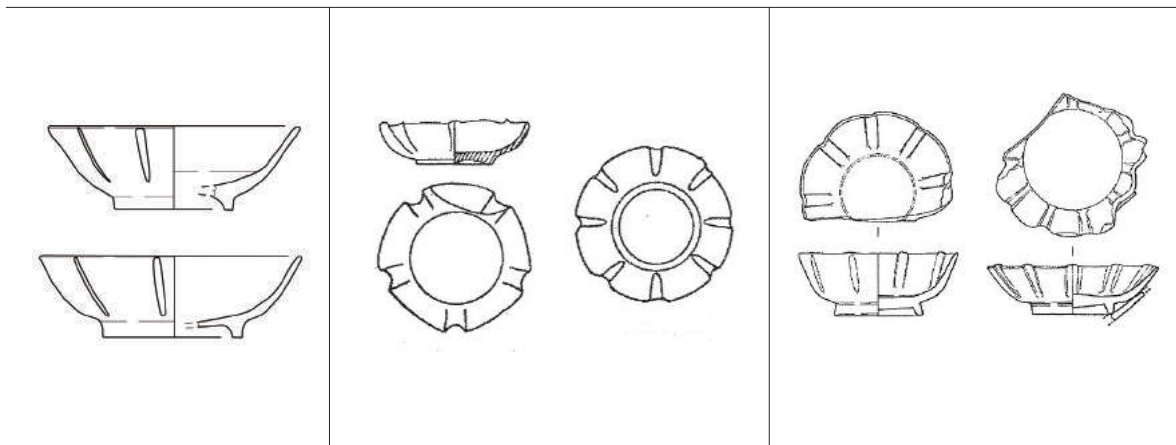
② 완 : 용운리 63호의 완들은 A와 B유형이 공존한다. 배천 원산리 2호 요지나 시흥 방산동 출토품들도 내저곡면에 선해무리굽을 가진 완이 중심을 이루고 일부는 내저가 곡면이지만 접지면이 한국식해무리굽완처럼 넓은 계통이 포함되어 있다. 또 드물게는 시흥 방산동의 경우 내저원각과 넓은 접지면을 가진 옥벽저 유형의 백자완이나 내저원각이 일부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내저곡면, 선해무리굽, 접지면이 넓은 굽 등의 공통점은 용운리 63호와 전축요 생산품간에 공통점을 보이는 요소가 된다. 또 완의 크기와 용적률이 유사하다는 점도 서로 떨어진 두 지역의 생산품 간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도면 28. 강진 용운리 63호 완(좌), 배천 원산리 완(중), 시흥 방산동 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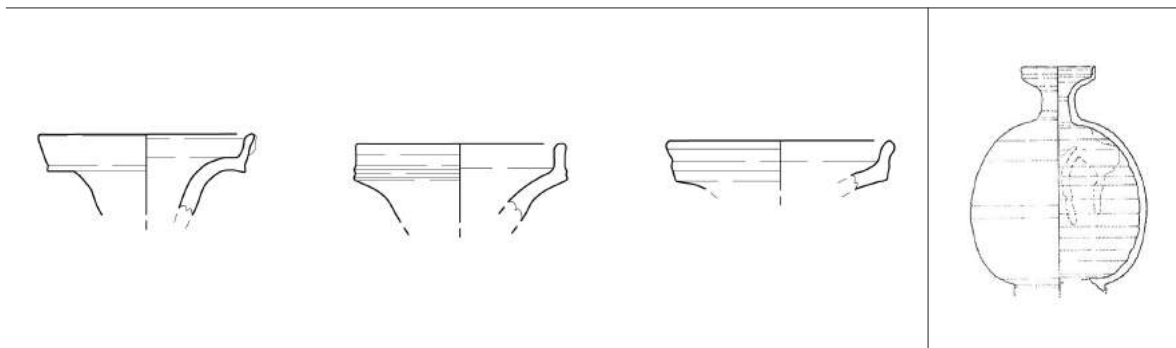
106) 崔健, 1994, 「韓國初期青磁の分類と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東洋陶磁』 22, 東洋陶磁學會, p.42~53.

③ 접시 : 다양한 접시류 가운데 용운리 63호의 화형접시는 구연이 살짝 내만한 소형접시의 외벽을 가느다란 나무 도구로 강하게 눌러 요철이 강한 단면형태를 보인다. 같은 형태의 화형접시는 배천 원산리 2호의 1차 가마에서도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도 확인되었다. 또 구연이 밖으로 말린 옥연형 접시의 경우도 형태와 크기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세 지역의 가마에서 모두 수습되고 있다. 구연이 내만한 접시나 뚜껑형 접시도 놀라울 만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은 전축요 출토품의 조형이나 용운리 63호 출토품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도면 29. 강진 용운리 63호 화형접시(좌), 배천 원산리 화형접시(중), 시흥 방산동 화형접시(우)

④ 반구병 : 용운리 63호에서는 병의 구연부로 추정되는 盤口가 여러 점 확인되었다. 반구의 외측면은 수직을 이루는 경우도 있으나 외면에 돌대처럼 요철이 보이는 사례도 있다. 원산리 2호 요지에서는 반구병 대신 나팔구연형 병들이 수습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시흥 방산동의 경우는 요철면이 보이는 반구병들이 출토품 중에 섞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병도 중서부지역의 전축요 제품과 유사한 기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도면 30. 강진 용운리 63호 반구병(좌), 시흥 방산동 반구병(우)

(2) 제작기법

용운리 63호 생산품 중에 A유형에 속하는 유물들은 짙은 녹갈색조의 유층이 얇게 시유되어 있으며 일부 기종에서는 유약이 뭉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색과 현상들은 배천 원산리 요지 출토품이나 시흥 방산동 요지의 청자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다.



사진 42.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의 유면



사진 43. 시흥 방산동 청자의 유면



사진 38. 사진 44. 용운리 63호 청자의 내화토



사진 45. 시흥 방산동 청자의 내화토

(3) 요도구의 종류

용운리 63호에서 수집된 요도구는 갑발, 갑발 받침, 도침, 불창마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갑발은 대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원통형이고 기벽이 얇으며 기호나 통기공이 있다. 전축요 출토품의 갑발은 鉢形, 圓筒形, 覆鉢形(투구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통형이며 이들은 하나같이 기벽이 얇다(사진 45의 ①). 전축요 출토의 갑발에는 통기공이나 기호를 표시한 사례가 거의 없으나 형태와 크기, 두께를 보면 양상이 유사하여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사진 45의 ②). 또한, 갑발 받침은 용운리 63호의 경우 다리 모양에 따라 미세하게 3종으로 나누어지는데(사진 46의 ①) 이것 역시 전축요에서 볼 수 있는 床形이나 원반형의 갑발 받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사진 46의 ②). 요도구의 변천과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원통형 갑발과 복발형(투구형) 갑발은 전축요와 토축요를 막론하고 함께 쓰였으며 사용법이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이

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⁷⁾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용운리 63호의 갑발과 받침은 전축요의 요도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적재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좋겠다. 한편, 용운리 63호에서 발견된 원통형의 도침은 강진을 위시한 남서부 일대의 주변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전축요에서 발견되는 번조 도구가 아니다. 이 사실은 용운리 63호가 開窯한 이후 조업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받침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사진 46. 강진 용운리 63호 원통형 갑발(좌), 시흥 방산동 원통형 갑발(우)



사진 47. 강진 용운리 63호 갑발 받침(좌), 시흥 방산동 갑발 받침(우)

2) 남서부 지방 토축요 출토품과의 비교

용운리 63호 출토품이 전축요 생산품이나 번조 도구들과 여러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사한 단계의 남서부 일대 요장 출토품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은 지금까지 학술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양상을 알 수 있는 장흥 풍길리 요지,¹⁰⁸⁾ 고흥 운대리 1호,¹⁰⁹⁾ 해남 신덕리 D지구,¹¹⁰⁾ 강진 용운리 9호¹¹¹⁾ 등이다.¹¹²⁾

107) 張起熏, 2002, 「窯道具를 통해 본 初期靑磁窯業의 變遷」, 『美術史研究』 16, p.229~253.

108) 國立光州博物館, 1995,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IV, p.136~137·168~170.

109) 고흥 운대리의 청자요지 1~5호 중 양식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운영은 1호→4호→2호→3·5호 순서로 진행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서 비교하려는 대상은 가장 이른 단계를 보이는 1호로 국한한다.
李鍾玟, 2005, 「高興 雲岱里 靑磁의 特徵과 窯業性格」, 『高興 雲岱里 陶器文化의 性格』, 高興郡·高興文化院, p.71~107.

110) 國立光州博物館, 2000, 『海南 新德里 靑磁陶窯址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p.52~53·76~83.

111) 國立中央博物館, 1996,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圖版編, p.91~112·233~272.

112) 이외에도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시행된 가마들이 있다. 그러나 내지원각이 선명한 한국식해부리굽완을 동반한 경우는 단계상 뒷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여 논외로 하였다. 다만, 용운리 9호 요지 출토품은 보고서에 기종과 기형의 사례가 유형별로 상세하게

제작기종과 기형, 제작기법, 요도구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이들 가마 출토품을 비교해 본 결과 각 가마들 간에는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고 있다. 즉, 기종과 기형의 비교, 흑유자기의 유무, 기벽의 두께, 유층의 후박, 유색과 유약의 번조 상태, 갑발의 종류와 두께, 기타 번조 도구의 유무 등에서 강진 용운리 63호와 장흥 풍길리는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청자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흥 운대리 1호와 해남 신덕리 D지구 역시 또 다른 그룹으로 분리되고 있다. 완성도가 높고 유색이 좋으며 다양한 기종을 생산한 용운리 9호는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시기적인 차이인지, 품질과 관련한 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여러 토축요 중에서 용운리 63호와 장흥 풍길리 가마가 가장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축요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기종 구성과 주요 기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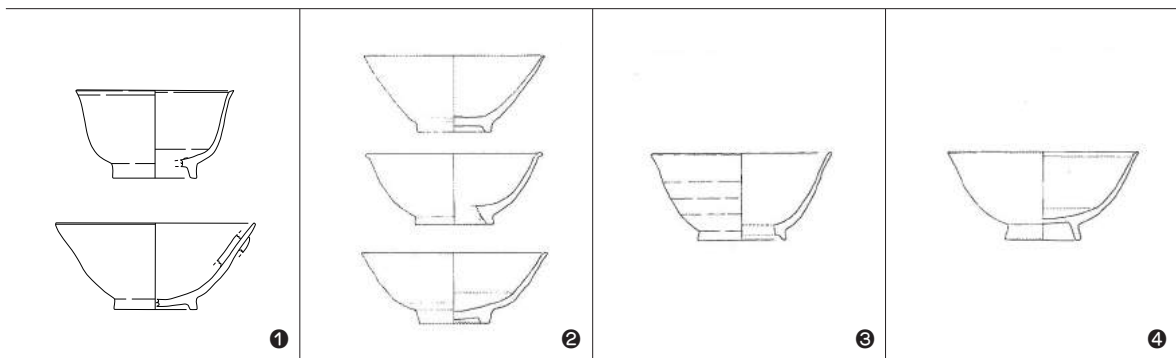
아래의 <표 17>은 남서부 일대에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시행된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통 분모를 보이는 기종과 기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남서부 지방 요장 출토 자기 기종과 기형

요지	청자 기종	흑유 기종	조사 형태
강진 용운리 63호	완(A, B유형), 발, 잔,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뚜껑 각종 접시류(구연외반형, 구연내만형, 옥연형, 화형, 뚜껑형)	없음	발굴조사
장흥 풍길리	발, 완(A, B유형), 접시	없음	지표조사
고흥 운대리 1호	발, 완(A, B유형), 접시(구연내만형, 화형), 잔	반구병, 소병, 호, 주자	지표조사
해남 신덕리 D지구	발, 완(A, B유형), 접시(구연내만형, 화형)	반구병, 소병, 호	지표조사
강진 용운리 9호	발(무문, 화형, 연판문, 음각국당초문), 완(A, B, C유형), 접시 (전접시, 화형, 구연내만형, 구연외반형, 소형, 뚜껑형), 각종 뚜껑, 반구편병, 반구형잔(연판문 포함), 잔탁 3종, 합, 호, 항, 반구병, 반구편병, 유병, 장고, 주자, 버루 등	없음	발굴조사

수록되어 있어 비교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① 발 : 비교 대상이 되는 각 가마 출토품들의 발 형태는 측사면이 곧고 구연이 살짝 외반하거나 직사선을 이루며 굽이 높고 벌어진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 형태의 발은 수량도 많고 가장 기본형으로 제작된 듯하다. 이 중에는 굽내면을 깊이 깎아내어 발의 바닥면이 얇게 성형된 경우도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용운리 63호, 장흥 풍길리, 고흥 운대리 1호, 해남 신덕리 D지구에서 발견된 발들은 대부분 무문인 반면, 용운리 9호 출토품에는 花瓣을 묘사하기 위해 측사면을 누른 흔적이 있거나 아예 연판문을 넓게 깎아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로 볼 때 용운리 9호는 용운리 63호에 비해 단계상 더 발전한 기법을 구사하며 시기적으로 늦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용운리 63호는 장흥 풍길리, 고흥 운대리 1호, 해남 신덕리 D지구와 같은 제작단계를 갖고 있었으며 용운리 9호보다는 약간 이른 시기에 요업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도면 31. 강진 용운리 63호(1), 고흥 운대리 1호(2), 해남 신덕리 D지구(3), 강진 용운리 9호(4) 발의 형태

② 완 : 완의 형식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내저원각이 없고 선해무리굽형식을 가진 완(A유형)과 내저에 미세한 원각이 보이면서 선해무리굽이나 한국식해무리굽을 가진 과도기 해무리굽완들(B유형)이 공존하는 양상은 <표 17>에 제시한 남서부 지역의 토축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용운리 9호는 내저원각이 선명하고 접지면이 넓은 전형적인 한국식해무리굽완(C유형)이 추가되어 있어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완의 형식들 간에는 어떠한 선후관계가 존재하는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사진 48. 강진 용운리 9호 출토 청자완 내면



사진 49. 강진 용운리 9호 출토 청자완 외면

③ 접시 : 수집된 파편 수량이 적은 장흥 풍길리 요지를 제외하고 <표 17>에서 비교한 가마들에서는 구연내만형접시와 화형접시가 수집되었다. 구연내만형접시들은 구경이 11~14cm에 이르며 내측면의 중앙부에 내저선각이 둘러진 경우가 섞여 있다. 이 양상은 모든 가마에서 수집된 같은 유형의 접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 밖에서 안쪽으로 외측면을 강하게 눌러 화형을 묘사한 화형접시도 모든 가마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기형이다. 이 접시의 외면을 누르는 수법이나 8화형 또는 10화형을 이루는 화판의 수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이들 가마들이 유사한 시점에 조업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2) 제작 기법



사진 50. 장흥 풍길리 요지 출토 완편

남서부 일원의 비교 대상 가마들 중에서 유색이나 제작 분위기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장흥 풍길리 요지 출토품이다. 완의 형식은 물론이고 기벽의 두께가 얇다는 것과 시유 상태에서 유층이 얇고 유약이 묻치는 현상이 보이는 현상 등은 두 가마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진 용운리에서 장흥 풍길리가 천관산과 천태산을 사이에 두고 직선으로 10 km 정도 떨어져 있는 점은 장인 집단이 동일하거나 같은 영향권 안에 있었음을 추정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외에 위에서 열거한 가마 출토품은 대부분 백색 또는 미백에 가까운 모래 섞인 내화토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 토축요들이 적재 과정에서 같은 재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번조 받침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인접한 고흥 운대리 1호 요지에서는 조개껍데기를 받쳐구운 사례들도 확인되며, 용운리 9호의 경우는 잘 떨어지는 미백의 고운 내화토나 규석 받침을 사용되고 있어 주변의 환경적 요소로 인해, 혹은 상품성의 확보를 위해 받침 재료를 달리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51. 고흥 운대리 1호 조개껍데기 받침



사진 52. 강진 용운리 9호 내화토 받침

(3) 요도구의 종류

강진을 위시한 남서부 지방의 토축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축요에서 출토되는 사례에 비추어 사용하는 갑발이나 갑발 받침의 종류가 줄어들고 갑발 뚜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마에 도자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간소화를 지향하는 것이다.¹¹³⁾ 그에 반해 토축요에서는 도침을 포함한 지소구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가마에 따라서는 墊燒具를 활용하기도 한다. 비교 대상이 되는 초기청자 요지의 출토 사례를 활용하여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표 18).

표 18. 남서부 지방 요장 출토 요도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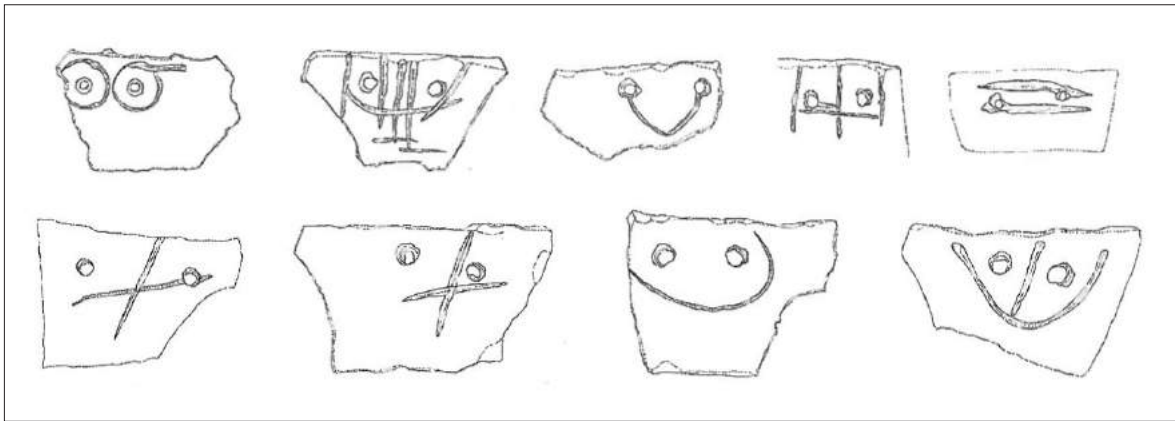
요지	갑발 종류	갑발 두께·태도	통기공·기호	갑발 받침 종류	支燒具(도침)	墊燒具
강진 용운리 63호	원통형, 대소 존재	기벽 얇음, 태도 2종	삼각형, 원형 통기공 기공 수 - 1, 2, 3구 기호 - 원형, '+' 자 등	3종	원통형	확인안됨
장흥 풍길리	원통형	기벽얇음	확인안됨	床形 1종 확인	확인안됨	확인안됨
고흥 운대리 1호	원통형, 대소 존재	기벽얇음 태도 2종	원형 통기공 기공 수 - 1, 2구	2종 확인	확인안됨	확인안됨
해남 신덕리 D지구	원통형, 대소 존재	기벽 얇고 두꺼운 것 혼재	원형 통기공 기공 수 - 1, 2구	1종 확인	확인안됨	확인안됨
강진 용운리 9호	원통형, 복발형, 대소 존재	기벽 얇고 두꺼운 것 혼재	원형 통기공 기공 수 - 2구 기호 - 사각, 원형, '+' 자 등	床形 1종 확인	원통형, 원반형	墊餅, 足座

우선 갑발은 용운리 63호를 비롯하여 모든 가마에서 원통형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용운리 9호에서는 복발형의 갑발에 손잡이가 양쪽에 붙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갑발의 크기는 적재하는 기물에 따라 대중소의 크기가 존재하며, 거친 태도와 고운 태도로 제작한 것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다. 기벽의 두께는 강진 용운리 63호나 장흥 풍길리, 고흥 운대리 1호에서 기벽이 얇은 갑발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나 해남 신덕리 D지구, 강진 용운리 9호에서는 두꺼운 기벽을 가진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상황은 가마 간에 요도구의 제작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갑발 측면에 뚫려 있는 통기공의 수량과 형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호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마에서 확인되었다. 모양이 다른 통기공을 뚫고 기호를 표기하는 행위는 전축요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장인들의 제작 관행으로 남서부 지방의 생산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113) 張起熏, 2002, 「窯道具를 통해 본 初期靑磁窯業의 變遷」, 『美術史研究』 16, p.229~253.

다. 통기공은 도자기를 잘 번조하기 위한 지혜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나 모양과 구멍 수량이 다른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구분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여러 형태의 기호 역시 표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갑발 받침은 가마다 종류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면 발굽이 아닌 경우 수집품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축요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요소는 토축요에서만 발견되는 지소구와 점소구 등의 요도구가 있다. 강진 용운리 63호에서는 원통형의 도침 이외에 지소구의 종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흥 운대리의 또 다른 가마와 해남 신덕리 D지구 이외의 주변 가마군, 강진 용운리 9호 등에서는 원반형이나 썰기형의 경사진 도침이 발견되기도 하여 갑발을 씌우지 않은 채 疊燒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강진 용운리 9호는 납작한 墊餅이나 원추형의 足座 등에 규석을 박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32. 강진 용운리 9호 갑발의 통기공과 기호

3. 조업 시기와 요업사적 성격

1) 조업 시기

용운리 63호는 가마 구조와 축조 방식을 제외하고 강진에 산포한 188개소의 가마 가운데 전축요 출토품과 가장 유사한 조형과 생산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운리 63호는 출토품들의 양식적인 특징을 볼 때, 강진의 도자 생산단계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운영된 가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운리 63호의 조업시기는 강진 청자의 출발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청자의 요구조는 전축요와 토축요 계통이 존재하며 일부 가마의 경우 전축에서 토축으로 축요재를 바꿔 조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축요 방식을 바꾼 대표적 가마들 중에 발굽조사된 가마는 용

인 서리 중덕요지, 용인 서리 상반요지, 여주 중암리 요지, 고창 용계리 요지 등이 있다.¹¹⁴⁾ 이들 가마들은 지표를 제거하고 노출된 최종 상태가 토축요였으나 하부 구조의 확인에서 전축요가 노출된 경우도 있으며, 벽돌들이 폐기물에 대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른바 ‘전축요계 토축요’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축요재의 변화는 예외가 없어 국내에서 발견되는 초기청자 가마가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전환해 갔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따라서 축요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고학적 결과는 적어도 전축요가 토축요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비록 가마의 축요 방식이 연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나 상대적 선후관계에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토축요인 강진 용운리 63호는 전축요 이후의 단계에 운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사진 53 용인 서리 중덕 요지(전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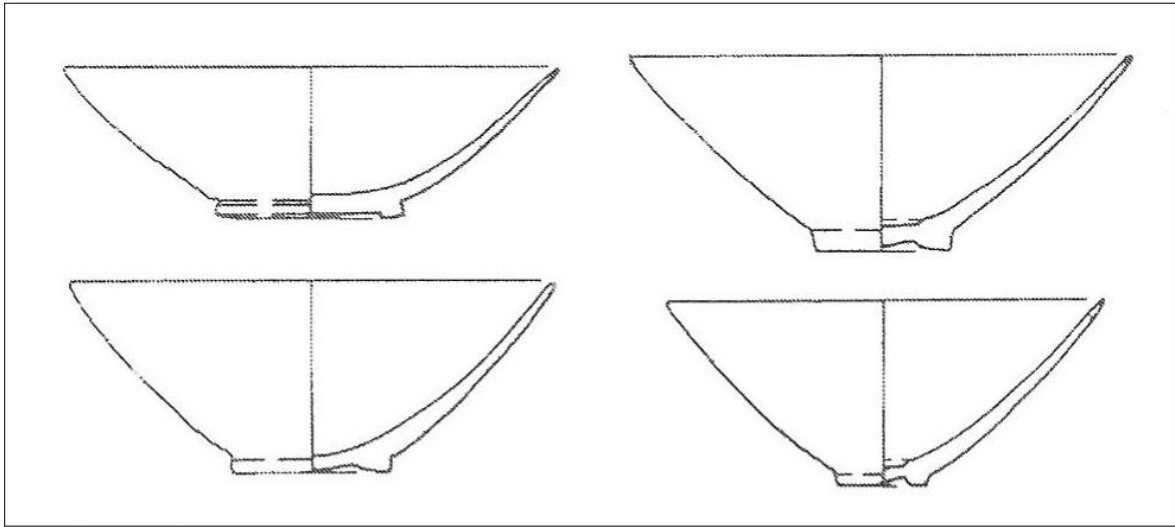
사진 54. 용인 서리 중덕 요지(토축요)

1980년대에 시행된 용인 서리 중덕 요지의 발굴은 초기청자의 이행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1987년의 2차 발굴조사는 퇴적층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4개의 자연 층위가 확인되었고 최하층은 다시 2개 층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주목할 점은 가마의 운영기간 동안 제작품은 청자에서 백자로 바뀌어갔고 최하층인 4-1층에서는 얇은 釉層에 內底가 곡면인 선해무리굽완이 출토된 후, 3층에서 점차 내저원각이 선명한 한국식해무리굽완이 일부 섞이기 시작했으며, 2층에서 한국식해무리굽완이 대량 제작되고 이후에는 이들이 퇴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도면 31).¹¹⁵⁾ 여타의 가마에 비해 조업 기간이 대단히 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마의 堆積狀은 초기청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후 발굴조사된 배천 원산리 2호에서는 선해무리굽완이 주종을 이루고, 시흥 방산동 요지의 퇴

114) 고창 용계리 요지는 발굴 당시 토축요로 이해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鄭明鎬·尹龍二, 1985, 『高敞 아산댐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靑瓷窯址·冶鐵址·逸名寺址·빈대절터』,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희관의 현장 조사와 후속 연구로 인해 이 가마는 전축요에서 출발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李喜寬, 2004,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瓦片 및 磚築窯 問題』, 『美術史學研究』 244, 韓國美術史學會, p.95~120). 또한, 2013년 대한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에서 벽돌이 출토되어 이희관의 추론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115) 2003년 보고서에는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의 순서를 시기적 개념을 적용하여 각각 I기층, II기층, III기층, IV기층으로 지칭하였다. 湖巖美術館, 2003,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I, p.185~189. 金載悅, 1988,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韓國美術史學會, p.3~41. 金載悅, 1998,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址 發掘調査 內容 및 意義』, 『高麗時代의 龍仁』, 龍仁市·龍仁文化院, p.209~236.



도면 33. 용인 서리 중덕 요지 퇴적층을 기준으로 한 완의 형식변화 단계

적에서는 선해무리굽완에서 '과도기적 해무리굽완'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요업이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용인 서리 중덕 요지의 퇴적층에 비추어보면 4-1층, 4-2층, 3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용인 서리의 4-1층, 4-2층, 3층과 배천 원산리 요지, 시흥 방산동 요지는 같은 형식의 완이 생산된 단계로 모두 전축요에서 생산된 기물임을 알게 해준다.¹¹⁶⁾ 그런데 용인 서리 2층은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핵심을 이루는 제작단계로 토축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층과 2층 사이에는 '과도기적 해무리굽완'이 양쪽에 끼어있는 것이다. 용운리 63호의 청자 완들은 바로 이 부분과 양식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선해무리굽완과 '과도기적 해무리굽완'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운리 63호에서 발견되는 완들은 전축요에서 토축요로의 전환기에 조업을 시작한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용운리 63호의 구체적인 운영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편년을 갖는 '淳化三年(992년)'銘高杯와 '淳化四年(993년)'銘壺가 출토된 배천 원산리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순화3년'명고배는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출토품에서 발견되었고, 공반 출토품 중에 '순화4년'명 파편들이 섞여 있어 모두 배천 원산리 2호 생산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화3년'명고배는 원산리 2호 발굴 당시 가마 바닥의 최상층에서 발견되었다.¹¹⁷⁾ 즉, 이 가마는 太廟에 들어갈 祭器들을 2년간 생산한 직후 폐요된 것이다. 따라서 전축요의 전형을 보이는 배천 원산리 2호는 10세기 말에 폐요되었고 같은 단계에 있던 시흥 방산동 가마나 용인 서리 중덕의 전축요 단계 역시 늦어도 11세기 초반경이면 모두 폐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시점을 중심으로 용인 서리 중덕 가마는 토축요로 탈바꿈하였고, 여주 중암리 가마나 고창 용계리 가마도 같은 길을 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토축요를 운영했던 용운리 63호는 전축요가 폐요되어 가던 시점인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조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16) 李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p.111~125.

李鍾玟, 2003, 『韓國 初期靑磁의 形成과 傳播-博築窯와 土築窯를 中心으로-』, 『美術史學研究』 240, 韓國美術史學會, p.51~75.

117) 朝鮮遺蹟遺物圖鑑編纂委員會, 1992, 『朝鮮遺蹟遺物圖鑑』 12, p.312.

2) 요업사적 성격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開窯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운리 63호는 당시의 정세로 볼 때 지방 통치체제의 재편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때는 성종에서 현종의 치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지방 통치체제의 강화,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과 대비를 위한 후속 조치의 단행, 왕실 재정의 수입원이었을 청자산업의 안전문제 등이 한꺼번에 일어났다.¹¹⁸⁾ 따라서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가 점차 폐요되고 남서부 지역의 나주목 산하에 소속된 강진, 장흥, 고흥, 해남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¹¹⁹⁾ 용운리 63호는 그 시발점에 있으며 뒤를 이어 다른 청자 가마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용운리 63호는 요업사에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운리 63호는 가마 구조나 축요재에 있어서 전축요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산 기술과 청자의 조형은 대부분 전축요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종과 기형, 기벽의 두께, 유색, 유층의 두께, 유면의 현상, 굽 깎음새, 내화토, 갑발과 받침대 등은 전축요의 생산품이나 기술과 큰 차이를 두기 어렵다. 결국 강진에서 초기 단계에 청자생산을 시작하였던 용운리 63호의 제작 기술과 조형은 월주요의 기술 이전 과정과 다른 새로운 경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서부 지역 전축요의 조형과 생산 기술에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용운리 63호는 전축요 기술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서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요업 방식을 선택한 듯하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사례는 토축요를 활용했다는 점인데 이는 청자 제작 이전에 강진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던 고려 초의 도기 생산지역에 청자 기술이 들어온 결과일 것이다.¹²⁰⁾ 실제로 강진의 초기청자 가마들은 도기 가마를 근거리에서 두고 겸업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전축요 단계에서는 볼 수 없는 초벌 과정이 시도되면서 일부 기종은 유층이 두꺼워지고 유색에서 푸른빛을 내는 생산품이 만들어졌다.¹²¹⁾ 부드러운 청녹색의 B유형 완들은 유층이 두껍고 깨끗하며 완성도가 높아 A유형 완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 이것은 생산품에 따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이해된다. 초벌 기술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초벌은 강진 지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용운리 63호에 이미 시도되고 있어 이 가마의 조업 시점에 초벌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추정된다.

용운리 63호는 물론이고 단계상 뒤로 볼 수 있는 남서부 지역의 여러 초기청자 가마에서는 갑발

118) 具山祐, 2003, 「高麗 成宗代 政治勢力의 性格과 動向」, 『韓國中世史研究』 14, 韓國中世史學會, p.91~148.

李貞薰, 2010, 「高麗 顯宗代 契丹과의 戰爭과 支配體制 改編」, 『韓國中世史研究』 29, 韓國中世史學會, p.177~212.

119) 李鍾玟, 2011, 「高麗初 靑磁生産 中心地의 移動過程 研究」, 『歷史와 談論』 58, 湖西史學會, p.273~307.

120) 전축요와 토축요를 막론하고 초기청자 생산지역에는 도기 가마가 있다. 한 지역에서 도기와 청자를 병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시흥 방산동 요지는 이미 도기생산이 진행되던 지역에 청자기술이 들어와 인력과 생산시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강진도 초기청자 요지군에 인접하여 도기 파편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李鍾玟, 2002, 「南部地域 初期靑磁의 系統과 特徵」, 『美術史研究』 16, 美術史研究會, p.199~228.

121) 초벌 관련 논문으로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李喜寬, 2003, 「高麗 靑磁의 出現과 초벌구이(素燒)」,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磁』, 康津靑磁資料博物館, p.16~42.

에 다양한 통기공과 기호들이 묘사되어 있다. 통기공의 형태나 배열, 각종 기호들은 가마 안에서 동일한 개체들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나뉠대로의 조합이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이후의 가마들까지 한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통기공과 기호가 다른 것들이 조합을 이루는 것은 장인이 구워낸 기물들을 꺼내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한 일종의 서명으로 생산과 공급에서 전축요 운영 단계와는 다른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관리와 구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이는 도자의 생산체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瓷器所의 출현과 같은 제도상의 변화와 연관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이 지방 통치체제가 완비되어 가던 시기와 겹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청자와 갑발의 성분 특징

강진 용운리 63호 초기청자 요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는 대부분 동일한 계통의 원료를 사용하였고, 안정적인 태토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용운리 63호 요지 청자는 강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청자보다 점토 광물의 함량 비율이 높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용운리 63호 가마에서 사용하였던 원료의 특성과 산지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청자에 국한하여 원료 특성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자의 색상과 관련된 철분의 금속성 착색 성분은 2.0~2.7%를 함유하고 있는데, 강진 지역에서는 삼흥리 요지 청자보다 적고, 사당리 43호 요지보다 많은 함량의 특징을 보인다. 고려청자는 원료에 함유된 철분의 화학적 발색으로 색상이 발현된다. 그러나 용운리 63호 요지의 청자에서 관찰되는 회색, 회갈색, 갈색 등의 색상 변화는 원료에 함유된 철분의 금속성 착색성분의 함량 변화가 아니라 번조 조건의 하나인 번조 분위기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강진과 해남 지역의 일부 청자 요지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광물학적 특성인 크리스토팔라이트가 모두 검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층위에 따라 크리스토팔라이트의 광물 전이 정도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층위와 연관되어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번조하였던 제작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청자 요지보다 높은 번조 온도 또는 긴 번조 시간으로 번조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과학적 분석 결과 퇴적 층위에 따라 번조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기술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자의 태토조성에 대한 분포 양상을 기초로 살펴보면 퇴적 I·II보다 퇴적 IV의 청자가 안정적인 제작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용운리 63호 요장이 번조 기술을 발전 변화하면서 청자를 제작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한편, 청자와 함께 출토된 갑발은 청자보다 보다 높은 온도와 긴 번조 시간이라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어, 갑발의 용도에 맞는 반복 사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광물학적 특성도 확인되었다.

Ⅵ. 맺음말



Ⅵ. 맺 음 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에 위치한 고려 청자요지는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청자요지군이 밀집해 있는 중요성에 비해 자연재해와 경지정리, 묘역조성 등으로 지형이 변형 또는 훼손되고 있으며, 학술적 조사도 지표조사 위주로 실시되어 체계적인 성격 규명과 보존 관리를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강진군은 대구면 일대 고려청자 가마터의 규모와 성격을 밝히고, 향후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 자원과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용운리 63호에서는 청자요지 1기와 가마 퇴적층 1기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구릉 경사면을 정리한 다음 바닥을 살짝 파내고 측벽과 천장부를 진흙으로 쌓아 올린 半地下式의 穹窿形 單室 登窯이다. 그러나 오랜 경작과 주변 지형의 침하로 가마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어, 남아 있는 부분은 길이 470cm, 너비 130cm에 불과하며 가마의 바닥은 지표로부터 50cm 정도 내려가 있다. 그러나 가마의 주변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봉통부(燃燒室) 쪽에 溪流가 흐르고 있어 가마의 전체 길이는 10m 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측면 출입구는 현재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나 퇴적층이 가마 왼쪽(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측면 출입구는 좌측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마의 폐기물 퇴적층은 가마 왼쪽 1m 정도 위치에 420×420cm 범위에 퍼져 있으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높이 120cm이다. 퇴적층 역시 오랜 경작과 침식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유실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퇴적층은 모두 3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이곳에서는 소량의 청자 파편과 다수의 갑발, 갑발 받침 등이 수집되었다. 청자의 기종은 발과 완, 잔, 접시, 소호, 반구병, 반구편병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기종과 기형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퇴적층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정확한 조업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강진에는 용운리를 중심으로 계율리와 사당리, 삼흥리 등에 초기청자 가마터가 분포하는데 용운리 63호 출토품은 기종 구성과 기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일부 특징적인 면이 확인된다. 용운리 63호 청자는 품질이 다른 두 계통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기벽의 두께와 釉層이 무척 얇고 무게가 가벼운 유형으로 짙은 녹갈색조의 유색에 일부 기종에서는 유약이 말린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계통의 그릇들은 전반적으로 굽을 좁고 예리하게 깎았는데 내저곡면에 선해무리굽을 가진 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릇의 내면에는 재나 가마 천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갑발을 선별적으로 사용한 듯하며 출토 유물의 대다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또 다른 유형은 상대적으로 기벽이 두껍고 같은 기형이지만 약간 무겁다. 특히, 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釉面이 깨끗하고 釉層이 두꺼우며 釉色은 부드러운 청녹색을 띠고 있어 마치 宋代 鈞窯 등에서 볼 수 있는 天青色과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속하는 완들은 내저에 원각이 살짝 비치고 굽은 한국식해무리굽에 가까워 선해무리굽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완들은 내저면의 원각이 선명하지 않아 전형적인 한국식해무리굽완과도 차이가 있는 과도기 해무리굽완이다. 이들 완은 모

두 갑발에 넣어 구운 듯, 내면에 잡티가 없어 완성도가 높다. 이처럼 동일 가마에서 제작방식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수요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였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청자에 비해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도구이다. 요도구는 갑발과 갑발 받침, 도침, 불창마개 등이 있다. 갑발은 원통형이 기본을 이루는데 크기와 높낮이가 다양하다. 태토는 고운 瓷土를 활용한 것과 모래 섞인 거친 태토를 활용한 두 종류가 있으며 자토를 활용한 경우에는 기벽이 얇고, 거친 태토를 사용한 것은 두껍다. 갑발의 특징은 갑발 측면 상부에 통기공이 뚫려 있거나 기호가 새겨진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통기공은 원형 또는 삼각형의 구멍 1~3개를 외부에서 뚫었고 통기공의 주변이나 가운데에 원이나 +자형의 음각 부호를 새겨 놓았다. 모양이 같은 투공과 기호가 있는 갑발이 여러 벌 확인되는데 통기공은 기물을 구울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뚫은 것으로 보이며 기호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표식이라 판단된다. 갑발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학적 분석에서도 확인되는 특성이다. 갑발 받침은 갑발 지름에 따라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 역시 다양한 크기가 확인된다. 갑발 받침은 다리 모양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되는데 다리가 밖으로 벌어지거나 수직에 가까운 것, 안으로 오므라든 것이 있다. 갑발 받침은 갑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화가 덜 되었는데, 이것은 받침이 가마 바닥 위에 위치했던 관계로 온도가 낮아 덜 익었기 때문이다. 이외의 요도구는 陶枕이 있는데, 支燒具인 도침은 원통형으로 지름 12cm 내외, 높이 14cm에 이르며 강진을 위시한 한반도 남서부 일원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비교하면 꽤 큰 편에 속한다. 그리고 크기는 유사하나 한쪽 지름이 넓고 瓷化된 양상의 차이가 크며 가운데 구멍이 뚫린 불창마개가 출토되었다.

용운리 63호 출토 청자의 기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배천 원산리 2호와 시흥 방산동 요지 등의 전축요 출토품과 다른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일한 시기이든,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든 용운리 63호와 전축요는 계통이 다른 가마가 아니라 기술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원통형 갑발과 복발형(투구형) 갑발은 전축요와 토축요에서 함께 쓰였으며 사용법이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용운리 63호의 갑발과 갑발 받침이 전축요의 요도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적재 도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운리 63호에서 발견된 원통형의 도침은 강진을 위시한 남서부 일대의 주변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전축요에서 발견되는 번조 도구가 아니다. 이는 용운리 63호가 開窯한 이후 조업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받침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용운리 63호는 가마 구조와 축조 방식을 제외하면 강진에 분포한 188개소의 가마 가운데 전축요 출토품과 가장 유사한 조형과 생산 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운리 63호는 출토품의 양식적 특징으로도 강진의 도자 생산단계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운영된 가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부지역 전축요 출토품과의 비교 등을 통해 전축요가 廢窯되어 가던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토축요로 조업을 시작하였던 추정된다. 따라서 용운리 63호는 전축요의 생산기술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면서 운영되었다.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개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운리 63호는 당시의 정세로 볼 때 지

방 통치체제의 재편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는 성종부터 현종에 해당하는 때로 지방 통치체제의 강화, 거란의 침입과 대비를 위한 후속 조치의 단행, 왕실재정의 수입원이었을 청자산업의 안전문제 등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가 점차 폐요되고 남서부 지역의 나주목 산하에 소속된 강진, 장흥, 고흥, 해남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용운리 63호는 그 시발점에 있으며 뒤를 이어 다른 청자 가마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용운리 63호는 전축요 기술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서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요업 방식을 선택한 듯하다. 새로운 생산기술은 토축요를 활용했다는 점인데 이는 청자 제작 이전 단계에 강진 일대에 널리 퍼져있던 고려 초의 도기 생산지역에 청자 기술이 들어온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강진의 초기청자 가마들은 도기 가마를 근거리에서 두고 겸업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전축요 단계에서는 볼 수 없는 초벌 과정이 시도되면서 일부 기종은 유층이 두꺼워지고 유색에서 푸른빛을 내는 생산품이 만들어졌다. 초벌은 강진 지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용운리 63호에 사용되고 있어 조업 시점에 이미 초벌 기술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출토품의 과학적 분석 결과 퇴적 층위에 따라 번조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기술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자의 태토조성에 대한 분포 양상을 기초로 살펴보면 퇴적 I·II보다 퇴적 IV의 청자가 안정적인 제작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용운리 63호 요장이 번조 기술을 발전 변화시키면서 청자를 제작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청자와 함께 출토된 갑발은 청자보다 보다 높은 온도와 긴 번조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 용도에 맞게 반복 사용하였음을 광물학적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 요지는 고려청자의 발생과 변천뿐만 아니라 강진 고려청자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료의 특징과 생산 기술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들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활용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고려청자에 관한 중요한 학술적·교육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려청자의 생산체제과 유통구조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사료된다.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출토유물목록

연 번	유 물 명	도 면	사 진	연 번	유 물 명	도 면	사 진
1	완	72	72	34	완	102	102
2	완	72	72	35	완	103	103
3	갑발	73	73	36	완	103	103
4	갑발	73	73	37	완	104	104
5	발	88	88	38	뚜껑	104	104
6	발	88	88	39	접시	105	105
7	발	89	89	40	접시	105	105
8	발	89	89	41	접시	106	106
9	발	90	90	42	접시	106	106
10	발	90	90	43	접시	106	106
11	발	91	91	44	접시	107	107
12	발	91	91	45	접시	107	107
13	완	92	92	46	접시	108	108
14	완	92	92	47	접시	108	108
15	완	93	93	48	접시	109	109
16	완	93	93	49	접시	109	109
17	완	94	94	50	접시	110	110
18	완	94	94	51	접시	110	110
19	완	95	95	52	접시	111	111
20	완	95	95	53	접시	111	111
21	완	96	96	54	접시	112	112
22	완	96	96	55	접시	112	112
23	완	97	97	56	접시	113	113
24	완	97	97	57	잔	113	113
25	완	98	98	58	잔	114	114
26	완	98	98	59	잔	114	114
27	완	99	99	60	잔	115	115
28	완	99	99	61	잔	115	115
29	완	100	100	62	잔	116	116
30	완	100	100	63	잔	116	116
31	완	101	101	64	잔	117	117
32	완	101	101	65	이호	117	117
33	완	102	102	66	뚜껑	117	117

강진 용운리 63호 청자요지 출토유물목록

연 번	유 물 명	도 면	사 진	연 번	유 물 명	도 면	사 진
67	병	117	117	100	갑발	131	131
68	병	118	118	101	갑발	131	131
69	병	118	118	102	갑발	132	132
70	병	119	119	103	갑발	132	132
71	병	119	119	104	갑발	133	133
72	구연부	119	119	105	갑발	133	133
73	구연부	119	119	106	갑발	134	134
74	구연부	120	120	107	갑발	134	134
75	구연부	120	120	108	갑발	135	135
76	구연부	120	120	109	갑발받침	135	135
77	구연부	120	120	110	갑발받침	136	136
78	구연부	121	121	111	갑발받침	136	136
79	구연부	121	121	112	갑발받침	137	137
80	구연부	121	121	113	갑발받침	137	137
81	구연부	122	122	114	도침	138	138
82	구연부	122	122	115	도침	138	138
83	저부	122	122	116	도침	139	139
84	저부	123	123	117	도침	139	139
85	저부	123	123	118	도침	140	140
86	저부	124	124	119	도침	140	140
87	저부	124	124	120	도침	141	141
88	저부	125	125	121	도침	141	141
89	저부	125	125	122	발	143	143
90	저부	126	126	123	접시	143	143
91	저부	126	126	124	접시	144	144
92	갑발	127	127	125	병	144	144
93	갑발	127	127	126	저부	144	144
94	갑발	128	128	127	갑발	145	145
95	갑발	128	128	128	갑발받침	145	145
96	갑발	129	129	129	갑발받침	146	146
97	갑발	129	129	130	도침	146	146
98	갑발	130	130	131	발	149	149
99	갑발	130	130	132	완	149	149

康津 龍雲里 63號 高麗 青瓷窯址 抄錄

報告書名	康津 龍雲里 63號 高麗 青瓷窯址 發掘調查 報告書		發刊日	2015年 1月
發刊機關	名稱	(財)民族文化遺產研究院		
	住所	全羅南道 木浦市 玉岩路 108		
	電話.	061) 285-8335	電送.	061) 287-8335
執筆・編輯者	강경인, 이종민, 한성욱, 이수경			
調査緣由	정비복원			
發掘 調査者	김기홍, 한성욱, 홍진석, 이수경, 김순희, 김진경			
遺蹟 所在地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 84番地一圓			
調査面積	2,883m ²			
遺構種別	時代	基數	重要 遺物	特記 事項
生産遺構	高麗	1基	瓷器類 陶器類 窯道具	

康津 龍雲里 63號 高麗 靑瓷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발행일 2015년 1월

발 행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08
TEL. 061)285-8335 FAX. 061)287-8335
전자주소 minjog0303@hanmail.net

인 쇄 사람과사람들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14-38
061)274-3372

강진
용운리 63호
고려 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530-831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08
전화 061) 285-8335 전송 061) 287-8335
전자주소 minjog0303@hanmail.net